

張太平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미래 10년을 준비하자

2010년 11월 발행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인쇄처 : 영진인쇄사
(비매품)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미래 10년을 준비하자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미래 10년을 준비하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설문집



장태평(張太平)

학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 1969 경기고등학교

주요경력

- 2008.08~2010.08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2006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 2005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국장
- 2004 농림부 농업정책국 국장
- 2000 재정경제부 국제심판원 상임심판관
재정경제원 재산세제과 과장
재정경제원 법인세제과 과장
재정경제원 국제조사과 과장
- 1990 경제기획원 장관비서관
- 1977 행정고시 20회 합격

수상내역

- 2000 대통령표창
- 1997 녹조근정훈장
- 1989 국무총리표창

| 사진 | 김인득

농림수산물 산업의 미래
10년을 준비하자

Contents

I. 취임 · 신년 · 이임사

취임사 2008. 8. 6	16
신년사 2009. 1. 1	22
신년사 2010. 1. 1	28
이임사 2010. 8. 3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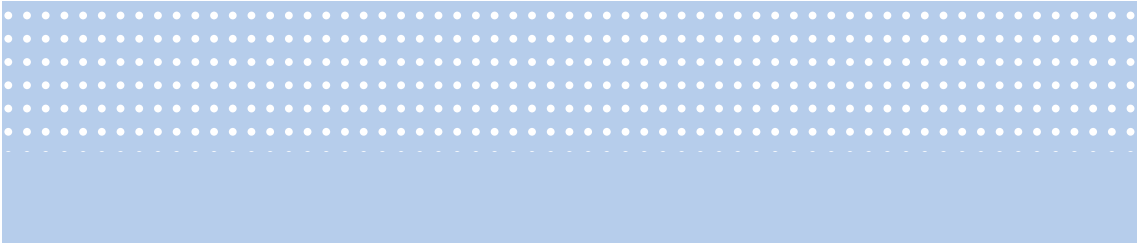
II. 연 설 문

농어업의 미래준비 및 체질개선

농수협 개혁 · 농어업선진화 · 비전 2020 등

Green Korea 운동 발대식 축사 2008. 10. 28	40
제1회 한우의 날 제정식 축사 2008. 11. 1	41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심포지엄 개최사 2009.01.13	43
수협중앙회 제47주년 창립기념일 치사 2009. 4. 1	46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축사 2009. 6. 18	48
바다숲가꾸기 선포식 행사 인사말씀 2009. 7. 10	49
제7회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전국회원대회 축사 2009. 9. 23	51
제14회 농업인의 날 축사 2009. 11. 11	53
「농업전망 2010」개회식 격려사 2010. 1. 21	58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2010. 2. 4	61
농협중앙회 제49주년 창립기념일 치사 2010. 6. 29	63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 전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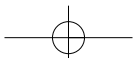
식품산업육성 · 한식세계화 · 술산업 경쟁력 대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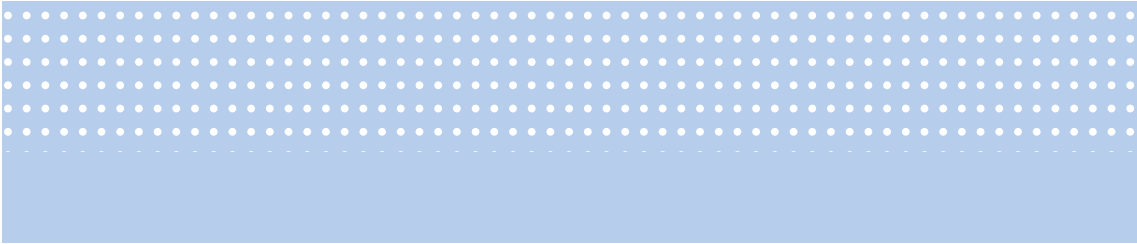
「한식 세계화 선포식」기념사 2008. 10. 16	67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2008. 11. 21	69
한식 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 2009. 4. 7	70
「한식 세계화 추진단」출범식 개회사 2009. 5. 4	73
「2009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개막식 축사 2009. 5. 13	74
식품산업진흥 선포식 및 투자유치설명회 인사말씀 2009. 11. 27	76
『세계 김치연구소』개소식 축사 2010. 3. 10	78
『한식재단』출범기념식 축사 2010. 3. 17	80
김치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축사 2010. 4. 9	82
쌀 소비촉진 토론회 축사 2010. 4. 12	84
제2회 서울떡볶이페스티벌 축사 2010. 5. 8	85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본부 발대식 축사 2010. 5. 13	86
한국식품과학회 국제심포지엄-간친회(懇親會) 및 학생회원들을 위한 한마당 만찬사 2010. 6. 17	89
우리 술 학술 세미나 축사 2010. 7. 20	92

미래 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생명산업 육성 · 중자산업 육성 등

08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전 인사말씀 2008. 9. 24	94
제5회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축사 2008. 12. 10	96
농식품수출전진대회 기념사 2009. 3. 11	97





말 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축사 | 2009. 7. 15 100

2010 농식품생명과학 심포지엄 축사 | 2010. 6. 17 101

생명산업 D.N.A#展 학술행사 (생공연, 농경제학회 합동) 축사 | 2010. 6. 17 103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농식품 안전 · 식생활 개선 등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출범식 축사 | 2009. 12. 17 105

「한국식품공업협회 신년 인사회」 축사 | 2010. 1. 11 107

『천일염 세계화 포럼』창립총회 인사말씀 | 2010. 2. 18 109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지역개발 · 농촌관광 ·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등

새만금 프로젝트 심포지엄 축사 | 2009. 5. 11 112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 2009 축사 | 2010. 11. 5 113

2010 수산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 2010. 1. 8 115

운암지구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기공식 격려사 | 2010. 2. 1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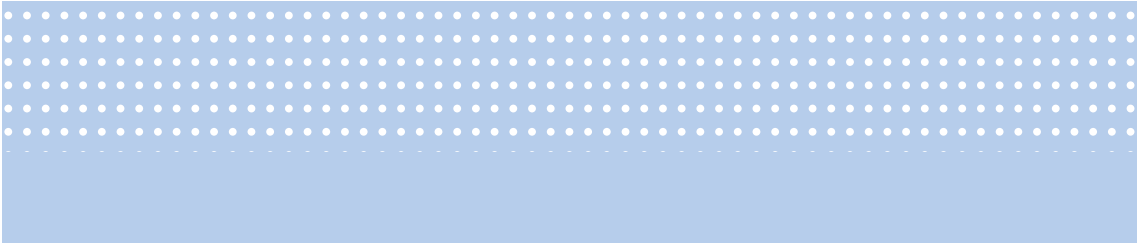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기공식 격려사 | 2010. 3. 31 118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인사말씀 | 2010. 4. 27 120

「도시농업포럼 텃밭 가꾸기 행사」축사 | 2010. 5. 1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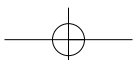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 시 · 군 시상식 치사 | 2010. 7. 29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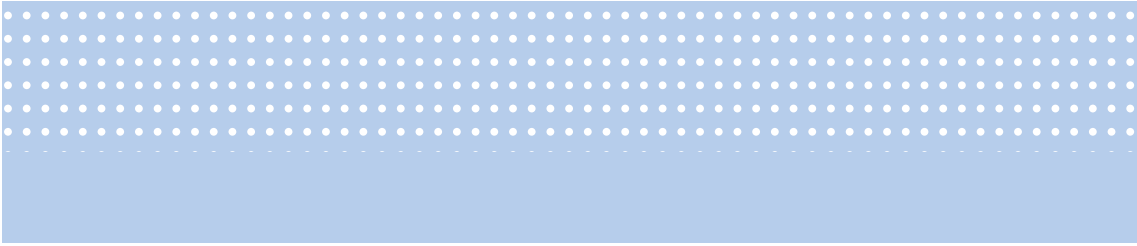




III. 언론 인터뷰 · 기고

강한 농수산업 해법	128
YTN-R 장철의 생생경제 2008. 8. 26	
신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137
KTV-경제투데이 2008.08.26	
한식 세계화	140
중앙일보 2009. 2. 4	
뉴질랜드 구상 농업개혁에 대하여	145
KBS-1R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2009. 3. 12	
농업 선진화 대책으로 농어업 보조금 개편	154
MBC-R,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2009.7.30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159
“이승열의 SBS 전망대” 2009.8.18	
추석물가 안정대책	165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2009.9.21	
쌀 수매 매입자금 지원금리 무이자로	175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 2009. 9. 30	
‘1사1촌’ 세상을 바꾼다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로”	183
문화일보 2009. 10. 17	





Markt opening Pressuresfarmers to moderniz 186
 코리아타임즈 | 2009. 10. 24

[기획 대담] 식품 산업 집중 육성 196
 KBS 뉴스라인 | 2009. 11. 3

“한우 등 25개 농축수산물 유통비용 거품 확 빼겠다” 199
 동아일보 2009. 11. 12

고구마 농사꾼과 쌀빵 201
 조선일보 | 2009. 11. 21

MBN 신년인사 204
 MBN | 201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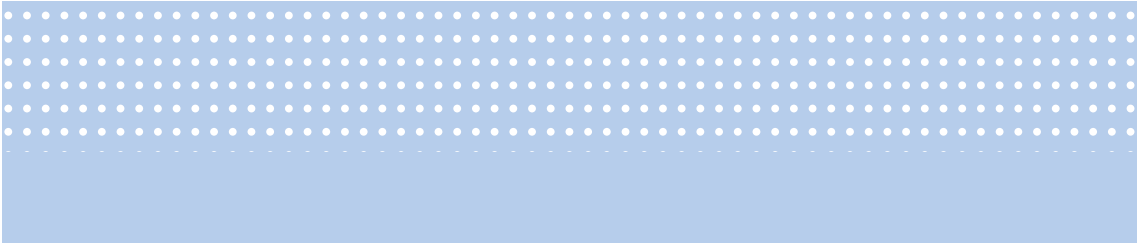
4대강 사업, 농협사업구조 개편, 식품안전 대책 205
 SBS-R 라디오 전망대 | 2010. 1.6

[신년 인터뷰] 2010년 주요업무계획 211
 연합뉴스 | 2010. 1. 13

농협사회구조 개편, 한식세계화, 4대강 사업 등 221
 월간조선 | 2010. 2. 17

농식품분야 고용안정 프로젝트 224
 KTV | 2010. 2. 19





출범2년 성과 및 비전 2020 226
 YTN | 2010. 2. 24

농림수산식품 · 농산어촌 비전 2020 228
 MBN | 2010. 2. 24

쌀 수급안정대책, 친환경농산물 육성 등 230
 전남매일 | 2010. 3. 2

출범 2년성과, 농협개혁, 한식세계화 등 235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2010. 3. 4

농림수산식품 · 농산어촌 비전 2020 241
 이데일리TV<이데일리 초대석> | 2010. 3. 20

생명산업 등 신성장 동력, 농정개혁 평가 등 243
 매일경제 | 2010. 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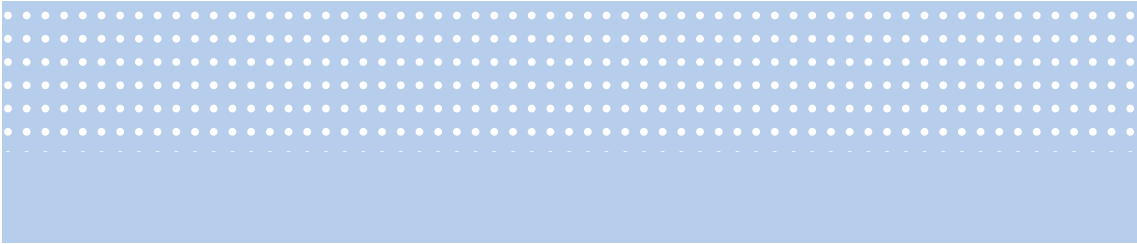
구제역, 4대강사업, 쌀수급 안정 등 244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2010. 4. 22

꿀벌 없으면 꿀만 못 먹는게 아니다 252
 동아일보 | 2010. 6. 3

한국의 미래 國富 창출원... 생명산업은 '제2 반도체' 254
 매일경제 | 2010. 6. 16

쌀 수입 안정 대책 256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2010. 7. 7





농어촌 산업박람회 263
 KBS-1R 박태남의 집중인터뷰 전문 | 2010. 7. 27

다가오는 ‘제4의 농업혁명’ 물결 275
 중앙일보 | 2010. 7. 31

IV. 정책 설명회, 강연회 · 간담회

정부, 수확기 쌀 수매 대폭 늘려 278
 GTB 강원민방 | 2009. 10. 30

“쌀값 안정시킬것” 279
 JTV 전주방송 | 2009. 10. 30

예상량 초과 쌀 전량 수매 281
 TBC 대구방송 | 2009. 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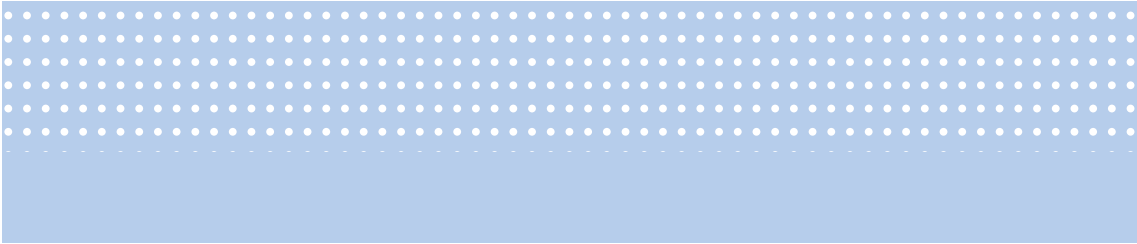
쌀소비 확대가 쌀값 안정 283
 KNN 부산경남방송 | 2009. 10. 31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 설명 및 조기수습 협조(방역관계자, 농업인) 285
 연합뉴스 | 2010. 1. 14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안동지역 조합장) 286
 경북일보 | 2010. 2. 1

아름다운 비전, 멋진 식품산업을 위한 안동 농어업인 간담회 287
 뉴시스 | 2010. 1. 20





신수협 운동방안 보고회(수협중앙회) 288
 내일신문 | 2010. 1. 27

설 성수품 공급확대 방안 설명 및 시장관계자 의견 청취(지동시장 관계자) 289
 연합뉴스 | 2010. 2. 4

지역통합 정부지원 방안 설명 290
 KBS | 2010. 2. 6

황태산업 발전 방안 논의 및 의견 청취(인제군 용대리 황태연합회 등) 291
 강릉MBC | 2010. 2. 27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원주지역 조합장) 292
 강원일보 | 2010. 3. 1

공동어시장 시설현대화 방안 논의 및 의견 청취(부산공동어시장 어업인) .. 293
 부산MBC | 2010.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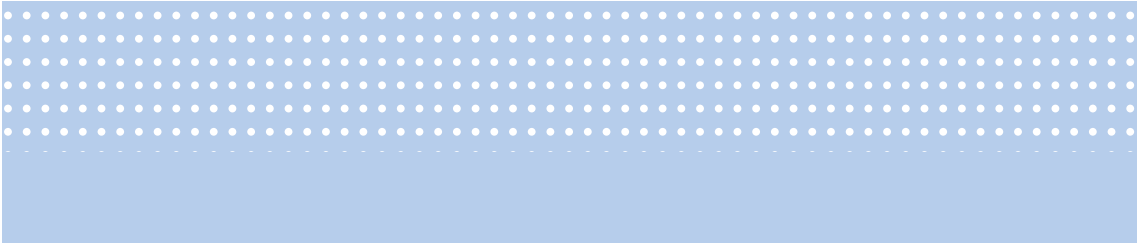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김해, 양산지역조합장) 294
 뉴시스 | 2010. 3. 6

진영 단감 명품화 전략 논의(진영군 농업인) 295
 뉴시스 | 2010. 3. 6

제주어업 발전방안 등 논의(서귀포지역 수협장) 296
 제민일보 | 2010. 3. 1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함안, 의령 조합장) 297
 경남신문 | 2010. 3. 15





농업인과의 대화 298
 광주매일 | 2010. 3. 19

농업, 농촌 르네상스를 위하여 299
 뉴시스 | 2010. 3. 19

일조 부족 피해현황 파악 및 건의 사항 청취 300
 매일신문 | 2010. 3. 27

쌀 소비촉진 위한 정책 토론회 301
 내일신문 | 2010. 4. 15

농어업,농어촌 르네상스를 위하여 (전국마이스터 대학 교수, 학생 대상) ... 302
 내일신문 | 2010. 4. 15

말산업 발전 방안 논의(말사육농가) 303
 제민일보 | 2010. 4.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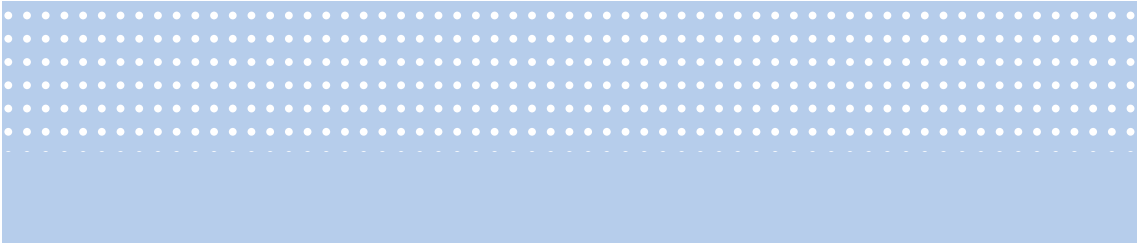
복숭아 동해 피해 현황 파악 및 농가 애로사항 청취(복숭아 재배농가) 304
 강원일보 | 2010. 4. 19

V. 친 서

쌀 수확기 대책 306
 전국의 이장님, 통장님, 그리고 부녀회장에게 보내는 편지 | 2008. 8. 20

쌀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309
 농업인에게 보내는 편지 | 2008. 10





농어업 선진화, 함께 일궈 나갑시다. 311
 농림수산공직자에게 보내는 편지 | 2009. 6. 1

웃음이 묻어나는 행복한 선물 우리 농림수산식품으로 315
 추석명절 농수산식품 판매촉진 서한 | 2009. 9

수확기 쌀 가격 안정 317
 이장·통장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추석선물 서한 320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추석선물 서한 321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추석선물 서한 322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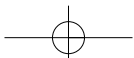
추석선물 서한 323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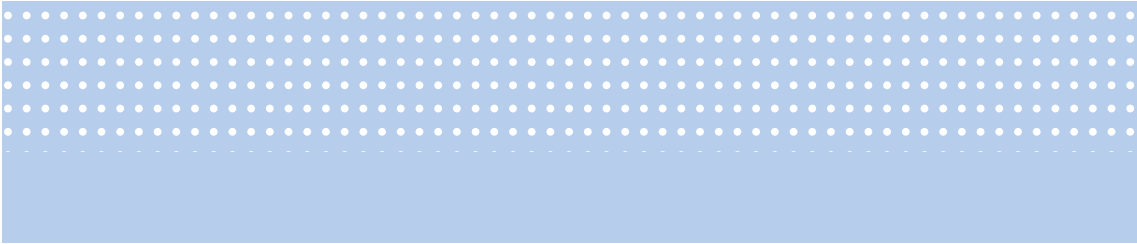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324
 농어업·농어촌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보내는 편지 | 2009. 10

쌀 수습안정대책 325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쌀가공제품 소비촉진 328
 국군 지휘관에게 보내는 편지 | 2009. 12

농어촌으로 떠나는 五感滿足 여행으로의 초대 330
 국민 여러분들께 보내는 편지 | 20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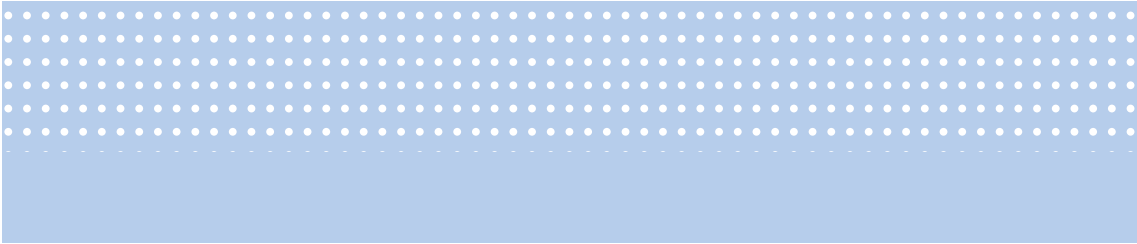




VI. 현장소통

경상북도 방문	334
2009. 7. 27	
경상남도 방문	336
2009. 7. 28	
해병대 방문 쌀 제품 홍보	338
해병대 제2사단 2009. 8. 19	
마을 사무장 워크숍과 보은군 아그로스쿨	340
2009. 8. 28	
한여농 전국대회	341
2009. 9. 2	
한여농과의 진안 간담회	342
2009. 9. 20	
청원군 아그로스쿨	345
2009. 9. 27	
농업인의 날	346
2009. 11. 14	
김제 방문과 지평선 축제	347
2009. 10. 11	
징검다리 서포터즈 위촉식	348
2009. 11. 13	





강화군 축산농가 방문 349
 2010. 6. 27

16강 기원 월드컵 응원 번개 350
 2010. 6. 28

장태평 장관 경북 청도 영농현장 방문 352
 연합뉴스 | 2009. 6. 4

장태평 장관 청원서 접수리 봉사 355
 충청매일 | 2009. 6. 4

장태평 장관 “농산물 품목단체 적극 지원” 356
 매일신문 | 2009. 6.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북 농업현장 방문 358
 경북일보 | 2009. 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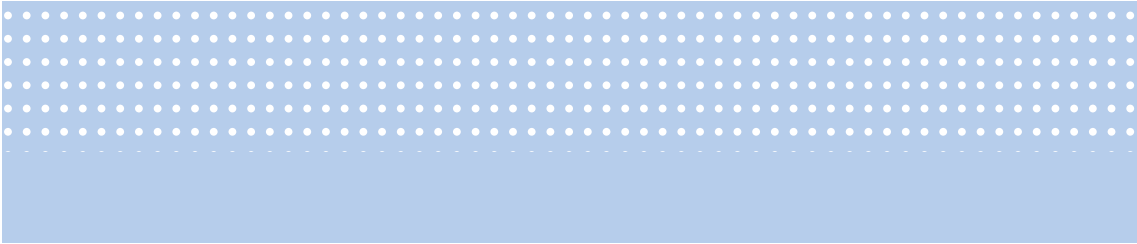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평택 농정 현장방문 360
 환경일보 | 2009. 6. 9

블루베리 재배시설 시찰 간담회 361
 축산경제신문 | 2009. 6. 12

장태평 장관, 담양 친환경농장 방문 362
 광남일보 | 2009. 6. 14

장 장관, 담양 친환경 농장방문 364
 무등일보 | 2009. 6. 15





“농업선진화 방안은 소득증대 정책” 365
 남도일보 | 2009. 6. 15

장태평 농수산장관 수북 친환경농업단지 방문 366
 YES TV | 2009. 6. 16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우리고장 방문 369
 영주 시민신문 | 2009. 7. 4

“영광에 보릿가루 식품공장 검토” 370
 전남일보 | 2009. 7. 6

농업현장 찾은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374
 광주 매일신문 | 2009. 7. 6

“우리 농업 약하지 않다” 375
 헤럴드 경제 | 2009. 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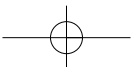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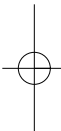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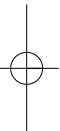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농어촌 주택개량 전폭 지원” 376
 연합뉴스 | 2009. 7. 18

부록

장관님 주요 일정(농정일지) 378

장관 취임 1주년 주요 성과 415







취임 · 신년 · 이임사



2008. 8. 6

취 임 사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장태평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우선, 새 정부 초기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전임 정운천 장관님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농림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서 30여년간 공직에 근무하면서 국가재정 및 경제정책, 세제정책, 농업정책 등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2004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1년 8개월간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119조원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농업경영체 활성화 대책 수립, 농협개혁을 위한 협동조합법 개정 등 농어업의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때의 소중한 경험과 인연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제기된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 있고,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도 필요합니다. 또한, 비료·사료·유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많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농림수산공직자들과 농림수산식품산업 가족들의 사기 또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농어업은 수입개방의 어려움 속에서 10여년 이상 시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금융 등 타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농어업은 새로운 IT·BT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농식품산업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도 정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의 시련과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축적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시련에 단련되었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 열과 성을 다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저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명심하여 농식품 안전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내산 및 외국산 농식품에 대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입검역시스템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관련 제도들을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농약 등 위해물질 관리강화는 물론, 유통단계에서의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정착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림수산업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자연에만 의존하는 산업도 아닙니다.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등으로 세계의 식품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어 다음세대의 주력 성장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농어업도 수입개방을 극복하고 농어업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는 새로운 첨단 수출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에는 규모화가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규모가 영세한 중·소농어인들이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생산·유통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이용과 경영의 규모화' 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욕 있는 전문 농어업인들은 기술과 자본을 키워나가 기업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품목에 관한 문제는 농어업선진국처럼 품목단체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단체 스스로가 종자, 기술, 유통, 가공 및 수급조절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책지원 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누구나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농어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농어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업 인프라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 교육·훈련, 기술지원·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농지 등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분야에도 내부적인 자본축적을 통한 재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경영능력을 갖추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어업인에게는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도 절실합니다.

R&D 지원은 생산중심에서 농식품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에 ‘농어업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업도 이제는 수산식품을 즐겨 찾게 되었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수산분야와 농림분야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 수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산물 유통을 개선하여 농어업인은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질 좋은 농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산지 유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유통시설, 물류·마케팅 지원을 품목별 생산단체에 집중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키워나가 생산자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식품업체 등에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신유통시스템을 도입·확대하여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실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제를 도입하여 B2B 거래를 창출하고, 차세대 물류표준인 RFID도 도입 할 것입니다.

기존 공영도매시장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표준규격품의 유통확대와 하역기계화를 추진하여 중·소 농어가도 쉽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농어업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재료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과 판로 확대로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동반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산업을 저비용·고효율 구조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식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조직화된 외식업소에 식재료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한식과 어울리는 인테리어, 소품, 식기류, 의류 등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키겠습니다.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농식품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지향형 식품 연구생산전문단지도 조성하고 식품기업 활동의 최적 환경 제공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등을 갖추겠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을 통해 5년 내에 농림수산식품 수출 100억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어촌을 선진 일류국가에 걸맞게 삶터, 쉼터, 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나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자 다양한 미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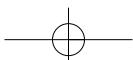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농어촌 실정에 맞는 관광, 레저, 음식, 축제 등이 결합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구는 줄고 초고령화된 현재의 농어촌은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진복지정책을 농어촌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도시로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지불제도는 어려운 농어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 뿐만 아니라 유럽과 같이 농어업-환경-지역을 연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려나가는 핵심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부드러운 물방울도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 막는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밤낮 없이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습니다.





국민과 농어업인들께 감동을 주는 속 시원한 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함께 지켜 나갑시다. 제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객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고객은 국민이고 소비자입니다.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품질 높은 농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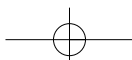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둘째,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주는 농어업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농어업인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행정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효율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높ی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농어업인의 이익측면에서 집행하고 평가하겠습니다.

셋째, 정책수행에 있어서는 '원칙'을 최고의 선으로 삼아 지켜나가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정책이 집행될 때 공정과 경쟁이 어울려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예측가능하게 되고 신뢰도 회복될 것입니다.

넷째,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지자체가 농정의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얼굴을 맞대고 농어업인, 소비자, 지역 농정 주체들과 협의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세계와 경쟁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타 산업에 결코 뒤지지 않는 강한 산업을 만들어 나갑시다.
 강한 농어업인이 됩시다.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 수출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농어업인이 됩시다.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도 강한 부처로 다시 태어납시다. 언제나 긍정적 사고를 하고 1등 부처의 자긍심을 갖는 강한 부처가 되도록 합시다.
 저는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농림수산가족 여러분들도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 1

新 年 辭

존경하는 전국의 농어업인 여러분!
농림수산식품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은 己丑年, 소띠해입니다. 소는 힘이 세면서도 순하고 듬직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움을 잘 견디며 주인에게 순종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경민족인 우리 조상에게 소는 가축이며 영농의 동반자요, 최고의 든든한 자산이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들 또한 새해에는 근면, 성실, 순종의 상징인 소의 품성을 닮아 농어업인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우직한 공직자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어업인과 농림수산식품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어업을 둘러싼 환경은 많이 변화되었고,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뀌고 산업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화되는 21세기는 20세기와는 전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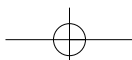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른 사회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폭과 속도도 그 유례가 없이 크고 빠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상황도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의 변화를 읽고 선제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낙
 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와 농어업인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
 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농어업·농어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하며,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태를 바꾸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어업인 여러분!
 2009년도에는 우리 농림수산식품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어업이 식품산업
 과 동반성장을 통한 고부가가치·수출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
 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여섯 가지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
 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업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진정한 농림어업인의 조직으로 다
 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개혁은 농어업인에게 혜택을 되돌려 주는 방향
 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협동조합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되도록 상
 생의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도 조직·인력 등의 거품을
 빼고 농어업인에 대한 진정한 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분야 기술개발체계는 연구와 정책과 현장이 상호 연계되어 우리 농어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체계화하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재정지원방식도 전면적으로 손질 하겠습니다. 정부는 생산 인프라 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농수산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강화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농림수산물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개척 등 새로운 수요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지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군단위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농어업인의 시장 교섭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립 등 다양한 직거래 추진으로 유통비용을 줄이겠습니다.

GAP, HACCP, 이력추적제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대하여 친환경·안전 농식품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안전 관련기관의 검역·검사 기능을 통합하는 등 효과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경기부진에 따른 내수시장위축을 해외수출로 타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작년보다 18% 증가한 53억불로 정해, 해외시장개척활동 및 국산 식재료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한식조리인력과 한식당을 육성하고 이들의 해외진출을 도와,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에 버금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올해 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2010년에 완공하여 120조원 규모의 세계 절임류 시장을 개척하는 선도기관으로 키우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들어서게 될 국가식품클러스터 또한 단지지정 등을 통해 식품기업과 연구소가 많이 유치되도록 국내외 투자활동을 펼치겠습니다.

2012년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대규모 첨단 유리온실을 간척지 등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농어업인의 경영 및 소득안정 장치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수준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10년에 시범도입 예정인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농협이 3천억원을 투입하여 중고농기계 매입을 완료하는 등 농기계 은행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산물·수산물·축산물별로 각기 운용하던 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벼를 포함하여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을 살 맛 나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젊은 귀농인력이 일정지역에 모여 살 수 있도록 교육·문화·교통 등 관련시설이 집적된 전원형 주택단지인 농어촌뉴타운 5개소를 시범 조성하겠습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학자금 무이자 융자 및 연금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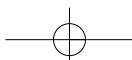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농어촌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고, 총 314개소의 농산어촌체험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농어촌의 소득원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를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와 향토자원 상품화사업을 4대강 하천경관 및 강변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국내관광 수요를 농어촌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수산업은 산란·서식지 보호 등 수산자원회복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남획이 큰 어선의 감척, 연안 생태계 복원 및 바다 숲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 및 친환경배합사료 개발 등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 탄소시대를 맞아 농림수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역할을 다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목재, 축산분뇨 등 바이오매스의 활성화를 통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고, 산림 가꾸기 확대와 바다 숲 조성으로 탄소흡수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해조류 등 바다자원을 에탄올, 펄프 등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기반구축에도 착수하겠습니다.

해외조림을 확대하고 선진 산림녹화기술 전수를 위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창설을 주도하여 국제적인 위상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녹색성장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의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농림수산식품분야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60%인 9조 6천억원을 금년 상반기에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3만 2천여개의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예산 등을 절감하여 대졸 미취업자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e-서포터즈' 를 설립하고 농어촌 IT도우미, 쇠고기 이력추적업무에 추가로 채용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공직자 여러분 !

독수리는 7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40년이 되었을 때 독수리는 부리와 발톱이 무뎌져 죽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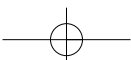
이때, 바위에 가서 발톱을 부러뜨리고 부리를 쪼아 뽑으면 다시 새 부리와 발톱이 자라나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처절한 자기반성과 낡은 것을 버림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고 수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전국의 농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농림수산식품공직자 여러분 !

2009년 새해는 우리에게 재탄생의 해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가진 것을 버리는 용기를 가진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행을 넘어 전화위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과 하나 된 자세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 농어업인들과 농림수산 식품부 공직자들이 국가경제위기극복의 주역이 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 1

新 年 辭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관련 단체 임직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아껴 주시는 국민 여러분!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아 솟아오르는 해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은 庚寅年, 호랑이의 해입니다. 호랑이는 타고난 용맹함과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식품 공직자들 또한 새해에는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2010년은 새로운 10년의 시작입니다. 또한 G20 정상회담 개최 등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어떠한 발전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10



년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농림수산물산업은 사양산업이나 낙후산업으로 멈춰있도록 운명지어진 산업이 아닙니다.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산업의 체질을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과거의 시스템과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2010년은 농어업 혁명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림수산물산업인 여러분!

2010년을 맞아 정부는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1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토대로 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비전 하에 금년에는 다음의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경영혁신으로 비용을 줄이고 농어가 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현재 농어업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 소득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가 소득 정체의 주요 원인인 비용부터 줄여나가야 합니다. 상위 10% 농가는 평균농가에 비해 쌀은 50%, 배는 80%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해 획기적인 소득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 등이 참여하는「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하고, 품목·지역리더가 중심이 되는 「농어업경영혁신단」을 구성하여 개별농가의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어의 소득안정을 위해 현재 9개에 달하는 직접지불제를 통합·확충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공익형직불제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어의 수취가격을 높이겠습니다.

사이버거래소,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선행관측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28개 품목별 대표조직을 중심으로 농어를 조직화하여 품목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농수산물 제값받기와 품질향상에도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조직화는 영세한 농어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조금 조성, 수급조절 기능 등을 대표조직 중심으로 운영하여 해당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종자는 같은 무게의 금값의 2배에 달하며, 세계 바이오 시장은 150조원에 달하는 거대시장입니다.

정부는 2020년 종자수출 2억불의 목표를 가지고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미 설치된 유전자원종합센터를 활성화하고, 2015년까지 민간육종전문단지를 조성하여 민간육종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동식물자원산업도 새로운 분야입니다. 2015년 동식물자원 수출 1억불을 목표로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생물, 기능성물질, 생물농약,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소재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R&D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녹색기술, 생산현장 첨단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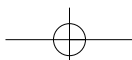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위한 원천기술, 외해양식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입니다.
 현장 맞춤형 R&D 확대와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사업평가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
 하고, 민간 R&D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어족자원 감소, 어장환경 오염, 원양어선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수
 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신수산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연근해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
 산생명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 전문법인 설립,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대규모 바다숲 조성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농수협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사업구조 개편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정부지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을 육성·광역화하고, 소비자유통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수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부실 수협 등의 경영개선도 지
 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농업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은 금년과 내년에 걸쳐 사용을 중지하고, 축산
 항생제도 금년 중에 제도를 개편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를 중단토록 하겠습
 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식품부 산하의 3개 검사·검역기관을 금년 중에 통합
 하여 식품안전기능을 확충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쌀 문제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쌀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여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공용 쌀 수요를 늘리는 한편, 논 작물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콩·조사료 등의 생산을 확대하고, 겨울철 논이나 간척지를 활용한 2모작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쌀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쌀 선물거래를 시범도입하고, 대형 쌀 물류회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생산과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식량자급을 목표치도 재설정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수산물의 수요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은 각각 국가전체의 2.6%, 7.2%이지만 식품산업을 포함하면 10.1%, 16.9%로 대폭 늘어납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식품산업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기회의 산업입니다. 금년 G20 정상회의는 우리 식품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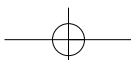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는 막걸리, 천일염 등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고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2월중에 발족한「한식재단」을 구심점으로 하여 한식세계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는 농어촌이 가진 고유한 자원이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농어업 뿐 아니라 체험·관광·교육 등 다양한 산업이 들어와 소득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공동체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경제단위로 묶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까지 마을단위 농어업회사,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공동경영체 20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범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6.5조원, 2014년까지 총 34.5조원을 투융자 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농어촌 영향관리제도」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수익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금년부터 조성되는 농식품 전문 모태펀드가 민간투자 유치의 산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농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어업인, 소비자 등 고객과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농어업인의 고충,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자재 분쟁, 불공정 거래, 정책자금 대출 등 농어업인의 주요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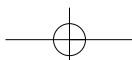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농어업계와 정부가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책 파트너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협의와 자문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의 농림수산식품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마부작침(磨斧作針)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부작침의 자세로 한번 시작된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힘을 모으는 자세입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과 하나 된 자세로 힘차게 출발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8. 30

이 임 사

존경하는 농림어업인과 식품산업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농림수산식품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열정을 다했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직을 떠나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은 참으로 알차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농림수산식품 발전계획을 담은 비전2020을 설정하고, 농수협개혁을 포함해 농어업선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식품산업과 생명산업도 첨단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과학기술지원제도와 금융지원제도 등 농어업을 강하게 만들 인프라도 체계화 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수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농어업인과 농림수산식품 가족들의 노고와 땀의 결실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의 열정으로 마저 채워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임 유정복 장관님의 폭넓은 실무경험과 정치적 경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습니다. 일을 잘하려는 욕심에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엄한 모습을 보이고 가까이 못하지 않았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이 남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풀어



버리고 지나가는 시간에 다 흘러버렸으면 합니다. 또 사랑하는 동료들을 불의의 사고로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일은 두고두고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취임하면서 저는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 강한 농어업인, 강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어업과 농어업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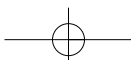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첫째는 자긍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살아남기 위하여’란 책에서 향후 10년은 불안의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누구나 평생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장래에 대한 불안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아탈리는 불안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칙 일곱 가지 중 첫째로 자긍심을 꼽았습니다. 자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긍심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개혁하며, 자신이 현재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쉽 없이 더 나은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열정입니다. 일본 마쓰시타전기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문제를 풀 열쇠는 재능이 아니라 열정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재능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든 이 일을 완성하겠다’는 열의가 있으면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또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 생각지 못한 주위 사람들의 힘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우루과이 축구대표팀의 간판급 공격수였던 다리오 실바는 2006년 차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축구선수에게 다리의 절단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에겐 두 팔이 있다’며 카누 선수로 데뷔해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리오 실바처럼 태풍같은 어려움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약한 비바람에도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다리오 실바와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350만명의 작은 나라임에도 월드컵에서 두 번이나 우승하는 축구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물 가족들도 다리오 실바처럼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농어업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주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동네에서 태어나는 것이 5천겁의 인연이라면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로 만났으니 5천겁은 넘는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서로를 격려하고 울타리가 되어 서로를 성장시키고, 농림수산물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서 떠나지만 앞으로도 농림수산물산업 발전에 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비야씨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 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저를 움직이고 저를 타오르게 했던 열정은 농어민과 농어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저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고 싶은 그 일도 농림수산물산업을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위해 일했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던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시 한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름의 수고

봄의 꽃은
여름을 지나
가을의 열매가 된다

풍요의 결실
가을의 열매는
여름의 피약벌 그리고 땀
여름의 폭풍우 그리고 눈물

가을의 열매는
모든 여름을 품고 있다
강렬했던 피약벌 그리고 땀
치열했던 폭풍우 그리고 눈물

감사합니다.

2010년 8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II

연 설 문



농어업의 미래준비 및 체질개선

농수협 개혁 · 농어업선진화 · 비전 2020 등

Green Korea 운동 발대식 축사 | 2008. 10. 28

존경하는 농어업인 및 내외 귀빈여러분 !

지난 1970년대 우리 농업은 위대한 녹색혁명을 이룩했습니다. 품종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딛고 식량자급의 신기원을 이룩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 · 도시화의 영향으로 생활에 긴요한 녹색공간이 사라지고 있으며, 식품 및 축산물 수요의 증가로 곡물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에 따라 우리 농식품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밀, 청보리 등 식량 · 사료작물과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한다면 곡물자급률과 농가소득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여러분 !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 8월, 제2의 녹색혁명을 주창하였으며, 2012년까



지의 단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을 강조하신바 있
 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제2녹색혁명의 구체적인 방안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발대식을
 갖는 그린코리아운동입니다.
 그동안 방치되었던 도시의 유휴지에 작물을 심어 전 국토를 푸르게 만들자는 범국민
 운동이 바로 그린코리아 운동입니다.

오늘 그린코리아 발대식은 제2녹색혁명을 위한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합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관련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뜻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농업인 및 내외귀빈 여러분!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발대식을 계
 기로 그린코리아 운동이 불길처럼 전국의 모든 도시로 번져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한우의 날 제정식 축사 | 2008. 11. 1

한우인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WTO 출범 등으로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은 2001
 년부터 이미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우농가와 정부가 고급육 생산 노력을 통해 한우고기는 수입쇠고기와의 품질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에는 소고기생산액이 농림업 중 쌀, 돼지고기 다음으로 많은 3조 1천억 원의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동안 한우인 여러분의 노력을 치하 드립니다.

한우인들이 한우의 날을 11월 1일로 지정한 의미는 “한우의 맛이 최고라는 의미”로 최고의 의미를 갖는 ‘1’ 이 세 번 겹치는 날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농가가 스스로 “한우고기의 맛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강한 산업을 만들기 위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속발전 가능한 한우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 정부·학계·생산자단체·관련기관 등으로 “한우산업발전 TF팀”을 구성하여 한우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한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번식률 개선, 송아지폐사율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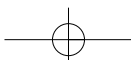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한우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하고, 우량암소 개량과 우량 송아지 공급을 통해 품질고급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우사육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12년까지 37만ha를 조성하여 현재 78%인 조사료 자급율을 90%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농가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한우고기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별, 판매처별 쇠고기 판매가격을 조사·발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에 쇠고기를 고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우농가 및 내외귀빈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붐철의 AI, 그리고 최근의 멜라민 파동을 보면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우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외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우를 포함하여 모든 농식품을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소비자와 식품안전 중심으로 개선하고, 농식품 안전관리 조직도 개편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우의 날”을 계기로 우리 한우산업이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강한 농식품산업의 대표주자로 발전해 나가도록 합시다.

한우농가 및 모든 축산업 종사자의 자발적, 창의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도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노력합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심포지엄 개최사 | 09.01.13

새해 국정의 최우선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고 일어서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필요한 인
재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말로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축의 하나는 바로 농림수산물산업입니다. 실제로 농림수산물
품분야는 산림과 해조류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유일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연간 3천7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국가 전체 온
실가스 배출량의 6.3%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으로 석유나 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
하고 보충해 나갈 바이오매스 자원의 경우 85%를 농림수산물 분야가 제공하고 있
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림수산물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축산업
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농식품산업의 저탄소 환경친
화형 산업화

▲ 녹색 농어촌 공간 조성

▲ 녹색 식생활 문화 형성

▲ 기후변화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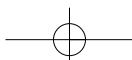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등 녹색성장을 이끌 6대 분야를 선정하
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산업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와의 연계 대책 등도 총망라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습니까만 지금 건너편 신관건물에서는 「Agro Green Job Fair」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따른 청장년층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저희 농림수





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대규모 일자리 채용박람회입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석박사급 168명을 포함, 총 7천2백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과 더불어, 녹색성장이란 근본대책이 효과적으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 우리 경제는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의 심포지움은 농림수산식품 각 분야별로 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분야별 주제발표를 토대로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해 발전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2월말까지 확정할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종합대책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심포지움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협중앙회 제47주년 창립기념일 치사 | 2009. 4. 1

오늘 이 뜻 깊은 날에 수산업 발전과 어가소득 증대에 헌신한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받으시는 고창군수협 김요병 조합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수산인 여러분 그리고 수협 임·직원 여러분!

수협은 지난 1962년 설립된 이래 47년의 세월동안 우리 수산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였습니다.

그 동안 숱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오늘 이처럼 성장한 모습은 우리 농림수산 가족 모두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헌신해 준 수산관련 선배들과 이 자리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작년은 태안지역 유류오염 사고와 유례가 없는 고유가 상황, 그리고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우리 어업인에게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회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면세유 수송비를 지원하였고, 태안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과 기금 모금 등에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업인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산인 및 수협 임·직원 여러분!

안팎의 여건을 볼때, 수협은 물론 우리 수산업 전체의 경영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DDA 협상과 FTA 체결 등 수입개방은 확대될 것이고, 연근해 수산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도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금융구조의 개편도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수산업과 수협이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수산인, 관련업계, 정부가 비장한 각오와 의지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만큼 수협이 어업인 지원과 어촌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협 임직원 여러분은 이 같은 수산업계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여러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협과 함께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협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협이 중심자적 역할을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수협이 진행하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창립 47주년을 계기로 수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축사 | 2009. 6. 18

저는 오늘 농산어촌 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희망찾기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계획 수립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특별법’에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학습권 보장,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05년부터 '09년까지 농산어촌 교육관련 35개 사업에 3조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계획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던 농산어촌 사업을 체계화 하고 농산어촌 교육 부문에서도 투자 확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취임 초에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추진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농어촌 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교육, 복지, 의료 등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준비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서비스기준은 현재 교통, 주거, 응급, 건강관리, 교육, 복지, 정보통신, 문화·여가 등 8개 분야에 대해 30여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만들어지면 2010년부터 시작하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주민이 함께 기준달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검토하여 교과부와 협조하여 교육분야
 에 꼭 필요한 서비스기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각계가 농산어촌 교육문제
 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다숲가꾸기 선포식 행사 인사말씀 | 2009. 7. 10

최근 자원의 위기, 환경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바다 생태계의 복원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광복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에 대한 장기 비전으로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일환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수산분야의 핵심적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으로 선정하고, 금년부터 집중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은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장을 제공하여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만들어 주
 고 최근 다양한 용도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해조류의 생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역, 다시마, 갈피 등 해조류가 식량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지원인 에탄올 원료와 종이의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숲은 온실가스 감축원으로서도 그 기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업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과거 전국의 혈뺀 민등산을 푸르게 만드는 「산림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바다숲 조성사업은 바로 “바다의 산림녹화사업”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숲을 조성함으로써 갯녹음 등으로 황폐해진 연안에 사라진 우리의 수산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펄프와 기능성 신물질 등의 추출원, 온실가스 흡수원 등 해조류의 통합적 활용분야에서도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까지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국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해조류 바이오매스 그린에너지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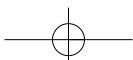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금년에는 먼저 1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총 100ha의 바다숲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또한 해조류 대량생산 및 부산물의 통합 활용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것입니다.

그 역사적 첫발을 내딛는 오늘, 어업인과 내외 귀빈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바다숲 가꾸기 원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갖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어업인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선포식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바다숲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경상북도, 포항시, 그리고 수산과학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제7회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전국회원대회 축사 | 2009. 9. 23

전국의 신지식농업인 여러분!

여러분은 차별화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부는 작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업에서 수산업과 가공 등 모든 식품산업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하여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선도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신지식농업인 여러분!

이제 우리 농림수산식품산업은 4천 8백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이끄는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FTA와 DDA협상 등으로 대외개방이 가속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세계와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인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길러, 국내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도전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선도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지식농업인 대회를 계기로 우리 농업의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의 주체이신 신지식농업인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수준의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을 만드는 리더로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기술과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내실있게 구축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농어업계, 학계 등 민관합동으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하여 농어업 경쟁력, R&D, 삶의 질 등 생활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개편의 경우, 보조금을 단순히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체계를 개선해 비효율과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농어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조합원 권익강화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농협이 더욱 농업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작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농업선진화 작업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개혁효과를 피부로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농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한국신지식농업인회는 신지식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농정의 책임있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신지식농업인회 창립 11주년을 맞은 오늘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전·현직 회장단·임원·신지식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4회 농업인의 날 축하 | 2009. 11. 11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올해는 좋은 기상여건으로 풍년농사를 일구었지만, 쌀값 하락 문제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쌀은 농업소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농업의 대표품목입니다. 정부는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더 생산되는 물량은 따로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한편, 벼 매입자금도 최대한 지원하여 수확기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가격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 농업인들께서 바라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산비 절감과 쌀 가공식품 개발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쌀값 걱정 없이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지난 1년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농협 개혁과 농어업 선진화 등을 통해 강한 농식품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농업계와 정부가 보조금 개편 등 주요 과제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우리술 산업 활성화, 천일염 육성방안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식품분야 전략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추진대책」, 금수강촌 사업 등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이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식품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농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민간 자본투자 확대 등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개최된 「농식품 투자로드쇼」는 녹색성장시대에 농업과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모두 우리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고, 농어업 자본을 착실하게 형성시켜 줄 것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은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현재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라는 기초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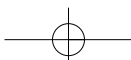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는 농어업인만이 아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농어촌을 전국민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전하고 윤택하게 하면서, 현재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다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흙과 물, 그리고 생명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청정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자원순환형 생산구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녹색 생명산업이 녹색성장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정부차원의 추진정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국제유가와 사료 곡물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농업소득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내년을 비용 절감의 원년으로 삼아 2012년까지 생산비용을 30%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농업인이 주도하는 비용절감 운동본부에서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총체적 비용절감 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 10%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별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과도 계속 점검할 것입니다.

농식품 유통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품목별로 대표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조직이 수급조절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를 통해 유통과 물류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추진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의 결과가 농업인에게 빨리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불, 종자수출 2억불 달성을 위해 식품과 종자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등 신시장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와 기술평가원이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농어업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체계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실습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교육과정과 기관을 선정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해외 농어업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 농수산대학을 세계적인 정예 농수산인력 양성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농승계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현장 농어업인의 고충과 불만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하여 소통창구를 일원화 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국토의 90%에 달하는 농어촌에 18.5%의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농어업인의 삶터, 일터, 쉼터이자 국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과 도시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주거, 응급서비스 등 8개 분야에 대해 국가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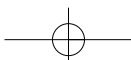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2차 「농산어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농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제와 스토리가 있는 농촌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세계 금융위기, 대형 유통회사의 등장 등 환경변화는 농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주인인 농업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난 6월 조합의 업무범위 확대, 이사회의 기능 강화 등 운영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단계로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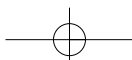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농협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회에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자회사화하고, 경제와 금융분야의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혁이 마무리되면 농협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각각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산지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부문별로 경영성과와 책임이 분명해져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농협개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내년 11월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드높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농식품분야에서는 G-20 회의를 우리 음식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식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거듭나도록 한식문화 홍보와 한식 산업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식품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산지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신뢰를 높여겠습니다. 검역·검사기관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통해 비용은 적게 들면서, 땅은 살아나고 수확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법의 성과를 전 농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과 소비자,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농업계도 현재의 갈등을 극복하고, 단결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한 농





정의 건강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농업인의 날 주제인 ‘꿈에 Green 녹색성장, 함께 Green 농촌사랑’ 이야말로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 번 열네 번째 농업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사 준비에 애쓰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전망 2010」개회식 격려사 | 2010. 1. 21

「농업전망 대회」가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망대회는 매년 초 전국의 농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고, 향후 동향을 전망해 봄으로써 농업인과 정책담당자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우리 농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통해 한국 농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성장산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을 계기로 GDP의 2.6%, 고용의 7.2% 를 차지하던 1차 산업부서에서 식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 GDP의 10.1%, 고용의 16.9%를 담당하는 큰 부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고용창출능력을 가진 식품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농어업을 국부와 고용을 창출하고,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



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시대흐름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과거의 시스템과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새로운 10년의 비전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식품안전과 환경보전을 토대로 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기 비전 하에 금년에는 다음의 정책방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경영혁신으로 비용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영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습니다.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획기적인 소득향상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대표조직이 참여하는「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농가의 경영혁신을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어가 수취가격을 높이겠습니다.
사이버거래소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선행관측제도를 도입하고 관측품목도 확대 하겠습니다.

둘째, 1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새로운 고부가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자산업과 생명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유전자원종합센터를 활성화하고, 민간육종전문단지를 조성하는 등 종자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생물, 기능성물질, 생물농약, 바이오에너지 등 생명소재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수협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사업구조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



고, 산지조직 광역화, 소비자 유통기능 강화 등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부실 수협 등의 경영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최우선 과제입니다.

고독성 농약의 사용과 축산 항생제의 사료첨가를 내년까지 중단하고, 생산·유통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농식품부 산하 검사·검역기관을 금년 중에 통합하여 생산·수입·유통단계를 아우르는 농식품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쌀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공용 쌀 수요를 늘리겠습니다.

아울러 논에 콩·조사료 등의 생산을 확대하는 논작물 다양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쌀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쌀 선물거래를 시범도입하고, 대형 쌀 물류회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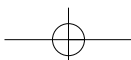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식품산업을 활성화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익산에 조성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하여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막걸리, 천일염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농어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2월중에 발족하는 「한식재단」을 구심점으로 한식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농업회사,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 등 지역공동체를 육성하여 고령화·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범 정부적으로 마련한 「제2차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주요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업계가 명실상부한 정책파트너로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농림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힘을 모으는 자세입니다.

금년 한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의 마음가짐으로 농어업을 혁명하는 해로 만듭시다.

다시 한 번 오늘 대회를 준비하신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오늘 전망대회가 농업인과 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아 큰 방향과 유익한 담론(談論)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정책토론회 축사 | 2010. 2. 4

오늘 농협 개혁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 개혁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고 협동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일선 조합과 중앙회의 이사회 기능 강화와 책임경영 체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일선 조합 간 경쟁시스템이 도입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 투명한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단계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현 중앙회를 크게 연합회, 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3개 부문으로 독립 법인화하는 것입니다.

농협연합회는 주로 비수익사업인 협동조합 고유기능인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지도사업과 산지 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는 사업부문별 전문화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용사업 부문을 농협은행으로, 공제사업 부문을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으로 각각 독립 법인화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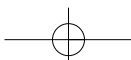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농협은행과 농협 보험회사의 탄생은 농협 차원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협법에 따라 특례가 유지되던 공제사업 부문을 이번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사 전환이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험업 진입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시장 경쟁격화 등을 이유로 염려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편 일선 농협조합장들은 정부 개정법안 대로 그동안의 원수공제사업자의 지위를 버리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업 규율 아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몹시 불안해 한다는 현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농협 공제사업은 지난 40여년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인 농협법에 따라 유지되어 왔습니다.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보험사업의 연속성과 사업 분리 취지를 감안하여 새로운 보험업법 규율에 적용하기 위한 몇 가지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고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회에서 보험산업과 농협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좋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농촌과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농협 개혁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농협 개혁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농협중앙회 제49주년 창립기념일 치사 | 2010. 6. 29

오늘은 농협이 창립된 지 49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한, 농협·축협·인삼협 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통합한 지 10년이 되는 의미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농협인들이 함께 모여 우리 농업발전과 협동조합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 깊은 날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일선 농협 관계자 분들과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농협발전 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새농민상 본상을 받은신 수상자, 수상을 받은 여러 조합에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농협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 활력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부담경감과 영농편의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일손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협의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조합장 여러분!

지난해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하던 쌀값으로 인해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정부의 20만 톤 시장 격리 조치가 시행된 5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적정비축 물량(72만톤)을 초과하는 잉여물량(68만톤)중 '05년산부터 '08년산은 가공용, 주정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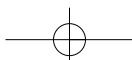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쌀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논에 벼이외 작목을 재배할 경우 벼와의 소득차보전, 생산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 소비량의 10% 정도인 20만여톤을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해 쌀가공시설 지원확대, 쌀소비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r-10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시대흐름의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속도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을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생명산업과 중자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업의 외연을 넓히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지역의 복지·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녹색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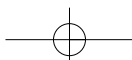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정부는 앞으로 추진기구인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단계별로 낭비요인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우수 경영체를 선발하여 성공사례를 전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 농업을 이야기하면서 농협을 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농협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과 조합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제와 경영시스템을 적기에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둘러싼 사업여건의 급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과 경제 각 부문의 수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산지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원,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농민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농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과 4월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차례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최원병 회장님의 지도력과 임직원 여러분의 성심과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농협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견이 거의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심의되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농협 조직의 안정과 빈틈없는 후속작업 준비를 위해서도 농협법 국회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과 농협 임직원 여러분!

농협이 강해지면 대한민국 농업이 더 강해집니다. 농협이 더 건강해지면 우리 농업의 미래도 더 밝아질 것입니다. 농협이 앞장서서 우리 농업을 지켜내고 우리농업이 세계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조합원, 조합, 중앙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리 농업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창립 100주년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우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농협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농협 창립 49주년과 통합 1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 전략으로 식품산업육성 · 한식세계화 · 술산업 경쟁력 대책 등

「한식 세계화 선포식」기념사 | 2008. 10. 16

오늘 이렇게 식품업계 대표, 농어업인 대표, 소비자 대표, 문화계 인사, 그리고 주한 외교사절분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음식의 세계화를 선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 상품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상품이기도 합니다. 음식문화의 해외진출은 농산물과 식재료의 수출 증대로 이어지며 또한 세계인에게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뚜렷한 사계절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은 풍부한 식재료를 제공하였으며, 반만년의 오랜 역사는 이를 이용한 다양한 조리법이 발달토록 하여 우리 한식은 다채로운 맛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식은 대표적인 건강식으로서 세계 유수의 언론과 학자들이 우리 한식의 우수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강전문 잡지인 헬쓰지는 우리나라의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소개하였으며, 세계적인 석학 엘빈토플러도 우리의 젓갈 등 발효음식을 미래식품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우리 정부는 올해를 한식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세계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식분야 R&D를 확대하겠습니다. 한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가장 필요한 한식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한식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한식당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며,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입니다.

금년 6월28일부터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한식 세계화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한식 세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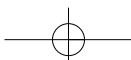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여 안전한 우리 농수산식품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 한 나라를 표현하는 얼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식은 우리나라의 얼굴입니다. 품격있는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한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큰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축사 | 2008. 11. 21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집집마다 또는 고을마다 독창적이고도 특별한 술을 빚어 품격있는 가풍과 문화를 가꾸어 왔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전통주에 자국의 식문화는 물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포함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적극 개발·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포도주” 단일 품목의 해외 수출이 11조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후발국이면서도 “사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주 하나 없이 전통주가 국내 주류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통주를 한식세계화를 선도하는 핵심 콘텐츠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전통있는 360여종의 다양한 술이 생산되어 왔습니다. 또한, 충분한 기술력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식문화와 함께 세계화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전통주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통주산업 발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통주 제조업체가 중심이 되고 학계, 연구계 등 관련 주체 모두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매우 시의 적절한 행사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 많이 제시
되어 앞으로 전통주산업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해걸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
시길 빌겠습니다.

한식 세계화 2009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 | 2009. 4. 7

한식은 매력 있는 음식입니다.

한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와 민족의 숨결과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은 반만년의 전통문화와 함께 우리 민족의 혼과 숨결을 담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한국 음식의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한국 음식은 자연의 음식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음식을 자연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라 생각해 왔습니다.

사람의 몸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일부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은 자연과 어우러져 만들어지고 자연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 맛
을 냅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음식중의 하나가 “나물”입니다.

나물은 생으로 무치거나 살짝 데쳐서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양념을 할 때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 그 계절에 적합한 음식을 먹습니다.
더울 때는 더위를 다스리고, 추울 때는 추위를 이겨내는 음식을 먹습니다.

둘째, 우리 선조들은 음식에서 건강을 찾고 풍류와 멋을 더해 즐겨왔습니다.
옛말에 약식 동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음식과 약은 그 근원이 같다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음식을 만들 때나 상을 차릴 때, 그리고 병을 다스릴 때도 약식동원이란 슬기로운 지혜를 실천해 왔습니다.
세계인의 식품 소비 트렌드는 단순한 먹을거리로서의 음식에서 영양 관리를 위한 음식으로 그리고 지금은 건강과 함께 문화와 멋을 음식과 접목시키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웰빙식이면서도 풍류와 멋이 넘치는 우리 한식은 녹색성장, 녹색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세계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래의 음식 밥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셋째, 한식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김치의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배추김치, 무 김치, 갓 김치, 나막 김치, 나물 김치 등 재료에 의한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같은 배추김치라도 일반 김장김치, 보쌈김치, 물김치, 백김치 등 만드는 방법에 따른 종류도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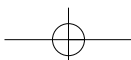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차의 종류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이용해서 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녹차, 등글레차부터 약처럼 마시는 모과차, 인삼차 등과 곡물을 이용한 보리차, 율무차가 있으며, 연꽃차, 국화차 같은 꽃을 이용한 차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꽃의 향기보다 잎의 향기가 좋고, 잎의 향기보다 나무의 향기가 좋다고 하여 나무를 이용한 차도 많습니다.



가시오가피차, 계피나무차, 생강나무차 등이 그 예입니다.
음식과 함께 반주 문화도 발달되어 예전에는 집집마다 고유한 술을 담가 먹기도 하였 습니다.
쌀과 누룩을 발효한 탁주, 탁주를 맑게 우려낸 청주, 탁주를 증류시켜 낸 소주, 약재를 함께 넣은 약주 등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넷째, 한국 음식은 사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함께 아우르는 통합음식입니다. 한 가지 음식을 만들 때에도 많은 식재료가 사용됩니다.
배추김치 하나에도 배추 외에 무우채, 고추, 마늘, 생강, 부추, 각종 젓갈류 등이 어우 러져 통합의 맛을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좋아하는 전의 경우에도 많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전을 만들어 음식의 다양성과 통합의 맛을 내고 있습니다.
한 끼의 밥상에는 밥, 국, 김치, 나물, 전,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이 함께 제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궁합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음식 간에 서로 맛을 높이고 어울리게 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맛의 상생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최대화하려는 미식추구의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국 음식은 그야말로 건강, 영양소에 부족함이 없는 통합음식입니다.

다섯째, 한식은 슬로우푸드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최근 세계인들은 패스트푸드 보다는 식사의 즐거움, 미각, 전통 음식의 보전을 중시 하는 슬로우 푸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음식의 대표적인 슬로우 푸드는 된장 등 장류입니다.
가을에 수확한 콩을 쪄 메주를 띄우고 처마 끝에 달아 차가운 겨울을 납니다.
이른 봄이 되면 된장을 담아 잘 숙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듯 한국 음식에는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김치가 숙성될 때를 기다리고, 장맛은 익을수록 더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은 맛의 깊이가 있는 음식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
정부는 세계인과 함께 한식을 보다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식세계화를 위해 우리의 식품산업을 더욱 과학화하고 체계화해 나가야 하
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농어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포지엄에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
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한식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식 세계화 추진단」출범식 개회사 | 2009. 5. 4

지난해 10월, 정부는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한식 세계화를 국가 차원
의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7일에는 『한식 세계화 2009』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
중한 경험과 지식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간 관계부처 뿐 아니라 한식, 문화 등 관련 전문가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 한식 세계
화를 위한 대책들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는 제 나름의 독특한 맛이 있으며, 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한식은 음식의 한국식 방식이며 한국식 문화입니다.

따라서 이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발상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민간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한식세계화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R&D, 자금지원, 한식 브랜드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창의적인 노력으로 새로운 한식시장 개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지혜를 나누고, 힘을 모은다면, 한식을 세계인의 음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대국이 되어야 합니다. 한식세계화는 문화대국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한식 세계화 추진단』이 앞으로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추진단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항상 관심있게 한식 세계화 과정을 지켜봐주시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식 세계화 추진단 출범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식세계화 추진단 출범회의 개최를 공식 선언합니다.

「2009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개막식 축하 | 2009. 5. 13

세계 식품시장은 세계화의 진전,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제고 그리고 첨단 기술 발



달 등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전 세계 주요 식품기업들은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세계시장의 선점과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정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키고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시행 이후,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이라는 비전을 담은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작년말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부가 식품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식품산업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내외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농수산물 식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한식세계화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최근 「한식세계화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을 통해서도 전 국민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식품과 관련된 모든 역량이 결집되도록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식품산업이야말로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저력과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계일류 식품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09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계 최고의 국제 식품전시회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식품산업진흥 선포식 및 투자유치설명회 인사말씀 | 2009. 11. 27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식품업계가 자발적으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식품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해 경제적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전략상품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는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중이라고들 합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불균형적인 식품의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을 통해 많은 부를 창출해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기 계시는 우리 식품기업 관계자 여러분들은 세계인의 먹을 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동시에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조하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의 최선봉에 서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포식을 계기로 우리 식품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함께 세계 일류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식품시장은 그 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시장입니다. 세계 인구증가와 함께 건강, 웰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세계인의 선호입맛이 변화되면서 식품시장의 규모도, 그 다양성도, 그 가치도 더욱 커져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등으로 동북아 시장이 세계 식품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식품산업이 내수 시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안목과 시야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려고 합니다. 해외에 우리 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려 나감과 동시에 그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항상 강조해 왔던 부분이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입니다.

어떠한 국가, 어떠한 기업들과 상대해서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있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나 기업들이 단독으로 이뤄나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식품산업 발전을 견인할 식품산업진흥법을 시행하였고,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근간인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우리술 산업 활성화, 천일염 육성방안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농식품 투자 로드쇼」를 개최하여 녹색성장시대에 농업과 식품산업이 고부가가치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식품기업이 세계 유수의 식품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 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함축된 핵심 인프라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에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이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식품기업 관계자 분들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식품산업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선포식을 통해 우리 식품산업이 어려운 국내 농어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세계 김치연구소』개소식 축사 | 2010. 3. 10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2001년 Codex 국제규격 채택, 2005년 세계 5대 건강식품 선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김치는 세계가 인정한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김치의 가치에 대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웰빙과 건강의 상징인 발효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치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되고 국내적으로 김치영화 제작 등 김치활성



화 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치산업은 한때 수출액이 1억불을 넘는 호기가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김치 기생충알 파동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식 세계화의 추진, 김치수출 진흥, 김치 원산지 표시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김치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김치가 세계인의 김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계절별·재료별로 달라지는 김치 맛을 발효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균주개발, 저장 및 보존기술의 개발 보급, 신세대와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품질을 다양화하며 간편 포장재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체계구축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탄생되는 세계 김치연구소는 김치와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연구·전시 체험과 Pilot-plant 등의 다목적 기능은 물론, 기업이 하기 힘든 핵심 원천기술개발, 김치유산균을 활용한 치매예방, 항바이러스 등 고부가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김치의 유산균은 치즈 등 유제품에 비해 생존기간이 길고 기능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발효균주로 주목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다국적 기업들도 우리의 우수한 자원을 탐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단순히 김치연구 외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 발효균주를 개발하여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하는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연구원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흔히 김치는 11가지의 재료가 골고루 혼합이 되어야 제 맛을 낸다고 하듯이 정부, 나,



김치연구소만의 노력으로는 김치 세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이신 김치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함께 오케스트라의 지휘에 맞춰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금년 중 발효산업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계 김치연구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계 김치연구소의 발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
에 김치처럼 화합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식재단』 출범기념식 축사 | 2010. 3. 17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해외에 알리면서 농식품 수
출을 확대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작년 5월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한식세계화추진단을 발족하고 추진단
을 중심으로 한식세계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돌이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들이 한식에 대한 사랑으로 한식세계화 사업을 성원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한식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산업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도 서서히 나
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막걸리가 2009년 히트상품 1위에 선정되었고, 매출과 수출
도 5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김치는 세계김치연구소가 발족되어 세계인의 김치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고 있고, 천일염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식 프랜차이즈와 고급한식당의 해외 진출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작년에 해외시장 조사를 시작하였고 금년
 에는 컨설팅, 마케팅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조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식 특성화 고교와 대학을 지정하는 등 지
 속적으로 한식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레스토랑평가잡지인 ‘미슐랭가이드’ 서울판 출간을 준비
 중에 있고, 일본 핫도리 요리학교 등 세계적인 요리학교에 한식강좌 개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우수 해외한식당에 대해서는 한식재단이 중심이 되어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디자인, 스토리텔링,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활용하여 한식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식을 사랑하시는 내외귀빈과 한식관계자 여러분, 우리 한식은 잠재력이 무
 한한 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식재단의 설립으로 앞으
 로 한식세계화사업이 더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믿습니다.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훌륭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식재단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우수한 창의성과 전문성에 뜨거운 열정이
 더해진다면 한식세계화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도 재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치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축사 | 2010. 4. 9

오늘 우리는 김치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동안 김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신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김치는 이제 세계인의 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김치의 우수성은 이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통한 우리 한식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치는 2002년 코텍스에 등록됨과 더불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김치산업도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치 수출이 1억불을 돌파하였고, 김치 제조업체도 기업화 하는 등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4년 예기치 못했던 기생충알 파동 등으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최근 한식 세계화 등과 더불어 우리 김치의 인기가 다시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현재 우리 김치산업은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산업화, 현대화에 국내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김치의 원부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영세업체들의 시설현대화와 품질관리 및 김치 소비촉진 등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김치 세계화를 위해 맛의 표준화와 등급화, 일본의 기무치와의 경합과 일본시장에 집중된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퓨전화, 김치의 유용성분을 활용한 기능성물질 개발 등도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김치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상호협력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김치가 하루빨리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치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추 등 원료의 원활한 공급, 김치 제조업체의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치수출 확대를 위해 김치 수출 선도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품질개선을 지원해 나가고,

동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시장 등 잠재시장 개척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반만년 동안 이룩해 온 우리의 발효문화를 현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10일 이러한 큰 뜻을 가지고 세계 김치연구소가 발족하였습니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통해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한편, 미래 지향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발효균주의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발효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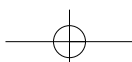
김치수출이 올해 다시금 1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식 세계화 열풍과 더불어 우리 김치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책토론회가 우리 김치의 세계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발효식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어, 우리김치가 새로운 가치를 찾아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국회와 협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와 전시회 개최를 위해 애쓰신 정해걸 의원실과 김치협회 관계자 여러분, 한국 농어민신문사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김치업계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쌀 소비촉진 토론회 축사 | 2010. 4. 12

최근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감소는 국민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가 있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근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은 좋은 식품의 곡물입니다.

밀보다 영양이나 건강에 좋고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 중심의 쌀 소비에 머물러 있으며 그마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쌀 가공식품 분야로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쌀 소비를 확산 시켜야 하는 절박한 입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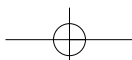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일본은 쌀 생산량의 14%를 가공식품으로 만드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공용 쌀 소비량을 지난해 말 기준 22만톤에서 '12년에는 47만톤 수준으로 늘리는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입밀 200만톤에 의존하는 식문화에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여도 20만톤의 쌀 소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쌀 가공산업 대책 추진으로 기업에서도 관심이 높아져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최근 떡 생산업체인 「완주 떡메마을」을 방문하신 바 있으며, 설날 선물에도 쌀로 만든 떡국과 쌀국수를 제공하는 등 떡 산업과 막걸리 산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쌀 소비 증대를 위해 몸소 홍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최근 들어 식품업체에서는 쌀국수, 쌀고추장 등 다양한 쌀 가공 제품들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다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쌀을 원료로 사용하던 장류(고추장)와 막걸리, 떡볶이 등의 원료가 밀가루에서 쌀로 점차 바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가공제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모화 된 쌀가루 공장이 설립되어 쌀가루 제조 가공비도 밀가루 수준으로 낮아져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가공용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공용 품종 개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 급식부터 밀 제품대신 쌀 가공제품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 급식에서 쌀 국수, 건빵, 쌀 케익의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도 쌀 국수 등 쌀 가공제품의 급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침밥 결식률을 낮추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기업이 동참토록 하는 등 아침밥을 먹는 식습관 개선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쌀 소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쌀 제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가급적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서울떡볶이페스티벌 축사 | 2010. 5. 8

돌이켜 보면 지난해 떡볶이 페스티벌 이후 떡볶이 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



떡볶이용 쌀 소비량이 '08년도의 41천톤에서 '09년도에는 49천톤으로 8천톤이나 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포도 천여개에서 2천2백여 점포로 증가하였음.

뿐만 아니라 떡볶이의 해외 수출도 '08년보다 26%나 증가하여 52만6천불을 수출하였으며, 떡볶이 연구를 통해 신 메뉴를 개발하여 한식세계화와 함께 떡볶이가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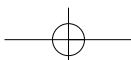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산업계의 활발한 연구와 활동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오늘 100여종이 넘는 다양한 떡볶이를 보면서 성장 잠재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따라서 우리의 음식 떡볶이가 한식 세계화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떡볶이 페스티벌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세계인들이 찾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함.

정부는 앞으로 떡볶이 산업 육성을 위하여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쌀 떡볶이 표시제”를 시행하고 다양한 떡볶이와 신제품의 메뉴개발을 위해 R&D를 지원하겠으며 떡볶이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떡볶이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모쪼록 이번 떡볶이페스티벌이 떡볶이 산업과 쌀가공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랍.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본부 발대식 축사 | 2010. 5. 13

오늘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본부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쌀은 좋은 곡물입니다.

밀보다 영양이나 건강에 좋고 더 유익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오래 동안 지켜온 건강한 우리의 전통 식문화가 잊혀져가고 점차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으로 비만 등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쌀로 국민건강도 지키고,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는「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본부」의 발족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의미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쌀 건강 생활본부가 추진하는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가 변해가는 식문화를 건강식생활로 바꾸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어서 쌀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생활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부도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본부」와 함께 쌀 중심의 건강한 식문화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쌀 소비는 밥 중심의 머물러 있으며 그 마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쌀 가공식품 분야로 소비기반을 넓혀 쌀 소비를 늘릴 생각입니다

일본은 쌀 생산량의 14%를 가공식품으로 만드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공용 쌀 소비량을 지난해 말 기준 22만톤에서 '12년에는 47만톤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매년 수입밀 200만톤에 의존하는 식문화에 10%를 쌀가루로 대체하여도 20만톤의 추가 쌀 소비가 가능합니다.

오늘 발족하는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본부」가 쌀가루 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밀가루 사용량의 10%이상을 쌀가루의 대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식습관 패턴이 점차 밀가루에서 쌀가루로 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의 쌀 가공산업 대책 추진으로 기업들도 쌀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도 떡 생산업체인 「완주 떡메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설날 선물에도 쌀로 만든 떡국과 쌀국수를 제공하는 등 떡 산업과 막걸리 산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몸소 홍보를 실천하십니다.

최근 들어 식품업체는 쌀국수, 쌀고추장 등 다양한 쌀 가공 제품들을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내 놓았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쌀을 원료로 사용하던 장류(고추장)와 막걸리, 떡볶이 등의 원료가 다시 밀가루에서 쌀로 바뀌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가공제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 가공산업이 발전하려면 규모화 된 쌀가루 공장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쌀가루 제조 가공비도 밀가루 수준으로 낮아져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가공용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가공용 품종 개발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 가공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 급식부터 밀 제품대신 쌀 가공제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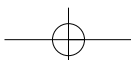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군 급식에서 쌀 국수, 건빵, 쌀 케익의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도 쌀 국수 등 쌀 가공제품의 급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침밥 결식률을 낮추기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에 기업들이 동참토록 하는 등 아침밥을 먹는 식습관 개선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본부」발족으로 국민건강을 위하여 쌀 소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쌀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쌀 소비를 확대 하는데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본부」발대식을 축하합니다. 본부 발족에 애를 쓰신 (사)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김재욱 회장님을 비롯한 각 소비자 단체 회장님, 관련업계 대표님 등 모두에게 따스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식품과학회 국제심포지엄 -간친회(懇親會) 및 학생회원들을 위한 한마당 만찬사 | 2010. 6. 17

먼저,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하는 제77차 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움이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일본·영국·네덜란드·스위스 등에서 참석해 주신 전문가 외에,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 주역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과학 전반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한국식품과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전 세계가 식품산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이 앞 다투어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델란드는 70여개의 대형 식품기업과 20여개의 연구소, 1,000여개의 연관기업이 입주하여 식품클러스터인 “푸드벨리”를 육성했습니다. 푸드벨리에서 국가 전체 GDP의 8%에 달하는 연 653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네슬레사는 2009년 매출 971억달러를 달성했고, 이중 해외 시장을 통한 매출이 98%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미국 시사경제지 포브스(Forbes)誌가 선정한 기업경쟁력 순위에서 972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우리나라 삼성전자(55위)보다 더 높은 36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진사례가 남의 나라이야기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도 식품산업에 대한 인식을 과감히 바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그간 규제중심의 식품행정을 식품산업 진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식품산업의 체질을 강화하



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식품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9년 67조원이던 식품산업의 규모가 2008년 약 120조원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1.8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2008년에는 식품제조업이 18.6%라는 역대 최고의 성장율을 기록하면서 농어업 생산액도 10.6%나 증가했습니다. 과거 4년간('04~'07) 농어업 생산액 평균증가율이 -0.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식품산업과 농어업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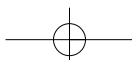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식품을 둘러싼 국내의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양이나 단순 품질위주 관점에서 영양과 건강을 중시하는 단계를 넘어 멋스러움과 스토리까지 생각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영역도 IT·BT·N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명, 의약, 환경, 문화산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품트렌드의 변화속에서 우리 식품산업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식품과학회 회원여러분이 계십니다

지난 3월 농어업·농어촌 비전2020을 통해 우리 식품산업을 글로벌 식품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식품강국 코리아가 되게 하자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2008년 기준 120조원인 식품산업 매출액을 2020년까지 260조원으로 늘리고 매출액 10조원 이상 기업을 5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수출 300억불을 달성하여 세계 10위권의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전북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수출지향형 식품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식품전문산업단지는 150여개의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과 10개 이상의 식품 전문 연구소, 관련 기업이 입주한 명실상부한 아시아최고의 식품시장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식품시장은 인구 15억명의 거대한 시장으로 EU(유럽연합)시장보다 3배가 크고,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백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가 66개나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식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식품과, 의약대체식품 등 최첨단 고부가 가치 핵심 전략품목을 집중 개발 육성하여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로 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식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마케팅, 홍보, 인프라 구축 등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에서 생명융합기술(Bio-convergence)을 활용한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이나 맞춤형 신기능 식품개발 기술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식품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상품화하고, 여기에 품질관리, 시장개척노력이 더해진다면 식품강국 코리아, 글로벌 식품기업의 탄생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세계적인 웰빙 열풍과 함께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가능성이 과학화·산업화될 경우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정부도 식품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현장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지원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존의 농림기술개발사업에서 식품분야 연구를 별도로 분리하여 연구 개발비를 확대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들이 연구개발 과제로 채택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술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R&D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때에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의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국식품과학학회가 앞으로도 더욱 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학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와 국제심포지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과 있게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식품학회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곳에 머무르시는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깊은 전통음식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시고, 한국인의 훈훈한 정을 흠뻑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술 학술 세미나 축사 | 2010. 7. 20

오늘 “우리술 학술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며 특히, 바쁘신 국정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세미나를 주관하여 주신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노영환 회장님, 식품위생신문사 김현용 사장님,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업체와 단체 관계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통주 사랑은 문화다’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최되는 행사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정하여 주신 정해걸 의원님을 모시고, 구체적인 전통주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주산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통주는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과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 조상들의 정성이 담긴 술로 최근에는 건강·웰빙문화에 적합한 세계적인 술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지난해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통주 등 우리술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술』을 비전으로 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 육성』을 목표로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다양성 확대, 한식과 연계한 세계화 추진, 농업·농촌과의 동반 발전 등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부과제들을 뒷받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8월 5일부터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원산지 표시제와 확대 도입되는 술 품질인증제는 전통주산업 발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전통주의 품질표준화와 기능성 연구개발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박차를 가해 전통주산업의 발전토대를 빠른시간 내에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전통주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여, 업계에서 원하는 전통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생명산업 육성 · 종자산업 육성 등

08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전 인사말씀 | 2008. 9. 24

존경하는 농어업인,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최근 우리 농식품 산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공급하는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4,800만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료·사료·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딛고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으로 변신과 도약을 일구어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농식품 산업이 헤쳐나가야 할 당면 과제이자 반드시 이룩해야 할 농정목표입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강한 농식품산업’은 차별화된 과학기술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지구촌 선진국들은 농어업에 새로운 IT·BT 기술을 접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



출하고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농식품산업도 창의적인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첨단기
 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모든 역량을 경주해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 나갈 것입니다.

금년부터 수출 잠재력이 높은 13개 품목에 대해 산·학·연이 같이 참여하는 ‘수출
 연구사업단’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56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바이오기술사업단’ 14개소
 를 선정, 5년에 걸쳐 480억원을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 전체 예산대비 4.1% 수준인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7%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과학기술 육성법’을 제정하여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그 성과가 산업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가 생산현장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유통·가공 등 산업 전반으
 로 확장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지원체계가 되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중에 각계의 전문가
 들로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어업인,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영농과 어로, 식생활에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기
 술을 개발·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 100여 기관·업체가 참여해 전시한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쏟은 땀과 열정의 산물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세계와 경쟁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식품 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5회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 축하 | 2008. 12. 10

오늘 저희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소득과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 안전하고 질 높은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DDA, FTA 등으로 농업분야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농업은 외국산 농산물과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품질과 가치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민의 식품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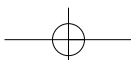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전체 농산물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은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농산물과도 차별화를 통한 경쟁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소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2013년까지 50개소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친환경농업 실천에 적합한 토양을 만들기 위하여 녹비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 물량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운명은 『소비자의 신뢰』가 결정합니다. 생산단계는 물론 유통단계 까지 안전성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증농산물이 둔갑되지 않도록 “인증마크 위조 방지 시스템”도 내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그 동안 친환경농업인과 단체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경기도 광주에 2012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상을 받으신 단체와 공로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친환경농업인 및 소비자,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농식품수출전진대회 기념사 | 2009. 3. 11

전국의 농어업인과 농식품 수출기업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수출목표 53억불을 기어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올해도 계속되고, 수출여건 또한 악화일로



일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력을 다해서 화살을 쏘아 바위를 뚫는 『중석몰축(中石沒鐵)』의 정신을 가진다면 위기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농식품 산업 현장을 두루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기하강,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여 수출 증대를 일궈내신 농어업인과 수출기업 종사자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신 수출탑 수상 기업인들의 사례는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과 활력을 바탕으로 강한 농식품산업”을 육성해 향후 4년내에 농식품 수출 100억불을 기필코 이루어 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딛고 농식품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65%가 바다보다 낮고 습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국 GDP의 23%에 달하는 500억 유로를 세계 각 국에 수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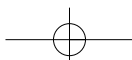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내수시장이 협소한 뉴질랜드 또한 6%에 불과한 농업인구로 자국 GDP의 18%에 해당하는 17억불, 전체 농업생산의 약 85%를 수출하는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우리의 저력과 농식품 수출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오늘의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계 각국이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원화 약세에 따라 가격에 비해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식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잠재시장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수요 증가 또한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식품 수출기업인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회를 십분 살려야 합니다.

보다 품질이 좋고 더 안전한 농식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농가를 조직화하여 규모를 키우고 생산과 유통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 또한 수출 종사자 여러분들과 합심하여 농식품 수출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각종 수출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유리온실단지 등 수출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 있는 수출품이 연중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농수산물보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는 높으면서 검역은 덜 까다로운 식재료를 농식품 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출기업인 여러분 !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체육부와 무역협회가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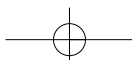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농수산물유통공사, 코트라 등 유관기관도 열심히 도울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같은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면서 사력을 다해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올해 53억불 달성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말 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축사 | 2009. 7. 15

-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나라 말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조진래, 김우남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 말 산업은 축산과 레저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복합 산업이며,
-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
- 서구 선진국은 말 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액의 1% 내지 3%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은 영화산업 보다 말 산업이 국가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함
- 우리는 아직 경마 외에 말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앞으로 승마나 말 체험이 농촌관광과 연계된다면, 말 산업을 통해 축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도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도농 상생의 말 산업 발전 모델을 만들어 낼 것임
- 지금 세계는 경제와 에너지,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직면하였음. 우리도 예외는 아님
- 위기는 기회를 낳기도 함. 어려운 상황을 불평하는 것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임
-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말산업도 경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 증가로 정부가 매출총량 등을 규제하고 나섬에 따라 80여년 경마 역사(1922년) 이래 최대의 위기임
 - 말은 반추동물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고 농촌의 관광자원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정부가 추진 중인 중인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방향에 맞춰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정부가 생활승마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임. 즉, 생활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 산업 발전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임.
 - 우리의 말 산업 전반이 선진국과 같이 건전한 놀이와 레저로 성장할 경우 경마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점차 해소될 것임

-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민관 합동으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 전반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임
- 농어업 경쟁력, R&D, 삶의 질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 보조금은 규모 축소가 아닌 비효율과 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 농어업인들이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어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겠음
- 오늘 토론회가 현재 말 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 진단해야 함
- 이를 토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
- 특히, 이 자리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우리 말 산업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 끝으로 오늘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조진래, 김우남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과 우리 말 산업이 미래의 녹색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 농식품생명과학 심포지엄 축사 | 2010. 6. 17

우리는 과거 전통적 개념의 산업중심 사회에서 생명산업 시대로 발전·변모해가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경제가 바이오경제로 확장되고 있고, 그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생명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해서 국제협력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정부는 그 동안 개도국 농업과 농촌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국전쟁이후 우리나라의 빈곤 극복과 농업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완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 명실공히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 우리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자본을 베풀 수 있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기는 국제농업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기이며, 우리 농식품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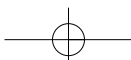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정부는 농림수산분야 국제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 총괄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최근 민간투자 영역인 해외농업개발사업과 정부지원사업인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연계시켜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해외진출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농업협력과 생명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해외농업개발과 국제농업협력 분야 전문가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미래 녹색성장의 열쇠, 해외 농림 자원 개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해외농림수산자원 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의 발전방안 마련에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산업 D.N.A#展 학술행사 (생공연, 농경제학회 합동) 축사 | 2010. 6. 17

생명산업을 주제로 이처럼 성대한 학술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에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생명산업의 뿌리가 바로 농어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농어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태동한 이래 몇 차례의 굵직한 변화를 거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신석기시대에 정착농업의 시작이라는 1차 농업혁명이 일어났고, 윤작법의 확산으로 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온 2차 농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다수확품종의 개발은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3차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농업은 IT·BT·NT·ET 등의 융복합 기술을 동력으로 한 <4차 혁명>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4차 농업혁명>이 생산량을 중요시하던 과거의 농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목도합니다.

비누, 샴푸, 화장품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천연물질에서 나옵니다. 약도 동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것이 고급이 되고, 누에고치에서 인공고막과 인공뼈를 만들어냅니다. 꿀꺽질이 인공피부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석유자원에서 만들어지던 많은 것들이 동물자원, 식물자원, 미생물자원 등의 생명자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4차 농업혁명을 통해 기존의 농어업이 <탈화석 지식산업>으로, 유용한 소재를 생산하고, 타산업의 원료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으로, 먹을 것, 볼 것, 체험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모태산업>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4차 혁명을 맞고 있는 이러한 농어업의 모습이 바로 <생명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물 자원, 미생물자원 등의 생명자원을 발굴<생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유



지)관리하며, 다양한 영역으로 응용하는 것이 바로 <4차농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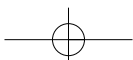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방울도 나지 않는 조건에서 산업화시대에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생명산업시대에 우리의 출발조건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생명자원 보유국이며, 기후적·지리적 특성으로 생물자원의 다양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명자원을 둘러싼 과학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생명자원을 현명하게 관리,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생명산업시대의 강국으로 충분히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개막한 생명산업대전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장으로서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열정을 집결하기 위한 첫 출발입니다. 생명산업 중흥의 원년에 시작되는 지금의 학술행사는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차세대 국부창출원으로서 생명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열정과 지혜를 모아내는 <생명산업의 용광로>입니다. 용광로는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의 학술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공고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이번 생명산업 대전을 계기로 생명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이번 학술행사에서 전문가들의 고견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생명산업 발전>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농식품 안전 · 식생활 개선 등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출범식 축사 | 2009. 12. 17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여 농어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오늘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네트워크 창립을 위하여 애써 주신 황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창립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먹을거리 부족시대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먹고사는 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너무 풍족하여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영양 섭취, 특정 식품 편중 등과 같은 잘못된 식습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질병을 야기하고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의료비 지출은 비만 등 치료에만 4조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매년 버려지는 식량자원이 18조원에 달하는 한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녹색 식생활 운동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때에『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의 출범은 매우 뜻 깊은 것이며, 영향 만만 한 일입니다.

녹색식생활 확산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촉진되어 국내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식생활 문화가 계승·발전되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원 절약을 통해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성원에 힘입어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지난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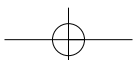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정부는 이 법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교육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생활교육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식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실천 가능한 녹색식생활지침을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환경친화적 식생활을 정착시켜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국민적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푸드마일리지 등에 대한 민간의 연구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국민이 농어촌 현장, 조리 등 다양한 식생활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식품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





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부모, 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결집된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녹색 식생활 확산에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도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신년 인사회」 축사 | 2010. 1. 11

올해 정부는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농림수산식품부도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하는 정책을 통해 ‘더 강한 농식품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국내적으로 국가 전체 부가가치의 10%, 고용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식량이 무기화되고 자원경쟁도 심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비행 2시간 거리 내 15개 거대도시와 15억명 인구라는 거대시장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어 식품산업은 우리



에게 다시없는 기회의 산업입니다.

정부는 동북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3년까지 완공하여 연 4조원의 매출과 22천명의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한식세계화는 정부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한식재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을 우리 한식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참여도 촉진하고 한식업체가 활발히 해외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막걸리가 작년에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막걸리 시장을 현재 3천억원에서 '12년까지 1조원 시장으로 키워 나가고, 전통주, 천일염 및 고추장·된장 등의 전통·발효식품도 산업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 전반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식품 핵심소재와 기자재, 기능성식품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함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계 중심의 분야별 기술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해 10대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공업협회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식품산업 포럼'을 통해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업계가 뚝뚝 뭉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나갑시다.



『천일염 세계화 포럼』 창립총회 인사말씀 | 2010. 2. 18

함께 포럼을 공동발의 해 주신 김학용의원님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의원님, 강석호의원님과 조진래의원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의원님과 변웅전의원님, 신상진의원님,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의원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의원님과 조전혁의원님, 환경노동위원회 이화수의원님,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의원님, 지식경제위원회 김용구 의원님과 정부위원회 현경병의원님, 외교통상위원회 정의화의원님, 주호영 특임장관님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정운천 前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님, 박인구 식품공업협회 회장님, 대한항공 서용원 부사장과 황석영 작가님 등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행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우량 신안 군수님과 김학용의원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허영만 화백께서 ‘식객’ 을 통해 ‘황금은 크지만 욕심의 금이고, 소금은 작지만 생명의 금이다’ 라고 소개하였듯이, 소금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은 인류가 식생활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이 가장 발달되어 있으면서도, 발효에 있어 필수적인 소금에 대해 그 산업적 가치와 영양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는 소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천일염은 그 가치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 2월 소금이 ‘식품’ 으로 인정되고 난 이후에는 각종 언론 등에서도 우리 천일염의 우수성을 다루기 시작하는 등 숨겨진 진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



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천일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살리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소금이라 일컫는 다른 나라 소금들과 비교하여 절대 뒤지지 않고, 오히려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자원인 갯벌과 천일염을 놔두고 해외에서 많은 소금을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입니다.

최근 일고 있는 천일염에 대한 관심과 붐을 토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우리 천일염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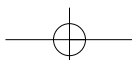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무엇보다 우리나라 갯벌 천일염의 성분이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 가능성은 어떠한 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천일염 산업이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하루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되는 천일염 세계화 포럼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2009년 3월 염관리 업무이관을 계기로 천일염을 명품화하여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시설과 인프라를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이력추적제 도입, 품질검사, 원산지단속 등 수입 소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국내산 소금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유통·판매 등 단계별로 심층조사를 거쳐 천일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천일염의 우수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국산 천일염을 세계의 우수한 명품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금을 소재로 한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 및 외국의 석학들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포럼과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천일염 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열린 포럼'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천일염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활기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인의 입맛과 식탁을 사로잡는 그날까지 참석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지역개발 · 농촌관광 ·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등

새만금 프로젝트 심포지엄 축사 | 2009. 5. 11

새만금 방조제는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을 극복하고 착공 18년 만에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33km에 이르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개통되고, 내부개발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한 새만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농업을 비롯해 산업 · 관광 · 환경, 그리고 물류 기능이 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단지는 자원순환형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인력과 자본, 기술이 집중되고 동아시아 FTA의 허브 기능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구성을 통해 새만금지역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세계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새만금은 하얀 캔버스와 같습니다.

백지 상태의 새만금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첨단 유리온실이 들어설 수도 있고,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려 새만금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미래의 땅,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새만금 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께서는 하얀 캔버스를 채워나갈 밑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새만금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포지엄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 2009 축사 | 2010. 11. 5

새만금사업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 2009」의 개최



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만금사업은 국내·외 간척사상 유례가 없는 33km에 이르는 방조제의 건설과 서울의 2/3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991년 공사를 착수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된 도전과 갈등을 극복하고 20년 만에 방조제공사를 준공하게 되며, 농업용지조성을 시작으로 내부개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사업은 당초에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구상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을 비롯해 산업·관광·신재생에너지·환경, 그리고 물류 기능이 결합된 명품복합도시와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새만금지역은 예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이 활발하게 경제적·문화적 교역을 해 오던 동북아 교역의 중심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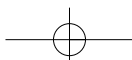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서 경제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중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비행거리 2시간 내에 인구 1000만명 이상 도시가 5개, 500만명 이상 도시가 13개에 이를 정도로 새만금 주위에는 대규모 시장이 많이 있으며, 한국내에서도 경제발전과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심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지역이 조속히 개발되어 국가발전에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이 세계에서 손꼽을 수 있는 「첨단농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화의 파도속에서도 농업의 새로운 도약과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첨단농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 국제포럼을 통해서 새만금의 의미와 녹색성장이라는 목표가 새롭게 확인되고 발전방향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2010 수산인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 2010. 1. 8

사랑하는 수산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수산업 재도약을 목표로 신 수산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에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공급하는 식량 산업입니다.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비용절감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어가소득은 19% 증가했지만 어업경영비는 49% 증가하였습니다. 어업 경영비 절감을 통해 실질 어가소득이 더욱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찬찬히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서 낭비 요인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통 소비량이 많은 어업 활동에 있어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절약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 생산활동에서 에너지 낭비요인들을 찾아내서 2012년까지 최대 30% 비용을 절감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협과 한수연을 비롯한 수산단체와 수산물 대표 조직을 통하여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협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앙회와 일부 부실수협은 공적자금 등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오히려 부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 제출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수협 스스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어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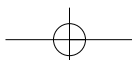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친애하는 수산가족 여러분!

국가의 장래와 현안을 고민해야 하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세종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분산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는 바,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산가족 여러분!

올해 수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수산인 여러분들이 결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고 어업 현장을 뛰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해 수산 관계자들의 증지를 모아 마련한 “신 수산 30대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실천하여 우리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시 도약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신 수산·신 수협을 다짐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磨斧作針이라는 말처럼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운암지구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기공식 격려사 | 2010. 2. 1

존경하는 경북도민과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 오늘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 31개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고 기쁜 날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및 내빈 여러분!

물 맑고 인정많은 충효의 고장인 이곳 예천에서 「운암 저수지 뚝 높이기」사업의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그동안 숏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한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내일처럼 나서서 협조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고 전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인 관계로 수자원 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자원 1,240억 m^3 중에 27%(337억 m^3)만 저수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73%(903억 m^3)는 바다로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UN 세계수자원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확보가 불리하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 2006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낙동강 수계의 물부족량은 2011년 1.2억 m^3 , 2016년 1.4억 m^3 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공식이 열리는 이곳 운암 저수지도 3년에 한번 꼴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어 농업용수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면 현재 저수량보다 3배 이상(266만 m^3)의 물을 가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수계 산간계곡의 31개 저수지에서 맑은 물 1억m³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갈수기 유량을 90%를 증대시켜 수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운암저수지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는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여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추가로 확보한 수자원을 농어촌지역의 생활·공업 및 축산, 원예, 화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될 것 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노후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저수지 뚝을 보강함으로써 재해위험을 막고 홍수피해를 경감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비 영농기에는 남는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소하천의 건천화를 막고, 수생태계 보존 및 수질을 개선하여 지역하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역주민 및 내빈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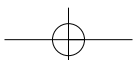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정부는 4대강 유역내 96개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에 2012년까지 총 2.3조원을 투입하여 2.4억m³의 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여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가꿔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4대강 유역밖의 17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4천여억원을 투입하여 뚝 높이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여기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 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영산강 하구뚝 구조개선사업 기공식 격려사 | 2010. 3. 31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 오늘





은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인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 깊고 기쁜 날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오늘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에 희망을 심는 날입니다.

오늘은 호남의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뜻 깊은 날,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산강하구둑은 영산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1978년 착공하였고, 1981년에 완공되어 2억5천만톤의 물을 담수하고 있습니다.

30여년이 흐른 지금, 설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의 증가로 영산호의 홍수위가 약 90cm가 높아졌고 해수면도 약 50cm가 상승하여 상습침수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의 수질이 악화되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구상하고 7~8년간의 세밀한 계획수립과 설계를 거쳐 드디어 오늘 기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재해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기존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수질개선, 생태공간 조성, 자연수로형 어도 설치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항상 홍수피해를 입었던 광주, 나주 지역이 침수피해로부터 해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질이 맑아지고 자연 수로형 어도가 설치되면 실뱀장어, 칠성장어, 송어 등 소하성(溯河性) 어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생태계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을 위한 휴식·조망·관광 등 다기능 공간 조성은 지역관광기반 창출,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께서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시행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영산강 하구둑을 품질과 환경 면에서 세계에서 으뜸가는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인사말씀 | 2010. 4. 27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습니다.
전북의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첫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만금은 20여 년에 걸친 대역사였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를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역사의 현장에 함께해주신 국회의원님, 각계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등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은 1991년 서해의 황량한 갯벌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삽을 뜬 이래 수차례 공사 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극복하고, 깊은 바다에서 태풍과 파도에 맞서 싸웠습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제일 긴 33km의 새만금 방조제를 완성하였습
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새만금방조제를 막아 서울시의 2/3에 달하는 새로운 국토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새만금의 꿈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산업, 레저, 환경, 첨단농업 등이 융합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이자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교역의 중심축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난관을 헤치며 땀과 열정을 바쳐 온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새만금방조제준공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통령님과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농업포럼 텃밭 가꾸기 행사」축사 | 2010. 5. 1

여러분! 21세기는 농업이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을 창출할 것이라 생각함.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성장'이 국가 및 산업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되었고, 생활도 이제는 웰빙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건강을 고려한 '로하스(LOHAS)'를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녹색성장, 로하스의 중심에 농업이 있고, 이러한 농업을 농업인만의 농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발전시켜서 이에 대한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함.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이미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18세기부터 도심 주변의 공유지를 활용하여 도시민이 채소를 재배하고,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하였음. 국내에서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주말농장, 텃밭, 옥상정원 등과 같은 도시생활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농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실천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음.

도시생활농업은 단순한 식량생산 역할 뿐만 아니라, 녹지보전, 여가선용, 환경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 푸른 녹지가 확대되면, 메마른 녹지에 자연스러운 습도조절 효과와 기후온난화로 인한 도심 열섬화(Heat Island) 효과를 줄일 수 있고, 공기순환을 통해 오염된 공기도 정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도심공간의 녹지 확대와 유지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오늘 텃밭 가꾸기 행사를 통해 텃밭에서 얻는 소중한 행복을 느끼시기 바라며, 또한 도시농부들의 모임인 '도시농업포럼' 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이 건강과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성장을 이끌고 도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및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 할 계획입니다.
이번 텃밭 가꾸기 행사가 이러한 실천의 계기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 시·군 시상식 치사 | 2010. 7. 29

오늘 제2회 농어촌산업박람회 개막에 즈음하여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우수 시·군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기울여 주신 흥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농어촌산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훌륭한 전시관을 만들어주신 신현국 문경

시장님을 비롯한 시장·군수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시는 지역전문가, 공무원 여러분과 농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지역 리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최근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식품, 유기농산물 등 건강웰빙식품과 다양한 농어촌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 내재형상품, 환경지향적상품 등의 재발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의 향토자원을 심분 활용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유·무형 향토자원을 2차, 3차 산업의 기초소재로 삼고 문화와 환경, 예술 등과 접목하여 제3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군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전문가 여러분!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정책사업을 통합하고, 지자체에 좀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일련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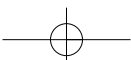
특히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포괄보조사업의 시행은 농어촌지역의 복합산업화와 통합형지역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발전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지역 산업 발전을 주도할 열정 있는 주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창의성과 경영능력, 기술력을 갖춘 농어촌주민과 농어촌기업인, 지역 리더가 지역 발전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생각이 보다 진취적으로 변화하도록 돕고,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학습네트워크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여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모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신선한 자극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예정인 문경의 오미자산업, 영월의 박물관산업 등은 농어촌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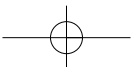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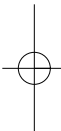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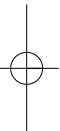
지자체의 발전계획은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고민함으로써, 자기 지역에 적합한 살아있는 발전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와 산업발전을 이루는 우리 농어촌을 만드는데,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이 핵심적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여러 시·군과 농어촌 기업에서 전시·판매하는 전시관을 둘러보시면서 서로서로 배우고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상식을 비롯한 박람회 행사가 우리 농어촌 산업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을 하신 지자체 및 농어촌주민, 지역전문가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III

언론 인터뷰 · 기고



YTN-R 장철의 생생경제 | 2008. 8. 26

강한 농수산업 해법

요즘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기대가 높고 한우농가 정말 여러군데 다양하게 다니고 계시네요

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보는 것이 백번 듣는 것보다 낫구요 또 농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장관처럼 현장에 열심히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농어의 어려운 실태를 직접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조직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그 다음날이죠? 지난 7일인데 현장 방문을 시작 하셨지 않습니까? 첫 방문지로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한우는 쌀과 함께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중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다시 된다 이런데 대해서 한우농가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느 품목보다도 불안감이 크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어떤 현황이나 현장의 움직임이 어떤가 그런 걸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료값은 올라갔는데 한우 가격은 하락하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충부터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먼저 거기를 갔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서 농민들도 상당히 예민해 있는 상황 일텐데 현장 가보셨으니까 잘 아실꺼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위기가?

예, 현장을 가기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관련 단체들로부터 한우농가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깐 물론 그런 걱정에 싸여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많은 농가들이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중장기 적으로 이러 이러한 점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은 우리가 조사료 사용비율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조사료를 많이 좀 사용해서 생산비도 낮추고 고기의 품질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구요 또 중장기 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 한우 산업에 대한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아까 그 한우산업 관련된 그런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한우산업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발전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의해서 긴급사료 구매자금 지원이라든가 송아지 안정제 기준가격 인상 조치 등 이루어 졌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한우를 명품화 해서 좋은 산업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우 전문가들 공무원들 농협 농진청 전부 한우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우산업발전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별로 조직화도 하고 품질 고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한우 시장 점유율이 44%로입니다. 이것을 최저선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1%씩 2%씩이라도 올려서 궁극적으로는 제 꿈입니다만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죽기살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출연하신다고 하셔서 장관님 취임사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아 그 내용 보더라도 정말 실 틀이 없으실만도 한데 강한 농수산업 천명하셨잖습니까? 5년 안에 백억 달러 수출 달성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업상황이 사실 뭐 국내외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특히 지난 한 10여년 동안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정체되 있기도 했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업발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인구가 정체되 있기 때문에 시장자체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세계인구는 현재 63억명 정도인데 2050년에는 90억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곡물을 먹다가 소득이 높아지면 단백질로 즉, 축산물로 옮겨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곡물의 소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기기다 최근에 에탄올이라고 기름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수요도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에탄올 이라하면 바이오 에너지를 말하는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수요가 팽창되고 그다음에 식품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고급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도 확대발전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동남아나 이런쪽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조금 만 더 노력을 하면 우리가 네덜란드 같은 선진농업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고 또 수출 수요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강한 산업으로 그렇게 길러보고자 합니다.

방금 네덜란드 같은 선진 농업국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선진국의 농업 보편은 IT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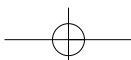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술 이라던지 BT 기술 접목해서 경쟁력 잡아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업적 경영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많은거 같거든요 생산성 향상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장관 취임하셨는데 어떤 정책방향들 갖고 계신 겁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규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문제는 저희들이 각 품목별이나 단체 별로 의견도 듣고 규제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품목별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농업, 농가,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같은 생산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자면 100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똑 같은 농사를 지어도 100개의 농가에서 그 품목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은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서열이 매겨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 10개 농가 그다음에 뒤떨어지는 91등부터 100농가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을 쌀의 경우는 2.6배 그리고 채소류 5~6배정도 되구요 사과 배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농가별로 생산성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덜란드나 이런 선진국의 비교해보면 50~60%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구요. 그런 수단으로는 규모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 직접 수요를 규모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과 경영을 규모화해서 경영의 이익을 그렇게 얻으려 하고요, 또 한가지는 기술입니다. 농업의 품종이나 생산 유통 가공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술이 도입되어서 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충분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농림부라는 이름이 익숙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식품산업 진흥업무까지도 맞게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사실 추진해오던 그런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농업 살리는데 식품이 희망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라고는 합니다만은 정작 농업을 위해서 동력이 되줘야될 식품





업계는 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식품업계 CEO들과도 만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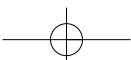
식품산업이 그 동안에 정부에서 어떤 산업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식품업계 대표들을 만나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거의 홀대한 상태였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산업을 하나의 번듯한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발전되서 우리가 수출 산업까지로도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들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식품업계분들도 마찬가지로 식품 관련되는 학자분들도 정말 우리가 한번 잘하면 세계 식품 시장에서 우리가 조선이나 자동차처럼 우리가 또 리드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좋은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있겠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된 각종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먹을거리에 있어서 보릿고개가 넘어야될 큰 산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넘어야될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식품안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번에 쇠고기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소득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 되다 보니깐 식품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식품 안보 문제까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도 상당히 중요하구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 불안감 해소하는 일도 결국엔 못지않은 일이라 봐야될텐데요 취임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첫번째 농정방향으로 내건것도 바로 이 농식품 안전이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식품안전문제를 우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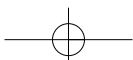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역 체계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보안 대책들을 마련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이 부분을 제도 면에서 운영면에서 체계성있게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농장에서 그야말로 식탁까지 수입되는 식품들은 국경에서 가정까지 철저히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도를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안전문제라고 하는게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도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음식점들 단속 할 때 마다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식당에 식사하러 간 김에 그 사장님께 물어봤는데요 그 곳에는 아직 단속을 나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때마다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상 눈에 들어나지 않은 위반 업체들도 많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고 봐야될까 같은데요.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게 있나요?

예, 지적하신대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양론이 있는거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어떻게 그게 다 원하는대로 모든 식당이 지키고 단속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도 면에서 보편은 어느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대형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구요 소규모 식당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규모 식당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가르치고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하고요, 이 원산지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위반업소... 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라는 표시를 주지 않습니까? 가게 입구 앞에 근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그런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는 표식을 가게 앞에 붙이는건 어떨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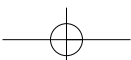
그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한번 이렇게 단속을 한다거나 지도를 하는 사람들이 봤는데 참 잘했더라 이런곳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표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이 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18대 국회 최대의 쟁점 이었던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보면 광우병, SRM 특정 위험 물질에 문제에 대해서는 광우병 발생국가의 위생 상황하고 우리나라 식습 관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7 개월 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수입위생 조건에 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영양은 주지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은 종전의 규칙에 따 르도록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한미간에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에 정부 가 고시를 한 고시내용들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그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계과정을 보면은 장관님께서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많은거를 경험했거든요. 우루과이라운드 한국 칠레 FTA 때부터 우리나라도 참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한미 FTA가 현재 양국의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FTA비준안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3년이다 이런 긴 기간을 놓고 본다면 한미FTA가 아마 서로 비준이 될겁니다. 그 한미FTA는 우리 경제 어떤 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이다 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업에서는 여러가지 불리한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은 우리나라 전 체로 보면 이것이 여러가지로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결정을 한 것이 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FTA가 잘 되서 산업발전에 큰 힘이 될꺼구요. 농업부 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수산업도 그렇 게 큰 피해가 오지 않고 극복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 도록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계획중이시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계획도 세웠구요 또 실제 집행단계에 있는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백아흔여섯개죠? 농림수산사업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히셨거든요. 이번 사업개편의 추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의 가지수가 워낙에 많습니니다. 그래서 품목별 기능별로 세분화 되어있고 이리다 보니깐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깐 중앙에서 계획도 세우고 이번에 300개 가까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전부 재검토해서 통폐합을 광범위하게 하고자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농어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장관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없읍니다만 추석 앞두고 직접 현장 물가 점검 나서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 물가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녀보시니깐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수치상으로 보면은 전반적인 농수축산물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4%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그 속에 가공식품 가격이 한 11%정도 올랐어요. 그것은 고유가 국제 곡물 가격등 원자재가가 올라서 그런 거구요 또 추석이 열흘정도 예년보다 빨라서 성숙품 물가 중에 일부 사과를 비롯한 햇과일이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구요. 또 하나는 돼지고기가 많이 오릅니다. 그것은 쇠고기나 AI 사건을 때문에 수요가 오르다가 칠레산 돼지고기가 다이옥신 관계로 해서 수입이 중지되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농수축산물이 안정이 되지만 이런 품목별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축한 것도 있고, 농 수협 또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계약 재배하는 이런 물량들을 예년 또는 평균보다 2배~3배 풀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2300개 정도 직거래 장터를 열려고 그럽니다. 특히 축산물쪽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작습니다. 국내 소 돼지 비율이 낮는데 이런 기회에 직거래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자 합니다. 시장점유율을 넓혀서 실제로 농가의 소득원이 늘어나는 결과까지도 기대를 하고 추석 후에도 가능하면 상설화 하고 정례화하는 그런 방안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간구해서 결국에는 대형유통 기관이나 백화점등에서 아주 비싸게 팔리는 소매업계에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장관님 존함처럼 우리 농민 어민들이 태평시대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농수산업 보듬어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강한 농수산업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KTV-경제투데이 | 2008.08.26

신임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에게 듣는다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 이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전국 2천3백여 곳에 개설되는 직거래 장터를 점차 상설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오늘은 이 내용을 포함해 최근 농정현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김미정 기자가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우리 농어업의 발전 가능성?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10여년동안 굉장히 우리 농업 시장이 정체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농어민들의 소득도 정체돼 있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이나 식품 이런 쪽의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번째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는 63억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50년이면 90억명이 넘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에탄올이라던가 그런 다른쪽으로 곡물이 활용되기 때문에 곡물시장이 또 소득이 높아짐으로써 고급 식품들을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식품 시장이 무



한히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농업에 대한 능력을 보면 경지면적도 좁고 또 소유면적도 좁습니다
만은 우리가 이뤄낸 성과들을 보면 그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확장되는 농업 농수산물 시장 식품 시장에서우리가 굉장
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성 대책?

먼저 우리 부처에 식품 업무가 같이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식품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최종적으로 식품으로 만들어
서 공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식품산업을 안전한 그리고 품질종
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그 계
획 속에는 저희들이 식품 수출 금액이 지금 한 42억불 정도 됩니다만은 5년 내에 100
억불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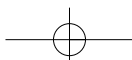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수출도 저희들이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선 농산물 중에서는 파프리카나 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또
식품으로는 인삼이나 김치같은 이러한 것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품목별
로 대응을 잘하고 기술력을 동원해서 품질을 높인다 그러면 식품 쪽에서도 많은 저력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억불 수출을 5년 내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재료 산업이나 식품
제조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 추석 물가동향과 대책, 직거래 활성화 방안?

가공식품들은 11%정도 올랐고 밀값이라던가 국제 대두같은 원자재값들이 올라가서
그러한 영향으로 가공식품들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추석이 열흘 정도 앞당겨 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헛과일들이 아직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과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농수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물량들 일반에서 가지고 있는 품목들 수산물 같은 경우는 건어물이나 이런 정도는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에 세배정도까지 물량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천3백개 정도의 직거래 장터를 활용해서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싸게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를 활용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대개 한 10%내지 40%까지 싸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쇠고기가 우리 국내산이 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한 44%정도 되고 돼지고기가 74%정도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출하하는 가격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이 팔리고 시장이 더 넓어지면 소득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직거래 장터 이런 제도는 이번 추석성수기때 뿐이 아니고 앞으로 추석 이후에도 제도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외국의 유명한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한번 잘 만들어서 운용함으로써 대도시에 있는 소매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보고자 합니다.

중앙일보 | 2009. 2. 4

한식 세계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인터뷰에서 “중앙일보의 ‘한식, 세계를 요리하라’ 시리즈가 나가면서 한식 세계화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커졌다”며 “(한식 세계화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 지금 한식 세계화인가

장태평 장관이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구본을 놓고 한식 세계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 식품 시장은 4조 달러로 자동차(1조6000억 달러)의 두 배 반이다.

[조문규 기자]

“한식 세계화를 통해 명예와 실리를 다 얻을 수 있다.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돈도 벌 수 있다. 태국을 보자. 그 정도 경제력을 가진 나라 중에 태국만큼 알려진 곳이 어디 있나. 음식이 세계에 퍼진 덕이다. 음식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인 효과다. 태국이 2001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음식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식품 수출은 2001년 35억 달러에서 2006년에 60억 달러로 늘었다. 한식에서도 희망을 주는 사례가 있다. 중국



의 ‘대장금’이란 한식당 체인점 8곳이 우리나라에서 매달 고추장 1000만원어치를 수입한다.”

강력히 추진하던 정부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된 경우가 허다하다. 한식 세계화도 그럴 우려가 없을 수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로, 한식 세계화를 밀고 나갈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연구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재단이다. 정부는 기금을 대고, 민간이 운영을 하는 식이다. 기금이 있는 한 재단은 계속 일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이 대대로 한식 세계화의 상징적 인물로 나서 힘을 보태면 파급 효과가 크고, 일을 일관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예로, 올해 10월 열리는 국제 식품 박람회 ‘코리아 푸드 엑스포’에서 김윤옥 여사가 해외 유력 인사들에게 한식의 맛과 우수성을 직접 소개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태국에서는 왕비가 음식 세계화 본부인 ‘키친 오브 더 월드’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식 세계화에는 외교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데.

“잘될 것 같다. 며칠 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전화해서 같이 한식 세계화를 위해 협력해 보자고 하더라. ‘해외에 낸 식당은 문화를 전파하는 장소’라는 내용에 ‘이거다’ 싶었던 것 같다. 대통령의 관심도 크다. 사실 세계김치연구소는 대통령의 아이디어다.”

한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가능성은.

“국제기내식협회(ITCA)는 1998년에 비빔밥을, 2006년에는 비빔 국수를 각각 세계 최고의 기내식으로 선정했다. 미국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99년 공연을 하러 한국에 올 때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에 반해 한국에서도 여러 번 비빔밥을 시켜 먹었다지



않은가. 갈비찜·전에 홀린 외국인도 많다. 갈비찜이 인기를 끌면 한우 수출도 늘어난다. 전채로 쓸 수 있는 것갈도 세계화 대상이다.”

정부는 한식 세계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올 상반기에 문을 열 한식 전문 조리 아카데미에서 한국인·외국인을 모두 받아들여 빼어난 한식 조리사를 키우겠다. 표준 인테리어 양식도 개발해 보급할 생각이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식당에 들어서면 문화적으로 ‘한식당에 왔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외에 한식당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음식 자재 조달과 마케팅 정보도 공급하겠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식 아카데미에서 인력을 양성해 전 세계의 한국 공관에 조리사로 보내는 게 바로 홍보를 위한 것이다. 국제 식품 박람회에서는 음식에 전통 문화 공연을 곁들여 눈·귀·입을 모두 사로잡겠다. 드라마 대장금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면서 한식 붐을 일으켰다. 대장금 같은 한식 소재 문화 콘텐츠 제작을 장려하겠다.”

전통 술을 세계화할 계획은.

“전통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쌀 20kg을 그냥 팔면 2만원인데, 떡을 만들면 평균 12만5000원, 술을 빚으면 23만1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전통주는 우체국을 통해서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제를 풀어 국내 소비시장을 넓히고, 전통주 산업의 규모를 키우겠다. 개별 한식과 궁합이 맞는 전통 술 목록을 개발해 식당에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보다 앞서 음식 세계화에 나선 나라의 정부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



“일본 정부의 ‘표준화’ 전략이다. 일본 내 여러 초밥(스시)을 연구해 맛있게 만드는 표준 지침서를 펴냈다. 만들 때 회를 뜨는 두께와 길이, 쌀의 종류, 심지어 쌀을 씻는 횟수까지 표준을 정해 전 세계 일식당에 공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거의 모든 일식당이 맛있는 초밥을 만들게 됐다. 자연스럽게 일식의 인기가 올랐고, 고급 음식이란 인식이 퍼졌다. 세계김치연구소를 만들어 각국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개발·공급하는 것도 이런 표준화 전략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

권혁주 기자, 사진=조문규 기자

“김치, 나라별 입맛에 맞게 개발할 것”

정부의 한식 세계화 정책을 총괄하는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한식 전문 조리사를 육성해 전 세계 243곳 재외 공관에 보내겠다”고 2일 밝혔다. 본지 ‘한식, 세계를 요리하라’ 기획시리즈(1월 28~30일, 4·5면 참조)와 관련한 인터뷰에서다.

장 장관은 “한식이 고급 음식, 먹고 싶은 ‘꿈의 음식’으로 자리 잡으려면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식에 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통상부와 협력해 한국의 재외 공관들이 유력 인사를 초청해 여는 연회를 한식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식 인력 육성을 위해 상반기 중에 ‘한식 조리 아카데미’를 세우고 재외 공관에 보낼 조리사를 여기서 키울 계획이다. 현재 재외 공관들의 상당수는 현지에서 일반 조리사를 구해 쓰고 있다. 국내 외교 사절들이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주한 외국 공관 조리사들에게 한식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음식과 문화를 함께 알리자는 취지에서 재외 공관에 한국의 맛을 담은 도자기 그릇도 공급할 방침이다.

그는 또 “올해 안에 세계김치연구소를 세워 나라별 입맛에 맞는 김치를 별도로 개발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여기서 미국용 나박김치, 중국용 배추김치 등을 개발하면 식품 회사들이 양산해 현지의 한식당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세계 어느 한식당에 가도 현지인의 입맛도 고려한, 맛있는 김치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음식뿐 아니라 전통 술도 세계에 진출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금을 낮추고, 각종 판매 규제도 완화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통주는 우체국 통신 판매를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아울러 “한식당 고급화를 추진해 2017년까지 ‘미슐랭 가이드’의 스타 등급을 받는 초일류 국내외 한식당 100곳을 만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권혁주 기자

KBS-1R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 2009. 3. 12

뉴질랜드 구상 농업개혁에 대하여

민경욱 : 정부가 농업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뉴질랜드 구상을 바탕으로 한 고강도 농업개혁방안의 윤곽이 이 달 중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 농업개혁이 어떻게 기획되고 있는지 또 진정한 농업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농업 개혁의 중심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태평 장관 : 네, 안녕하세요.

민경욱 : 네, 요즘 장관님 작업복 차림이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일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장태평 장관 : 네, 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차림이 아니고 우리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와 결의를 표현하는 것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좀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경욱 : 네, 그러시군요. 국무회의 때만 입는 것이 아니겠죠?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 평소에도 입고 다니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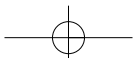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얼마 전에 뉴질랜드 방문해서 이 대통령이 농업개혁을 화두로 내걸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 시점에서 농업개혁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고 또 농업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장태평 장관 : 네, 우선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호주에 가시면서 또 거기하고 FTA를 체결하자고, 시작을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장개방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어려움이 예상 되는 곳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이 이대로 있어도 되겠느냐, 경쟁력을 확실하게 올려놓아야 우리가 개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앉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좀 선진국의 농가처럼 좀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4만 5천 불입니다. 농가 1년 소득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도 잘 살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당겨서 잘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농업개혁이 추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번 좀 어렵고 이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런 때가 더 개혁이나 변화를 하는 데 더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욱 : 네, 각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촌개혁운동가라고 생각하라는 대통령의 주문도 받으셨는데요. 이 달 중에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림이 지금 얼마나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장태평 장관 : 네, 이 그림은 저희들이 그냥 탁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많은 생각들, 지혜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폭 넓게 어떤 동의도 구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우리 개혁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 농업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계 대표들도 좀 모여서 우리가 전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을 해 가려고 하고요. 그런 그림은 한 6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도 좀 바꾸어 나가고요.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소득을 안정시켜주고 또 농어가의 복지대책을 좀 추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 지역발전,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원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제도나 지원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민경욱 : 네, 한국 농업개혁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뉴질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뉴질랜드하고 우리는 농업구조 또 환경 이런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은데 뉴질랜드를 그대로 따라하자는 것은 아니겠죠?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에서 배운다, 이런 점이 무엇이나 하면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농가는 굉장히 잘 산다, 그 잘 사는 것을 배우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자, 그렇게 농업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 단체들이 우리 보조금도 없애주고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바꾸자,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정부와 그 관계되는 농어민들이 함께 어떤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하자, 그런데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농어민과 함께 공동의 마음, 그런 것을 대타협 이런 것을 같이 추진을 하자, 그런 것이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정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배울 점도 있고 뉴질랜드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도 좋은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고 확실하게 좀 평가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욱 : 네, 잠시 전에 장관님께서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농업보조금을 줄여서 경쟁력 강화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겠다, 이랬는데 그게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어민 보호 쪽에서 경쟁력 강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군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장태평 장관 :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호를 해도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약화되는 그런 현재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지원제도들이 있거든요. 예가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픈 환자가 있을 때 그 통증이나 이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약을 쓴다든가 진통제를 쓴다든가 이런 것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 주고 치료를 해 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회성으로 소모적이고 그냥 보호만을 위한 그런 보조금을 우리가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것을 쓰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조금을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같은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 보조금이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금이 효율적으로 써 질 수 있게끔 구조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농업의 어떤 생산물, 생산하는 활동,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농민들의 소득, 농어민들의 복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도시 부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어업이 산업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동차라든가 전자산업 이런 데서 1, 2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 2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콩을 기르든가, 밀을 기르든가 이런 데에서는 1, 2등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돼지를 기르든가 시설 채소를 한다든가 이런 데 시설을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력으로 하는 데는 우리 농어민들이 1, 2등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민경욱 : 네, 지금 6월 달에 본격적인 발표를 하실 테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구조조정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는 있으신가요?

장태평 장관 :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같은 보조금 제도지만 그 제도를 어

면 것은 축소하든지 폐지를 하고 어떤 부분은 강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보조금의 구조를 조정한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업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지원제도들도 내실 있게 좀 꾸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중앙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농어가 중심 또는 지역중심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수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R&D 투자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중앙에서 추진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 수요자가 원하는 R&D 투자, 이런 것도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지 어떤 지금 있는 농가를 어디로 빠지게 하고 또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농어가의 할 일들을 빼앗아하고 이런 식의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민경욱 : 네, 전체.

장태평 장관 :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 그리고 지원 자금 또 여러 가지 R&D나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쪽으로 구조를 바꾸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욱 : 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민감한 부분인 농업보조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농민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기업형 규업농 20만 호 또 법인형 경영체 만개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영세농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 할 만한 요소가 아닌가요?

장태평 장관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세농업인은 걱정하실 게 없도록 저희가 소득안정지원을 하고 농가별로 소득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료, 교육 이런 복지정책도 충분히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어가 중에서 조금 크게 좀 우리도 잘 해 보겠다, 내가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출이 5억 이지만 10억으로, 20억으로 이렇게 크고 싶다고 하는 그런 기업형 농어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농어가들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제도라든가 지원제도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규제도 풀어주고 지원제도도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큰 농어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런 목표를 한 20만 정도 우리가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명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민경욱 : 네, 농업개혁 이야기 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민경욱 : 네,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태평 장관 : 그것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회 협동조합이 농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도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있고 신협도 있고 이런 많은 협동조합에 정부가 인사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 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농협협동조합의 어떤 지배구조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조합장이나 중앙회의 회장한테, 1인한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어떤 권한들을 그 이사회나 이런 데로 좀 옮겨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제도도 좀 더 강화시켜서 균형 있는 그런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문가들이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점에서는 소위와 경영의 분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나 또는 일선 조합들의, 조합장들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해할 만한 그런 것이네요. 그러니까 중앙회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회장의 권한이 조합장들이 해 온 조합들의 대표가 조합장이거든요. 그 조합장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회장의 권한이 이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합장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또 일선 조합으로 보면 조합장들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이 이사회로 넘어가니까 거기에는 조합원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욱 : 네, 중앙회장 직선제, 이런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장태평 장관 : 큰 틀에서는 중앙회장이 이사회라든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역할을 하고요. 대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사회에 넘기는 이런 것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 이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부가 인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민경욱 : 네, 직선제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장태평 장관 : 중앙회장은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로 가고요. 조합장은 직선제를 유지합니다.

민경욱 : 현행은 어떻습니까?

장태평 장관 : 현행은 중앙회장은 직선제입니다. 조합장들이 직선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그게 간선제로 바뀌는군요.

장태평 장관 : 네,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게 됩니다.

민경욱 : 네, 농업개혁의 핵심가운데 하나가 신경분리,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금융과 농산물 판매 사업을 분리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태평 장관 : 이 부분은 지금 농협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민간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농협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연구용역을 지금 쥘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내에 있는 민간 농협개혁위원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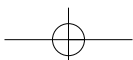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안과 농협중앙회의 안들을 검토를 하면서 관계기관 내지는 관계자들, 전문가, 이런 분들이 상의를 해서 상반기 정도 내에 어떤 기본원칙을 만들어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네, 수협이 신경분리를 했다가 실패를 맛봤었는데 그 전처를 밟지는 않겠죠?

장태평 장관 : 수협이 신경분리를 해서 실패를 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수협을 보면 신용이 경제사업과 분리되어 나와서 신용이 굉장히 건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설하게 이익이 나는 것을 당장에 그 이익금을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수협조합 활동을 하는 데에 쓸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신경분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협도 바꾸어 나가려고 합니다만 경제 사업이나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농어민들을 위해서 지도나 교육이나 또는 산지의 경제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자금통로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욱 : 네,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현행개정안도 벽찬데 신경분리 방안까지 또 더해지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군요. 다음 달 임 시국회에서 이 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장태평 장관 : 네, 아주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제 지금 농협법 개정이 2월 달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회 사정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월에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경분리에 대해서도 생각이 서로 다르고 안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게 법률안과 같이 연계가 될 경우에는 법률안의 어떤 국회통과에 좀 지장을 주는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분리는 그렇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기본 방향이 나오구요. 연말까지 어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그래서 내년 쭉 가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은 미리 대 주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신경분리 준비도 해야 하고요. 또 이렇게 긴급하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





한 대응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경욱 : 네, 신경분리는 6월 달 이후에 되더라도 법안은 미리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 씀이시죠?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 한미 FTA 협상에도 농수산 식품이 많이 걸려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현재, 현재 이 상태로 협상안이 나간다면 처리할 수 없다, 미 대표부가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FTA의 협상비준안 처리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뭘니까?

장태평 장관 : 저희의 입장은 이미 정부의 입장이 이 협상안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한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0가지가 서로 조금씩 주고받고 양보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부를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작성된 안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은 피해분석이나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들이 모두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의 입장은 변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욱 : 네, 되도록 빨리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 정부의 입장 그대로시군요.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MBC-R,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인터뷰 전문 | 2009.7.30

농업 선진화 대책으로 농어업 보조금 개편

김미화 진행 : 민관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일종의 농어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4차 본회의를 통해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 분야의 보조금 개편, 그리고 쌀시장 조기 개방에 관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장태평 장관 : 네, 안녕하세요.

김미화 : 반갑습니다.

장태평 장관 : 예.

김미화 : 요즘도 여전히 양복보다는 작업복으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장태평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 작업 끝날 때까지는요.

김미화 : 아, 그러시군요. 오늘 그 농업선진화 대책으로 농어업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



표하셨습니다.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조금의 종류를 통폐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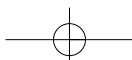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그 농어업 선진화는 이제 우리가 한 54개 항목 그 중에 보조금 개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심적인 거라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조금 종류를 통폐합하는 것보다도 보조금 보면 비효율적으로 되거나 시혜적으로 일반농가에 이렇게 분배하는 식으로 되는 보조금이 있어요. 이런 보조금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축소를 하고 그 대신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또 생산성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보조금은 늘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좀 제한된 재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쓰자,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미화 : 그렇군요. 그 288개였던 보조금을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장태평 장관 : 그래서 지금 보조가 보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 편의대로 이게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복잡하고 기준도 그냥 산만하고 이렇게 때문에 보조를 받는 그런 기준,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또 보조사업이나 기타 사업들도 좀 내용이 분명하게 지원 기준도 분명하게 이렇게 통폐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화 : 그 보조금 총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제 농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생산비 보조나 소득안정 직불금 같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던 보조금은 사실상 크게 줄었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수로 정비 같은 사회간접자본 말고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그런 보조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장태평 장관 : 지금 대개 보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전체가 한 11조가 넘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업 부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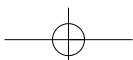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지원되는 그 재원들은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다 농어가에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수지를 만든다, 그러면 저수지 물을 가둬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수로를 만들어준다던가 경지정리 한다던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농민들한테 보조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이번 이런 보조금 개편작업을 통해서 보조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같은 그 보조금 재원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효과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오히려 이렇게 더 많이 증가될 걸로 봅니다.

김미화 :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거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요. 보조금 개편이 지나치게 기업농이나 주업농 육성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장태평 장관 : 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인정을 하지만 혹시 영세농들 지원되는 걸 줄여서 기업농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아주 천만의 말씀이고요. 오히려 아주 큰 기업농에 대해선 보조금을 줄업을 시키거나 없애려고 하고요. 오히려 영세농이나 영세농에서 이제 기업농으로 발전하는 그 농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술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농가에 대해선 그런 기업형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주려고 그러합니다.

김미화 : 그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나 농업품종의 다양성이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태평 장관 : 그런 저기도 우려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농업정책을 지역중심으로 그리고 생산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바꿔 나가려고 그러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선진화위원회가 이렇게 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합의에 이르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주 각 생산자를 비롯한 관계 되는 분들이 대통합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농민단체들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랬거든요. 이런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생산자도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그 수산정책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수산도





자율관리어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번 선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 어려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미화 : 이번에 쌀시장 조기개방에 관한 특별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됐는데요.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김미화 : 2014년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쌀 관세화를 좀 앞당기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태평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 시장이 우리들은 사실은 개방이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면 관세로 해서 자율적으로 수입을 하는 게 아니고 관세를, 그 관세화를 중단을 시켜놓은 다음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금 수입을 하고 있어요. 약 지금 30만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1년에 2만 톤씩 이게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관세화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5년 후에 관세화로 가는 것보다 10만 톤을 덜 수입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번에 놓치면 10만 톤을 의무적으로 더 수입해서 40만 톤을 더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쌀을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공감대를 형성을 해보자,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가 잘 돼서 우리가 관세화로 가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의무수입물량은 줄어들고 이제 관세를 설정해서 그 관세로 쌀을 수입하게 되는 거죠.

김미화 : 예, 농어업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식량안보가 달린 문제인 만큼 장기적으로 찬찬히 농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장태평 장관 :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화 : 진행되는 상황 봐 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장태평 장관 : 네, 감사합니다.

김미화 진행 :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이었습니다.

“이승열의 SBS 전망대” 인터뷰 전문 | 2009.8.18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이승열 진행자 : “쌀 소비를 늘려야 농민들이 산다. 나도 앞으로 쌀라면을 먹을 생각이 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비상대책회의에서 한 말이죠. 그만큼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도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서고 있죠. 이에 따라서 정부는 현재 쌀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해서 쌀 소비를 늘리기로 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쌀 가공식품은 쌀라면과 쌀국수, 쌀고추장, 쌀건빵, 쌀막걸리 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공식품이 나오도록 각종 기술개발과 지원,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등을 강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오늘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모시고, 지난 주 발표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 장관님! 안녕하세요?

장태평 장관 : 네. 안녕하세요?

이승열 : 네. 우선 이번 나온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간략하게나마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태평 장관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쌀 가공식품을 마련하려면 우선 기술



적으로 저희들이 좀 뒤져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무래도 밀가루 제품에 입맛이 맞춰져 있다고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가 쌀 소비를 어느 정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서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시킨다든가, 학교교육, 또 젊은이들에게 쌀 가공식품을 접하게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요. 또 한편 지금 처음 시장을 개척하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미를 싸게 방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승열 : 네. 쌀 가공용 공급을 좀 늘리고, 공급가격도 낮추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생산량의 6%에 불과했던 가공용 쌀 공급을 오는 2012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이승열 : 어떤 내용인지요?

장태평 장관 : 우리가 지금 1년에 약 16만톤 정도가 과잉 생산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공용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 보면 쌀 생산량의 14% 정도를 가공용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까지 생산량의 한 10%정도까지 쓴다면 지금보다는 20만톤 정도 더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과잉 재고가 되는 16만톤~20만톤 정도를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열 : 네. 사정이 이런데도 매년 의무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되는 쌀이 있죠?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이승열 : 쌀 재고 과잉에는 이런 외국 쌀 수입도 무시할 수 없겠는데요. 사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태평 장관 : 지금 현재 우리가 30만 7천톤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쌀은 우리가 쌀 수입을 할 때 관세로 해서 자유롭게 수입을 해야 하는데 관세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할당량을 제공하고 그것만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매년 2만톤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까지 지금 협정이 돼 있는데 그때까지 간다면 우리가 41만톤 정도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외국쌀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재고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승열 : 네. 현재 쌀 재고량이 약 80여 만 톤 정도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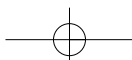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이승열 :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태평 장관 : 지금 82만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걸 작년보다 10여만 톤이 많은 거지만, 재작년에 쌀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고가 적게 있다가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40여만톤 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약 16만톤~20만 톤 정도가 과잉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승열 : 네. 그래서 정부가 재고 쌀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꼽히는 게 쌀 가공식품 개발이죠. 어떤 식품들을 주로 개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장태평 장관 : 우리가 가장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밀가루를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라면이라든가, 국수라든가, 막걸리라든가, 과자류, 빵, 이런 종류들은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밀가루 사용하는 양이 한 210만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쌀가루 전환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쌀은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식품이거든요. 밀에 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국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막걸리 등 주류에 대해서 쌀을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더 고급제품, 건강식품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열 : 네. 우리 쌀이 밀보다는 건강식품,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 식품, 이런 점들을 우리쌀 홍보에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되겠군요?

장태평 장관 : 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밀가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쌀 부족 시대에 여러 가지 장점으로 부각시켰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쌀이 밀가루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배 정도 비싼 그런 이유가 쌀이 좋기 때문이죠.

이승열 : 네. 그렇지만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공용 쌀의 공급 가격이 당장 연내에 30% 정도 내리기로 했습니다만, 이 정도 내려도 밀가루 값보다는 3배 정도 비싼 편이지 않습니까?

장태평 장관 : 네. 밀가루보다는 비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정도를 싸게 한다고 그러면 국제 쌀 가격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쌀 가격을 비교할 때 새로 생산된 우리 쌀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2,3년 된 고미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국제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0%정도 더 낮추기 때문에 외국쌀하고는 충분히 경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하고도 쌀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 정도면 어느정도 처음 시장개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열 : 네.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쌀이 면으로 만들기 어렵다. 쌀가루로 빵을 제분기술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우리 제분기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장태평 장관 : 우리 제분기술이 아직은 쌀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떡을 만드는 수준보다 조금 더 발전된 수준인데, 아주 정교한 가루로 만들어야 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 개 그런 쌀 제분 공장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기 시작 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좀 시간은 걸리리라고 봅니다.

이승열 :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쌀로 술을 빚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우에 가공용 쌀 소비량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술 담그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의 쌀로 만드는 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태평 장관 : 저는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사케의 경우에 쌀을 100%로 사용합니다. 그것도 쌀을 많이 깎아가지고 아주 고급으로 해서 국내쌀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최근에 막걸리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에 우리 품질이 좋은 쌀을 사용하게 되면 막걸리의 품질도 높아지고 아주 좋으리라고 보고요. 막걸리 이외의 다른 술들에도 우리 쌀을 사용했을 때 일본 못지않게 품질 좋은 술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열 : 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 장과께서는 최근에 다른 방법도 내놓으셨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행 WTO 협정체제보다는 지금 바로 시장개방을 통해 관세화로 가면 오히려 그만큼 이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장태평 장관 :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안한 대신에 그럼 1년에 2만톤씩 늘려서 무조건 너네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라.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협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까지 가게 되면 41만 톤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서 재고가 많이 쌓이더라도 국제시장으로부터 그걸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일에 우리가 관세로 간다면 30만 7천톤에서 스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동결



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 하나가 있다고 하면 관세로 했을 때 외국 쌀이 무작정 막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럼 국제가보다 우리가 옛날처럼 5배, 6배 비싼 가격으로 있으면 관세를 2,300% 하더라도 외국 쌀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관세로 하는 것이 어렵지만 지금은 톤당으로 보면 국제가격이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우리는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관세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외국 쌀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부 우리가 관세로 했을 때 쌀이 많이 들어올까 우려하는 분들 때문에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생산자 단체에서 직접 지방을 돌면서 농가를 설득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열 : 네. 장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장태평 장관 : 네. 감사합니다.

이승열 : 지금까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인터뷰 전문 | 2009.9.21

추석물가 안정대책

이규원 앵커 : 추석을 앞두고 생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수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 물가안정대책을 내놓고 주요 농수산물의 공급량을 평소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오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연결해서 추석 물가 관리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장태평 장관 :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 네. 추석 앞두고 물가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 준비하고 계신지요?

장태평 장관 : 지금 이번 추석 근처에 작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들이 충분히 출하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부 축산물하고 수산물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난 9월 10일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해서 추석물가 안정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경우에는 16개 품목을 특별점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급량을 두 세배 정도까지도 더 늘려서 물가안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2300개 넘는 직거래장터도 마련하구요. 또 농.수협에서 특관행사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시중보다 10% 내지 40%쯤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아무튼 추석 성수품 특별히 올라가는 품목들은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규원 : 네. 제대로 물가 잡는데 효과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하면은 또 여러 가지 농식품의 원산지가 둔갑되어서 판매가 늘어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신지요?

장태평 장관 : 네. 이것도 1년 내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9월 14일부터 한 20일 가까이 우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구요. 그 다음에 유통판매 단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명예감시원이 한 2만 5천명 정도를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관리인 1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명예감시원까지 같이 합세를 해서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캠페인도 좀 잘 하겠습니다.

이규원 : 최근에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농축수산물 위주의 소액 선물 돌리기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썄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명절 선물 교환하라는 것은 좀 이례적일 수 있거든요. 내수진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장태평 장관 : 저희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어떤 큰 기업 그룹, 명칭은 말씀할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쪽에도 우리가 부탁을 했더니 전체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로 한번 선물을 해보자 이런 특별한 캠페인도 한번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개 그런 큰 기업들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지금 동참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구요. 지금 공공투자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우리 농축 수산물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올해 지금 어느 정도 작황이 좋은 이런 농산물이 수급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신도 보내구요. 우수 농식품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회나 이런 데에 나가서 금상, 대상, 1등상 받은 그런 좋은 농식품들은 모아서 소개하는 카탈로그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규원 : 그렇군요. 잘하면은 win-win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액이라면 아무래도 저가 중심의 농산물 쪽에서는 반길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대로 추석 선물 준비해야 되는 공공기관들로서는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장태평 장관 : 그래서 그런 것은요,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또 예산을 절감해서 어떤 좀 취약계층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아끼고 또 절약한 것을 이런 우리 농축산물 소비하는데 같이 참여해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규원 : 알겠습니다. 농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농식품 사이버 거래소가 설립이 됐는데요. 아직 품목이 아주 많지는 않던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입니까?

장태평 장관 : 네. 지금 금년 1월 달에 우리 농수산물 유통공사 내에다가 사이버 거래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인데요.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630조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수산 분야에서도 지금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존 거래 관행 때문에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발전시키면 이쪽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도 지금 가능한 품목들을 뽑아서요, 저희 선택과 집중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한 2011년 쯤 되면 100개 품목 정도는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규원 : 전자상거래 규모가 630조 라고 하지만은 특히나 농식품의 경우는 표준화도 어렵고 또 실물 보기 전에는 품질 보증이 어렵고 여러 가지 시세파악하기도 어렵고 이런 이유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이버 거래소 통해서 농산물 가격하고 농가소득 높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장태평 장관 : 그래서 제도 마련을 좀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1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제도보완을 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데



로 그런 품질의 신뢰 확보 문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보상이나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업체 표준화 이런 것들을 법제화를 통해서 공신력과 신뢰성을 좀 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저희들이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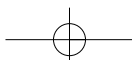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이규원 : 네. 올해 날씨가 좋아서 쌀 농사도 풍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또 쌀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는까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재고도 많은데 올해 생산분까지 이렇게 늘면서 쌀값 걱정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요?

장태평 장관 : 이제 두 가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하나는 쌀이 많이 생산되면 파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쌀값 문제는 우리 쌀소득보전직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목표 가격이다 그래서 17만 83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들이 가격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구요. 또 사들이는 문제도 비축물량이라든가 농협에서 사들이는데요. 그런 사들이는 물량들을 생산되는 양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용을 해서 충분히 출하되는 물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풍년이 되도록 모두 기도하셔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 생산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들이실 생각이신지요?

장태평 장관 : 지금 대체 작년에도 그랬는데 전체 생산량의 한 50% 정도를 사들이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도 50% 이상 사들이실 수 있도록 정부 자금도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 네. 재고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내셨던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먹을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소비자들의 입맛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가공식품들이 어느 정도 소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태평 장관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쌀이 1년에 중장기적 전망을 하면은 한 16만톤 정도가 지금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 우리가 전체 소비하는 쌀이 500만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3% 내지 4% 정도가 더 지금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밀가루 먹는 게 한 220~230만톤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10% 정도만 쌀로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를 먹는 것 중에 의외로 예를 들자면 고추장이라든가 술, 막걸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요, 그러니까 쌀라면 쌀국수나 라면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고추장이다, 술이다 이런 것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쌀 소비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지금 밀 사용하는 것의 10% 정도 충분히 전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빵이라든가 과자에 이르기까지 쌀을 소비하는 가공해서 소비하는 쪽을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규원 : 확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혜택도 주어지게 됩니까?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가령 예를 들자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05년도 쌀을 우리가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쌀은 아주 싸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규원 : 얼마나 싸게 나오죠?

장태평 장관 : 그게 원래는 우리가 이제 1400원 정도 내던건데, 이것을 kg당이요, 950원 정도까지 낮추어서...



이규원 : 한 30%, 40%정도 싸게 공급을 하는 거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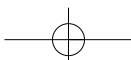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40% 정도 싸네요.

이규원 : 글썄,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과연 쌀값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장태평 장관 : 그래서 이게 단기처방은 아니구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10만톤 우리가 아까 82만톤이 재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 어떤 분들은 82만톤이 남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남는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령 석유다 그러면 석유 비축을 1년에 우리 쓸 것의 일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쌀도 한 72만톤 정도를 우리가 늘 비축을 합니다. 그 정도가 있어야 비상시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만톤 정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 10만톤을 정부가 손해가 날 경우에 지원하겠다 해서 농협이 별도로 사들여서 그건 시장에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해에 생산되는 것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급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규원 : 글썄요, 수급 조절 차원에서 일 수도 있겠고 또 인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북 식량 지원 좀 범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께서.

장태평 장관 :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쌀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정책 결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가 우리 쌀이 없으면 밖에서 사서라도 식량을 북한에 줘야지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는 우리 별도 남 북한 간에 관계문제가 아니고 쌀 수급 자체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16만톤 내지 20만톤 정도가 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 과거에 우리가 3,40만톤에 이르기까지 북한 지원을 하면서 쉽게 쌀 수급 문





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쌀을 소비 확대하는 이런 문제에 등한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의 수급문제는 그것은 별도로 우리들이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북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법제화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어긋나는 거죠.

이규원 : 그렇군요. 쌀 재고문제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또 쌀 조기관세화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정관계로 내년에 쌀 조기관세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가 있더라구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장태평 장관 : 약간 지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쌀 이게 어쨌든 관세화로 가급적 빠르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과 관련된 어떤 농협인 대표들이 있고 또 쌀만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또 교수들, 전문가들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인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자율적으로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쌀을 관세화로 갈 경우에 불안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 일을 했을 때 더 큰 그런 문제들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어떤 쌀 생산자는 물론이고 우리 농업인들 국민들이 모두 함께 어떤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또 내년에 논의를 해서 결론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 네. 어쨌든 정부로서는 농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전 국민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조기 관세화를 서두르지는 않겠다 라는 입장은 분명한 겁니까?

장태평 장관 : 서두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하지만은요, 저희들이 계속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의 장을 자꾸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 시기를 못 박지는 않겠어요?

장태평 장관 : 네네.

이규원 : 네.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쇠고기 수입 문제로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당했는데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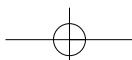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네. 지금 패널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패널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캐나다와 또 다른 참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제기하는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논리도 마련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 자료도 수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당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 당당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 우리가 패소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장태평 장관 : 그런 분석도 가능한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거에 제기됐던 경우 이렇게 제소를 당한 쪽에서 모두 졌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캐나다와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WTO의 분쟁으로 제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하구요. 또 관계 여러 국가나 전문가들 동원해서 저희들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원 : 글썄, 이참에 캐나다와의 분쟁도 해결하기 위해서요,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태평 장관 :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웃 일본이나 대만이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또 이제 캐나다의 WTO제소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하고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장태평 장관 : 저희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에 반드시 그것을 해야만 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이규원 :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나?

장태평 장관 : 네. 해야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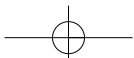
이규원 : 알겠습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입쇠고기 생산 유통까지 모든 단계를 다 감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관련업계의 반응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장태평 장관 :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입쇠고기 유통업자들이 거래 내역을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기록관리 하도록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래단계별로 어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감시 감독이 가능할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술진들이 시범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 내년 말쯤 될 것 같아요.

이규원 : 내년 말이요? 한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치신다?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 시스템 구축해서 이제 내년 초 중반까지 이렇게 시범운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관님.?





장태평 장관 : 네. 감사합니다.

이규원 : 네. 지금까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추석물가 관리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 2009. 9. 30

쌀 수매 매입자금 지원금리 무이자로

손석희 : 햅쌀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0%정도 떨어졌습니다. 재고쌀도 현재 80kg들이 한 가마니에 14만 5천 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하면 역시 한 9%정도 떨어진 가격인 데요. 소비량은 줄고 재고량은 늘고 또 게다가 풍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쌀값 폭락을 우려하는 농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의표시로 아예 논을 갈아엎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하고 여당이 쌀값 대책을 내놓은 지 열하루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또 내놨습니다. 쌀 매입량을 작년에 247만 톤보다 23만 톤을 늘린다, 그러니까 270만 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남아도는 쌀, 즉 재고쌀 28만 톤을 더 사들여가지고 비축해두고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도 무이자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가능한 대책은 다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연결했습니다. 장태평 장관님 나와 계시죠?

장태평 장관 :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 : 예, 안녕하십니까? 쌀 매입량을 늘리고 벼 매입자금 지원금리도 현재 최대 2% 인 것을 무이자로 돌리기로 하고 또 쌀도 28만 톤을 사들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한 3백만 톤 가까운 쌀을 사들이는 셈이 되는데요. 제일 중점으로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장태평 장관 : 이번에 중점을 두는 건 시장에서 홍수출하기에 충분히 농민들의 쌀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확기의 매입량을 작년보다 이번에 더 물량이 생산량은 적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매입량을 23만 톤 더 늘려서 270만 톤을 매입을 하고요. 또 우리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 중에서 매번 방출을 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이 물량에서도 18만 톤을 공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비축해서 격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미 중에서 10만 톤을 주정용으로 특별처분을 해서 정부 재고량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산이 평년작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것만큼 시장에서 매입해서 별도로 격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희 : 수탁판매를 늘리는 그런 방안도 나왔는데요. 이걸 아시는 것처럼 쌀값의 한 7, 80% 정도를 우선 받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맡긴 뒤에 나중에 쌀이 팔리면 정산하는 판매방식,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미리 맡긴 다음에 나중에 다 받는다 하더라도 액수로 치자면 얼마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흡수여력이 과연 높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장태평 장관 : 저는 이런 경우에는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불안심리가 좀 있어서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갔을 때의 가격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물량이 나오더라도 수탁매입을 하는 물량을 주는 농민들을 다음에 올라갈 가격으로 받는다, 이런 안심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손석희 : 문제는 올라가야 그 예측이 맞는 건데요.

장태평 장관 :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불안심리 때문에 적정수준보다는 많이 내려가 있어요.



손석희 : 지금 쌀값 떨어지는 것의 일정부분이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이 틀림없다, 이
렇게 보시는 모양이군요?

장태평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손석희 :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수확량이 465만 톤 정도입니다.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대풍이었는데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그런 수확량을
잡고 계신데 이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장태평 장관 : 약간 늘어나지만 저희들이 예측한 데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리라고 보
니다. 그래서 270만 톤을 매입하면 충분히 어떤 홍수출하기에 대응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 혹시 수확이 더 늘어날 경우에 재고가 더 쌓이게 될 텐데 추가로 지원을 확대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장태평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적정물량 이상 생산돼서 나
오는 물량은 모두 매입을 하겠습니다.

손석희 : 예산은 문제가 없지요?

장태평 장관 :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수탁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
고요. 신곡이 물량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손석희 : 아무튼 수확량과 소비량, 소비량은 지금 올해 한 437만 톤 정도를 보시는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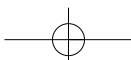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수확량과 소비량이 차이나는 부분은 정부가 가능한 한 다 사들이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장태평 장관 : 예, 일단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지금 쌀값이 14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kg들이 한 가마예요. 그런데 이게 밥 한공기의 가격으로 따지면 200원이 안 나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하고 라면 값보다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장인 것 같습니다. 가마당 한 19만 원 내지 21만 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긴데요.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목표액이 1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는 한 2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인데 그러니까 나머지 한 2, 3만 원 정도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되는 걸까요?

장태평 장관 : 그런데 가격은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비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걸 다 보장하라, 이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에 대한 생각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통계청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작년도에 9만 4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19만 원 내지 21만 원이다 그러는데 그 내역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현실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벌인다는 것보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해서 운용하다 보면 지금도 생산량이 많아서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가격은 더 떨어지고요. 그렇게 돼서 이중고가제도, 옛날과 같이. 이렇게 운영이 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장도 교란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어떤 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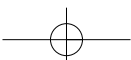
선에서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고요. 다만 지금처럼 적정가격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은 저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적정한 선에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희 :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재고량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많이 생산해도 문제고 또 소비량이 줄어도 문제고요. 그런데 WTO협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해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올해 30만 8천 톤이 들어왔고 2014년까지는 40만 9천 톤을 들여오고요. 매년. 그 양이 영구적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손석희 : 재고를 뭔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이것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저희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쌀생산조정제, 이걸데 이걸 다시 도입할 수 없는가, 이걸 다시 말해서 논에다가 벼를 심는 대신 사료작물 또 비상업적 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정부가 쌀값만큼 보전한다, 이런 방법인데요. 물론 이것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방법을 다시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장태평 장관 : 그런 방법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해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비하는 것에 5%이상, 10%이상 이렇게 많이 생산이 더 되는 게 아닙니다. 약 3%정도 생산이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가령 기상조건이 나쁘다든가 이래서 생산량이 2, 3%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기반 자체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년 조금씩 생산되는 것을 우리가 소비확대를 통해가지고 탄탄한 어떤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 같은 데서는 생산량의 한 14% 정도를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6%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쌀 가공 어떤





산업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손석희 : 그러면 쌀 소비를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2012년까지 지금 6% 수준의 가공시장비중을 10%로 확대한다는 건데요. 어디서 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태평 장관 : 그래서 우리가 쌀라면, 쌀국수, 이런 것도 하지만 주류에도 많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쌀막걸리 인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청주라든가 심지어 맥주도 상당부분 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는 아주 고부가가치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심지어는 고추장 같은 경우도 밀가루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떡볶이 같은 경우도 밀가루를 쓰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고추장, 떡국 이런 부분에도 밀가루 쓰던 걸 대체할 수가 있죠. 우리가 1년에 밀가루 쓰는 게 230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1년에 쌀을 16만 톤 정도만 더 소비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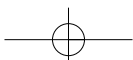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손석희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식습관하고 관련 있는 문제라서,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손석희 : 갑자기 바뀌긴 좀 어려울 텐데요.

장태평 장관 :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식생활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억제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술에 사용한다든가 국수에 사용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밀가루의 10%정도는 충분히 전환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 그게 어떤 규정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태평 장관 : 그러니까 우리가 쌀 부족 시대에 가령 술을 만든다, 국수를 만든다, 쌀을 가공하는 이런 걸 상당히 억제했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막걸리, 우리 좋아하는 막걸리 같은 것도 주로 밀을 사용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쌀막걸리 같은 게 요즘 인기를 끌고 쌀고추장, 이런 것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조금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2, 3년 내에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희 : 예, 그리고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긴데요.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른 부처 얘기가긴 합니다. 부처 소관사항이, 농림부 소관사항이 아닐 수 있는데 다만 의견 개진은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여태까지는 해마다 10만 톤, 많게는 50만 톤 정도 지원이 돼서 쌀이 소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장태평 장관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대북지원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우리 쌀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시장, 어떤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쌀을 가공하는 그래서 소비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북지원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북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쌀이 설사 부족하면 사서라도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북지원하는 문제와 국내 쌀 소비확대 촉진하는 이런 정책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탄탄한 국내 소비시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대북지원보다는 국내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태평 장관 : 예, 그렇습니다.



손석희 : 이걸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장태평 장관 : 이걸 우리가 정책결정, 대북지원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손석희 : 예, 알겠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평 장관 : 감사합니다.

문화일보 | 2009. 10. 17

‘1사1촌’ 세상을 바꾼다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로”



“한식이라는 ‘코리안 전도사’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 한국의 요리, 우리 그릇과 농수산물은 물론 문화 까지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6일 “한 나라의 고유한 음식문화는 대표적인 국가 이미지 상품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상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한식 세계화 선포식’이 열

린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장 장관을 단독으로 만나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유와 실현 전략 등에 대해 들어봤다. 농식품부는 이날 선포식 자리에서 한식당 수를 2007년 1만개에서 2017년 4만개로, 농식품 관련 수출은 2007년 37억달러에서 2012년 10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장 장관은 “식품산업 발전에 조속히 뛰어들어야 한다”며 “지금 이 한식 세계화에 집중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농식품 수출을 올해 45억달러, 2012년 100억달러로 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나서 1주일 이 지난 뒤에 일본에서도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도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거예요.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한식 세계화 작업을 펼쳐나간다면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 장관의 표정에서 비장한 각오가 읽혔다.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했다. 장 장관은 손바닥을 펼쳐보이며 5가지 전략을 설명해 나갔다. 한식 표준화 작업과 같은 인프라 구축, 한식 연구개발(R&D) 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우리 식문화 홍보, 기업지원 및 투자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장 장관은 특히 “생산과 가공, 운송 등 모든 것이 가능한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돈벌이로서 기업인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마침 장 장관과의 인터뷰 자리에 함께 했던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세요”라고 묻더니 “식품 관련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거들었다.

장 장관은 식품산업이 성장하면서 농수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수산물도 양식기술이 좋아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베트남이 미국에 메기를 40억달러까지 수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수입규제 탓에 10억달러로 줄긴 했지만 얼마나 규모가 큼니까.”

그는 “광어나 전복 등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희감으로만 쓰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스테이크 등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식품안전 문제가 필수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을 꺼내자, 장관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당연하지요. 처음부터 단단하게 안전관리를 해나갈 것”이라며 “농식품부 업무의 절반 이상을 안전관리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업무를 할 때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안전 문제를 확실히 책임져야 한식 세계화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

코리아타임즈 | 2009. 10. 24

Markt opening Pressures farmers to moderniz

Minister Chang Initiates Food Globalization Drive



Agriculture Minister Chang Tae-pyong talks about his blueprint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during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Tuesday at his office in the Government Complex in Gwacheon, Gyeonggi Province, on the



occasion of the newspaper's 58th anniversary, which falls on Nov. 1. / Korea Times

Photo by Shim Hyun-chul



By Kim Hyun-cheol

Staff Reporter

Hallyu has endeared Korean pop music, drama and actors to the people of the Asia and some other countries. Now it is Korean food (hansik)'s turn to go global. Chang Tae-pyong,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 leading the culinary globalization initiative.

“It all comes down to standardization,” Chang said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Tuesday at his office in Gwacheon, Gyeonggi Province. He said that the standardization is aimed at reducing differences in tastes of a variety of Korean foods so foreigners will be able to enjoy high-quality Korean food without surprises at whichever restaurants they go to in the same manner that Chinese, Thai and Japanese cuisine have conquered the taste buds of the world.

As the first step, Chang said that a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introduced for Korean restaurants worldwide that meet a set of requirements. He added, however, that the standardization is not to make Korean food taste the same. “The soul of food lies in the hands of cooks so their originality, of course, will be respected,” he said.

The government plans to make public a blueprint for a Korean food globalization initiative, which will also include ways of fostering quality cooks specializing in Korean dishes. If the minister's plan is put into practice, it won't be long before Koreans see more of such scenes like in an episode of “Sex and the City,” a popular



American television drama, where the main characters went to a fancy Korean restaurant in New York.

The minister expects the initiative to triple food exports to around \$10 billion in a matter of years.

“In the long term,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and cuisine is part of an export promotion campaign for Korean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he said.

“Through aggressive investment in food processing, the quality of Korean foods will be upgraded to a certain degree.” He hopes that the country will become a “food hub” in Asia.

Promising signs are already appearing.

The Korea Food Expo 2008 (KFE), which closed Sunday in Seoul, attracted 270,000 people. In addition, export negotiations made during the exhibition topped \$22 million. The weeklong event fully served its purpose to offer producers and consumers opportunities to build mutual trust and gain a vision for the food industry as a promising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Chang said.

The minister put together a variety of food-related festivals into one, big expo-style event.

During the exposition, visitors were given books explaining how to cook or prepare 300 Korean dishes.



Minister Seeks to Turn Farming Into Export Industry

A farmer lifts a bundle of rice he has just harvested from his paddy in Icheon, Gyeonggi Province, in this undated photo. Chang Tae-pyong,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ays raising productivity is important if Korean farm producers are to be competitive in global markets.

/ Korea Times File

“Each one of farm producers is a CEO. That means he has to make his own decisions about production and sales.”

By Kim Hyun-cheol



Staff Reporter

Soon after taking office in August,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inister Chang Tae-pyong presented a new goal — to achieve \$10 billion in exports of farm and marine products by 2012, more than doubling last year's \$4.2 billion.

“Many say it doesn't seem plausible, but I think it's possible,” the minister said. “Of the exports so far this year, unprocessed farm products topped \$600 million, unprocessed marine products \$1.2 billion and processed food \$1.9 billion. And the key lies in processed food,” he said in an exclusive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Tuesday at his office in Gwacheon, Gyeonggi Provice, on the occasion of the 58th anniversary of the daily, which falls on Nov. 1.

“It is all about technology. It is the role of technology to make better ingredients, or even additives, for food. With better technology, it will also be possible to export processed materials made of imported ingredients. It is all about how to add value, and how to efficiently do it,” Chang said.

Exporting is important because it creates more demand for farm and marine products, helping farmers and fishermen to earn more income, according to the minister.

“For example, this year saw a bumper harvest of cucumber. However, it only ended up halving its price, forcing farmers to scrap a lot of their harvest,” Chang said.

Korean farmers need to export more, he said. “Cucumb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vegetables in the world. Expanding exports could prevent such a pitiful occasion.”



For more exports, farmers need to change their point of view in an “innovative” way, the minister said, because each market has a different standard of favored products and it is important to produce what consumers want in specific markets.

“Up to now, farmers have just raised pigs. Now they need to know their main work is to supply pork for the market. In other words, agriculture is about providing consumers with ingredients they need,” he said.

This offers a valuable cue to what is in Chang's mind. Farming and fishing are another form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he didn't deny it.

“All farmers are CEOs of their own business,” the official said. “Agriculture is no different from the manufacturing of products in plants, that's what I believe.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occupy more room in agricultural management.”

So, inevitably, it all comes back to one word — productivity.

“Market competition is essential,” he said. “Because competitors are everywhere, even outside Korea. At the same quality, prices should be competitive. In that regard, farmers need to make process innovation as other manufacturers do at factories.

“With the same budget, farmers can produce more by cutting expenses in each step of their work process, like plant managers do for their work.”

Productivity varies in Korean farming circles, Chang said.

In a survey of rice farmers last year, the most productive 20 percent produced



nearly 3.5 times more rice than the least productive 20 percent on average. The gap grew from a 2004 survey, in which the top 20 percent of farmers produced 2.4 times more than the bottom 20 percent.

The principle is also applied to distribution of their products.

“In an exemplary case, a farmer is selling the rice he produced at three different prices according to quality. I can safely say he surely has the quality of being a good CEO,” he said.

Chang started to refer to farmers as entrepreneurs back in 2004, creating the term “farming CEO.” It was meant to introduce the concept of “business management” to local farmers, the minister said.

“I used to tell them: Each of you is a business owner, not hired staff. That means you have to make your own decision about production and sales,” Chang said.

“It's about the way they use various resources they have.

The approach is also better for more exports, he added.

Currently Korean rice is about 3 or 4 times more expensive than foreign rice, but the price can be more than halved to an exportable level, through productive farming and adoption of quality species.

Korean “hanwoo” can also be exported through quality innovation and productivity enhancement like Japan's beef, Chang added.



The first thing he did since taking office was to meet local farmers every weekend. There, he saw pain, but also signs of hope.

“Even though an influx of imported products and rising prices of oil and feed have hit farming households, many farmers are doing their utmost to be more competitive,” he said.

Overall, it is still a serious problem that Korean farmers are unequal in production, and, strictly speaking, Korea's agricultural production is just 50 to 60 percent of that of the Netherlands. Chang, however, says it has enough potential to make a huge leap on the global stage.

“In the future, a lot of the minister's policies will be about hiking productivity like organizing households, developing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establishing more infrastructure in the farming village,” the minister said.

Safety Matters

In no other time in our history have consumers here been so acute and sensitive about the safety of what they eat.

After the dangers of mad cow disease become the talk of the country following the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panic is now prevailing in the whole food industry due to melamine-tainted Chinese products.

Chang assured that food safety is his top priority.

“Safety is definitely the most important, and about half of the ministry's work is



about monitoring food safety.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supply safe food to its people,” he said.

The issue is also meaningful to globalize Korean food products, as exports will be impossible without securing safety, let alone being recognized as quality products, he added.

“I do understand a lot of people are still worried about U.S. beef,” Chang said. “The government will closely monitor the whole process of its import and distribution. All restaurants must clearly identify the origin of ingredients they serve.”

In July, the ministry set up comprehensive measures for food safety, which include establishing a preventive system and intensified import food control. Also, it plans to make it obligatory for food dealers to keep records of their transactions this year, before completing a food distribution tracking system by 2010.

An overhaul of the related system will be soon made, the minister said. Most importantly, a project is under way to integrate all safety controls for dairy, farming and marine products, all of which are separate at present.

There will be more roles for consumers under the new system. The government will encourage more civic engagement in supervision of food-related facilities and the labeling of the origin of food.

“Safety control is basically a matter of system, so it will take some time to make it full force. But all other measures available will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hopefully this year,” Chang said.

hckim@koreatimes.co.kr



“Each one of farm producers is a CEO. That means he has to make his own decisions about production and sales.”

Who Is Chang Tae-pyong?

Minister Chang has devoted most of his civil service career in the economic sector before taking the helm of Korean agriculture.

The 59-year-old minister started his career as secretary to the minister of the now-defunct Economic Planning Board in 1990, and then worked in several tax-related department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ow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2004, Chang was transferred to the rural policy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n an inter-ministerial official-exchange program, and was credited for successfully handling a series of comprehensive measures on fostering local farm villages, which included a huge aid budget for them and reforming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Before taking the current office in August, he w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Chang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ology, and acquired two master's degrees — public administration at SNU and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Oregon in the United States.

In an interesting non-career activity, he also published a collection of poems in 2001.

KBS 뉴스라인 | 2009. 11. 3

[기획 대담] 식품 산업 집중 육성

앵커 : 정부는 2012년까지 식품산업을 150조원 규모로 육성해 15만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함께 식품산업발전대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 새정부가 농림부가 식품쪽을 가져가면서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정책을 마련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장태평 장관 :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이 2차산업 3차산업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하신데로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생하게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쌀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10kg을 그냥 팔면 2만원입니다. 햇반으로 가공하여 팔면 10만원, 떡으로 가공하면 12만5천원, 술로 가공하여 팔면 21만 3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가공을 많이 하게 되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차산업이 더해진다면 더 큰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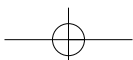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또 우리 식품산업을 보면은 전세계적으로 4조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1조 6천, IT 산업이 2조8천억달러입니다. 식품산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을 잘 발전시킨다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눈에 띄는 대책을 보니까 동북아 식품허브로 만들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안이 나와 있나요?

장태평 장관 : 구체안은 12월에 별도로 만들겁니다. 네덜란드 푸드 벨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70개의 세계적인 기업이 6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라 북도에 이런 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연구소, 대학, 식품기업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요. 여기에 농진청, 식품연구원이 옮겨 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 동북아의 식품허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한식세계화를 통해 한식을 세계 5대 음식권에 편입시키겠다고 발표도 하셨어요.

장태평 장관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김치와 불고기를 좋아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명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 국가전략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태국에서 2001년도에 Kitchen of the world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기준으로 보면 태국이 세계적으로 태국음식점이라든가 음식관련 수출을 배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음식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R&D 투자, 인력 육성,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음식을 세계화하려고 합니다.





앵커 : 농어업이 1차산업에 머물러 있었는데, 식품산업과 연계하여 2차3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태평 장관 : 그동안 식품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지원이 없었습니다. 식품기업에 대해 기술지원, R&D 지원, 수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출 지원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도 대폭 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또 농어가에서 가공이나 판매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농어가는 기술 등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기술지원이나 마케팅, 컨설팅 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농어가와 식품기업이 융합하여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앵커 : 식품산업 비전이 보여서 다 좋은데요, 문제는 예산확보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태평 장관 : 저희들이 4년 동안에 5조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9천억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R&D 투자, 식품클러스터 등 이런쪽에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동아일보 | 2009. 11. 12

“한우 등 25개 농축수산물 유통비용 거품 확 빼겠다”



장태평 농식품 장관

“농정 조직 내년말까지 개편직불금 부당수령 1% 안될것”

“농산물과 식품은 품질이 뛰어나면 가격 차가 상당해도 소비자들이 납득합니다. 한우를 예로 들자면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을 조금씩 줄여 가격을 지금보다 30%만 낮추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장태평(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이틀 앞두고 11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25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생산성 향상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25개 품목은 쌀, 사과, 배, 한우, 돼지, 닭, 멸치, 오징어, 김 등 농축산물 19종과 수산물 6종으로 생산량, 수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놨습니다. 생산에서 유통 가공 수출 단계까지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비료 구입이나 농기계 임차에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소매 단계에 거품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는 “이달에는 식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다음 달에는 농산물 수출발전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내년 말을 목표로 농식품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은 물론이고 제도와 각종 예산 사업도 발전적으로 정리할 것이 많다”며 “박덕배 농식품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최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 구상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식품부 산하 식품안전 관련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분산돼 있는 국내 검역 업무, 국경에서의 검역 업무, 국내 검사 업무 등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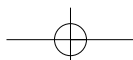
10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장 장관은 “제도에 문제가 있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2006년 수령자 99만여 명 중 28만여 명을 비경작자로 추정) 감사원의 추정치는 너무 과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부당수령자 규모를 얼마나 추산하느냐’는 질문에 “1%(1만여 명) 이내 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농식품부는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한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2월에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1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농식품산업을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목표를 위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조선일보 | 2009.11.21

고구마 농사꾼과 쌀빵

농업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가면 어디든지 눈에 띄는 닉네임이 하나 있다. ‘여름지기’ 내 블로그에도 단골이다. 이분은 충남 서천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전량 인터넷으로 판매한다. 어떻게 입소문을 내는지 고구마가 자라기도 전에 캐달라는 분이 많아 난감할 정도란다. 활동하는 카페만도 30여개. 지난 여름에 열린 충남농업인정보화대회에서는 홈페이지 부문 대상을 받았다.

열혈 여름지기님이 요즘 쌀빵과 열애 중이다. 행사만 열렸다 하면 쌀빵을 잔뜩 가져와 무조건 먹어보란다. 7월 충남농업인정보화대회에서도, 9월 서천에서 열린 주말 현장담화에도 색색의 예쁜 쌀빵이 등장했다. 서천엔 까칠한 사춘기 자녀들까지 도우미로 동원했다. 고구마농장 주인이 웬 쌀빵? 어느 날 그 이유를 담은 이메일이 날아왔다.

여름지기님은 맨손으로 귀농해 고구마 농사를 지은 지 13년. 갖은 노력 끝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고구마가 건강식으로 인기를 더해가니 너도나도 고구마 농사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 차별화로 경쟁력을 키울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남의 땅을 빌려 하는 농사라 새로운 농법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안은 가공산업뿐이라 생각하고 정한 것이 쌀빵. 3년 전의 일이라.



적자생존—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나 집단이 살아남는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천천히 변하느냐 빨리 변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여름지기님은 고구마 농가가 수요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는 미리 준비에 나섰다. 임차농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험난하지만 미래가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 농어업을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세계화로 인한 시장개방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농어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성은 날로 높아지는데 입맛은 야속하게도 거꾸로 간다. 사방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은 급박하게, 어떤 것은 아주 천천히...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보이지 않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이다. 나중엔 좋을지 몰라도 당장 불편하고 고단하면 피하고 싶어한다. 본능이다. 새로운 시도나 변화 앞에 주춤거리고, 때론 반발을 하는 이유다. 고친다는 의미의 개혁이란 말은 그래서 무겁게 느껴진다.

농어촌 개혁가—필자도 지난 3월부터 농어업 현장에 들어가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일해보자는 의미로 벡타이를 풀고 점퍼를 입었다. 그러나 혹시 폼으로 보였을까, 허세로 보였을까. 장관이 개혁가가 되려 한다면 세상이 뭐라 할까. 괜히 튀어보려고 하지나 말라고? 나의 두려움은 어디쯤에 있을까. 나를 쌀빵 여름지기님만큼 알아주긴 할까.

인연(因緣)—뭔가를 이루려면 인과 연이 닿아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힘들다. 인은 인간의 노력을 뜻하고 연은 상황이 따라줘야 한다는 뜻이다. 연을 운(運)이라고도 한다. 사람에게 운이 있듯이 정책과 제도에도 운이 있다. 탄생하는 데도 운이 있어야 하고 성공하는 데도 운이 따라야 한다. 운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다.

세상이 원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설득해야 한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입장과 생각들이 있다.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열



사람 열 가지 생각, 백 사람 백 가지 생각이다. 마치 같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라 해도 잎이 넓은 것이 있고, 가느다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농어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현장에는 정말 많은 입장과 생각들이 있다. 쌀 문제만 해도 쌀 농가의 입장이 있고, 조합장의 입장이 있고, 농민단체의 입장이 있다. 농수협 개혁, 농어업 선진화, R&D 개편 등에도 수많은 입장과 생각들이 있다. 나는 지금 각양각색의 그것들을 잘 살피고 있는가. 혹시 너무 의욕만 앞선 나머지 그들을 서로 충돌하고 덧나게 한 것은 아닌가.

바위를 쉽게 깨려면 결을 찾아 내리쳐야 한다고 들었다. 세상을 설득하는 일도 맥을 잘 잡는 일과 이치가 같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 말처럼 쉬울까. 수많은 입장과 생각들이 낳은 각기 다른 이해는 조정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그것들을 통하는 맥을 찾아야 한다. 맥을 찾는 것은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다행히 농어업 현장에는 보석 같은 지혜가 지천이다. 경험에서 우러난 살아있는 지혜다. 그것을 모으기 위해 나는 주말마다 길을 나선다.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강우량의 95%를 사용하고 농업에서 면적당 생산성만큼 물 사용량당 생산성도 중요하게 여긴다. 1950년부터 60년을 노력한 결과 물 생산성을 5배로 높였다.

우린 땅이 좁다.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식의 개혁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나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나는 한마리 곤충이다. 허물을 벗고 탈바꿈을 하고 싶다.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의 모양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렇지만...정녕 나 자신부터 개혁은 됐는가. 말로만 개혁이고, 겉모습만 개혁인 것은 아닌가. 점퍼 차림도 또 다른 가증스러움은 아닌가.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고구마 대신 내 똥의 '쌀똥'을 적절히 준비해왔는가.

MBN | 2010. 1. 1

MBN 신년인사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입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인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연이은 풍년과 함께 농어업계와 대타협을 통
하여 농어업선진화 방안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개혁을 본격 추진하
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농수산물 수급불안과 농어가 소득정체라는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경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저희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
다는 마부작침의 자세로 농어가의 경영을 혁신하여 소득을 높이고,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
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SBS-R 라디오 전망대 | 2010. 1.6

4대강 사업, 농협사업구조 개편, 식품안전 대책

서두원 :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새해벽두 큰 눈이 농사 생각이 나도록 만드는데요. 올해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장태평 :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두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태평 : 네.

서두원 : 우선 먹거리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올해부터 고독성 농약, 독성이 강한 농약 사용이 금지된다. 이런 말씀 들었고요. 또 축산사료 항생제도 규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가축하고 어류양식에 항생제 엄청 주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겁니까?

장태평 : 네. 그렇게 제도를 만드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축산 이런 사료에 항생제 사용하는 게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고독성 농약도 우선 3종류 정도는 사용을 중지하고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중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료 첨가 규정도 우리가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기부터는 축산 항생제의 사료 첨가도 전면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원 : 앞으로 농약하고 항생제 좀 그만 먹여주십시오(웃음).

장태평 : 네. 아무튼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안전의 기본입니다.

서두원 : 그렇죠. 그럼 올해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걸려있는데요. 농협개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협개혁은 대통령께서도 몇 번씩 강조한 사안인데요. 현재 농협의 개혁이라고 하면 농산물 판매 같은 경제사업, 그리고 보험업무 같은 신용사업,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죠.

장태평 : 네. 저희들이 농협 개혁은 우리 대통령께서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주창을 하셔 가지고 거의 1년여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우선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작년 말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협중앙회가 금융 부분도 들어 있고요. 또 경제수익사업 부분도 들어있고, 그러면서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이나 경제수익사업들을 떼 내서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서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수익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나온 수익들을 농협중앙회 기능에서 본래의 협동조합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게 기본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쯤에 국회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법 개정이 잘 이루어지면 자산 실사도 하고, 조직이나 인력, 이런 개편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초부터 사업 분리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원방안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서두원 : 네. 신용사업 부분 좀 더 자세히 여쭙보고 싶습니다. 농협도 이제 보험 상품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그런데 농협이 일반 보험사들에 비해서 지점망이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엄청난 수의 단위 조합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다가 다른 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까다로운 규제 받고 있는데 농협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수주의 보장 받아서 사실상 특혜를 받아온 건데요. 이게 또 시장 개방 관련해서 문제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장태평 : 그 부분은 지금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현재 농협이 공제라고 해가지고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제사업은 조합원들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제사업이 현재 조합원 이외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업 범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서두원 :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태평 : 그런 셈이죠. 그런데 공제사업하고 보험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대상도 아주 제한이 돼 있고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연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공제사업이 어떻게 보면 비제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래서 이런 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서 농협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험 회사와 똑같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이렇게 비제도권 밖에서 거의 보험하고 유사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지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족을 시키면서, 또 농협으로 보면 우리 농어촌이 모든 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윈윈하는 그런 제도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두원 : 그런데 생보사들 반발, 대단한 것 같고요. 국내 진출해있는 생보사들, 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은행들은 보험사 상품 팔 때 같은 동일한 보험사 상품을 10%넘게 팔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카슈랑스를 말이죠.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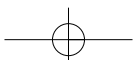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이걸 5년간 유예시켜줬잖아요. 농협한테는. 그래서 반발이 심하던데요?

장태평 : 네. 그 5년간 유예되는 동안에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자동차, 연금, 이런 상품들은 취급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유예되는 동안은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인 보험제도로 바뀌는 준비 작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보험사들이나 외국 보험사들도 충분히 제도 개편되는 데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덜었구요. 또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서 저는 우리 보험 쪽에서 좋은 경쟁이 이루어져서 보험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두원 : 네. 그런데 농협이 원래 농민들의 조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엄청난 거대기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은행부문은 국민은행에 이어서 국내 2위의 거대한 금융기관이고요. 하나로 마트도 상당히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관료조직화 돼서 각종 비리가 많아왔단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장태평 : 비리나 이런 건 너무 큰 조직이 되다보니까 큰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그런 일부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사업구조 개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 금융기능하면서 그 금융기능의 전문성을 100% 살리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분리해서, 예를 들자면 농협의 은행부분도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이런 일반 시중은행처럼 똑같이 아주 피나는 노력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금융 기관으로서 수익기능이나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사업구조 개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보다 더 훨씬 효율적으로 민간의 시장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수입부분은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입을 많이 내면 그걸 본래의 농협 기능이 그 수입을 활용해서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는 거죠.





서두원 : 네. 그런데 이번에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농협 측도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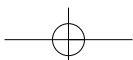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장태평 : 농협 측의 불만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경제 지주에 대해서 천천히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두원 : 독립 보험회사 만드는 거 말이죠?

장태평 :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신용 부분으로 해서 금융 부분의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은행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개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주가 또 있습니다. 그건 지금 농협이 자회사가 한 20여개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부분 자회사가 21개인데, 이 21개 회사를 별도로 조직을 해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게 경제 지주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지주를 농협에서는 지금 생산자를 위한 경제활동, 즉 공동구매, 농기계 사업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걸로 잘못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조합장들과 농협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제가 얘기를 죽 하고 돌아다니는데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같은 게 불안해서 자본금은 충분히 배분해 줄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하여튼 자본금 문제하고 세제 지원 문제는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기능을 분리해서 하게 될 때 분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세제 문제는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다른 기업들도 확장과 분할을 하는 가운데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세제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서두원 : 네. 장관님, 올해 농림부의 농정목표를 보니깐요. 비료비를 11% 줄인다, 이런 경영 혁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궁금합니다.

장태평 : 네. 저희 농가가 최근에 와가지고 소득이 정체돼 있어요.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수입은 늘어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니까 경영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비용을 줄이는 비용절감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비용절감운동본부, 경영혁신단 이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비용을, 비료도 같은 비료를 예를 들면 100 정도만 쓰면 되는데 우리가 150이나 160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50이나 60 물량을 좀 줄여 줘야죠. 왜냐하면 비료를 더 쓰면 쓸수록 더 좋을 것 같지만 질소나 이런 게 더 과도하게 돼서 농사가 오히려 안 되는 그런 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그런 식으로 투입 물량을 줄이는 것도 절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방식인 농법을 바꾸어서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료도 보니까 토양에 맞게끔 맞춤형 비료를 하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1등급도 1+, 1++, 그래가지고 그런 등급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등급이 많을수록 속에 마블링이라고 해서 지방질이 많을수록 좋은 고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 기준도 바꾸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 30개월 정도만 길러서 소를 시장에 내도 되는데 마블링을 하기 위해서 3,4개월 더 사육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사료비도 더 들어가거든요.

서두원 : 더 높은 고기 먹어야 되는군요.

장태평 : 그렇습니다. 국민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사육기간을 단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료비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 비료, 농기계, 이런 사료,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기술개발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적게 투입을 하고도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업 어업에 경영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절감 운동을 통해서 경영혁신도 하고요. 소득도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두원 : 네. 장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태평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두원 : 네. 지금까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모셨습니다.

연합뉴스 | 2010. 1. 13

[신년 인터뷰] 2010년 주요업무계획

<신년인터뷰>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01-13 10:01 | 최종수정 2009-01-13 10:31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고기(농업 지원금)를 잡아 농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농업을 돈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려 합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 농업을 아시아의 허브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MB노믹스'에 맞춰 농정의 골격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과거 정권처럼 농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농업 생산과 유통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주력 수출 산업으로 키우는데 자금을 집중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국인 네덜란드가 바로 장 장관이 꿈꾸는 한국 농업의 미래다.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의 산업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취임 이후 그의 정책 초점도 농업 수출에 맞춰졌다. 실제로 장 장관이 취임한 8월부터 농수산물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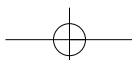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처음에 '엉뚱하다'는 반응이었던 농업계도 '수출에서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한다'는 장 장관의 지론을 이해하는 분위기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농협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고, 문제가 드러난 쌀 소득보전 직불금 제도도 전면 손질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임 장관 시절 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농식품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지만 장 장관이 이를 원만히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야당인 민주당의 장관 종합평가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 당장해야

—농협·수협 개혁 문제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자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말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나.

▲ 나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 농협과 수협은 그 직원, 조합원들이 다 개혁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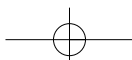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중앙회는 회장과 구성원들이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 내 생각엔 기득권과 연계돼 있는 조합장들만 여기 동참해주면 충분히 된다고 본다.

조합장 중에도 나머지는 개혁에 동의하거나 따라갈 사람들이고 3분의 1 정도가 '왜 우리가 잘하는데 이러느냐. 우리에게 맡겨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경제 구조와 금융이 급변하는 가운데 농협, 지역조합이 앞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역 조합을 설득할 것이다. 농.수협의 지배구조 문제는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앙회장의 인사 전횡 등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신경 분리라는 더 민감한 문제도 있다. 과거에도 신경 분리 논의가 활발했고 용역 결과가 있었는데 그건 기한을 10년이나 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와 같았다.





▲ 2월 임시국회에서 신경 분리관련 법안까지 처리하기는 힘들다. 그건 농협개혁위원회에서 2월까지 계속하고 검토해 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또 농협은 농협대로 1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줬다.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올해 10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이다.

과거 용역안이 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과거 것은 신경분리에 부정적인 맥락에서 검토됐다. 그걸 무시하고 이번에 농협중앙회가 용역을 준 것은 현실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각 금융기관들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만큼 농협 신용부문의 구조조정도 포함할 것이다.

◇ 새만금, 향후 20년간은 농업용지가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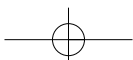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 새만금과 관련해 정부의 사업방향이 확정됐는데 농지는 30% 정도로 당초보다 줄었다. 새만금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나.

▲ 새만금은 농지에 쓰려고 조성했고 그래서 사실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돼야 하는데 전북도 지역 주민들이나 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농지보다 다른 부분으로 써야 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 전용하게 됐다.

농지가 30%쯤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데 쓰자고 27%를 유보해놨는데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당장 개발계획을 세워 쓸 수가 없다. 아마 개발계획을 세워 쓰려고 하면 20년쯤 걸릴 거다. 그동안 이 유보용지는 농지로 활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전체의 57%가 농지다.

그동안 간척농지는 대부분 쌀 농사를 짓는 데 썼는데 새만금의 경우 첨단 유리온실, 원예.화훼단지,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집어넣어 자연순환형 농업을 할 생각이다.

자연순환형이란 축산과 벼농사가 같이 들어가서, 벼.청보리 등을 사료로 주고 축산에





선 분뇨 등이 농사로 들어가서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다. 과거보다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 쓸 수 있다.

- 지난해 원자재, 곡물 대란 이후 새만금에 지역논리, 정치논리에 따라 산업용지가 너무 비대하게 할애된 것 아니냐, 산업용지가 남아도는데 과잉투자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 공업용지나 도시용지로 쓰이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워낙 땅이 넓다. 전체 2만8천ha 중에서 산업용지는 1천800ha에서 2천800ha로 1천ha밖에 안 늘었다. 산업, 공업용지가 20~30%를 다 차지하는 건 아니며 생태, 환경용지도 21%나 된다. 그것과 농지를 합치면 이미 80%나 된다.

◇ 한우 쇠고기 소비 거의 원상 회복

-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면서 한우 농가들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대로 타격을 받고 있다.

▲ 우려했던 것처럼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작년 봄에 묘하게 사육 두수는 느는데 좇붙시위 하고 광우병 공포 때문에 소값이 떨어져 고전을 했다. 지금은 거의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등급제가 정착되면서 쇠고기 파동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다.

자급률(시장 점유율) 부분도 큰 변동 없이 2007년 47.6%에서 2008년 47.0%다. 한우의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을 낮춰 호주산 쇠고기보다 가격이 평균 두 배 정도로 좁혀지도록 하려한다. 현재는 가격차가 평균 세 배쯤 됐는데 두 배 정도만 되면 주부들이 충분히 우리나라 쇠고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려면 가격을 현재보다 30% 낮추면 경쟁이 된다. 유통 부분에서 반(15%), 생산 부분에서 반(15%) 정도 비용을 축소시키면 농가의 소득에 영향 없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의 가격에서 30% 정도 낮추면 47%인 시장 점유율을 60~70%로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농가 소득이 확장되고 소비자들도 득을 보게 된다.

쇠고기의 품질도 높여야한다. 그동안엔 배합사료만 먹여서 살을 찌웠는데 요샌 조사료(섬유질 사료)를 쓰다 보니 고기맛이 굉장히 좋다. 품질만 좋아지면 일본의 와규(和牛)처럼 명품 한우의 경우 가격을 높여도 얼마든지 팔릴 것이다.

-젖소 송아지 값이 폭락하면서 육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 육우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싶다. 젖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암소는 젖소로 가고 수소가 육우가 되는 것이다. 한우와 품종만 다르지 고기맛이 그렇게 차이 나는 것



도 아니다. 사람들이 젓소를 싫어하는 건 7~8년 젓을 짜고 늙은 소를 잡았으니 맛이 없나 보다 하는 의심때문인데 그렇지 않다.

집단급식을 하는 회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식 때문이니까 홍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려고 한다.

◇ 농식품 검사.검역기관 묶어 청(廳) 만든다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 제도적인 개선책이 모두 확정된 상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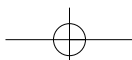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확 정됐다. 쌀 직불금은 크게 보면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도로 갈 것이다. 농가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전년보다 일정 비율, 예컨대 10% 떨어졌다면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식으로 하면 농가소득이 자연재해를 받건, 축산의 경우 질병이 발생하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쌀을 포함해 모든 품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큰 품목은 다 넣어서 가려고 한다. 2012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2010, 2011년 2년간은 시범사업을 한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들이 이를 환원해야할텐데 어떻게 환원하나.

▲아직 집계가 완전히 안 됐는데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이 약 3천명 내외다. 금액도 얼마 안 될 것 같다. 평균적으로 50만원쯤 받는 것 같다. 1월 말쯤 돼야 아마 최종 집계 나오고 그때 발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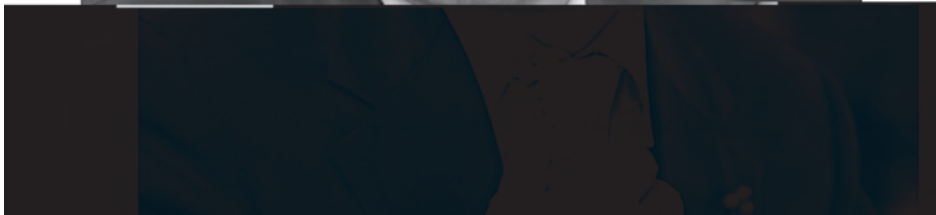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식품안전 업무를 갖고 있고 농식품부의 농수산물 안전 관련 업무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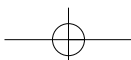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 우리가 맡고 있는 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검역과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 등이다. 이를 한데 묶어 청으로 만들어 식품 안전업무를 효율화하려고 한다.

우선 공항이나 항만에 농산·축산·수산물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이들부터 합칠 것이다. 검역·검사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앞으로는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 행정의 통합 문제도 충분히 검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 농업 부처 속에 식품행정이 있거나 농업과 식품 안전 기구가 따로 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처럼 식품과 약을 같이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약과 식품이란 건 특성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식품안전정책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동안엔 농업용 저수지를 농업용으로만 썼다. 필요한 물만 채우면 되니까 그 이상은 흘러보냈다. 앞으로 물 부족 시대가 오니까 그 지역에서 쓰는 생활,공업용수를 포함해서 강을 강답게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하는 종합 다목적 저수지가 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뚝 96곳을 5m쯤 높인다.

또 하나는 강변 마을이나 강변에 산책로, 생태탐방로, 승마장 등 레저시설을 짓고 마을의 발전과 관련해 지원도 할 계획이다.

◇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우리 농업의 백년대계,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 1월 말쯤에 농정의 큰 방향을 발표할 것이다. 우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에 관한 문제다. MB(이명박 대통령)농정의 큰 골격을 한번 보여 주자는 얘기다.

농업 경쟁력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할 일 중 제일 크고 시급한 게 농수산업 쪽의 자본 축적이다. 당장은 자기 자본이 적으니까 외부 자본이 들어와야하는데 외부 사람의 직접 투자도 있겠지만 공공자금을 통한 지원도 있다. 펀드 같은 금융지원 제도를 과거와 달리 바꿔야한다. 금융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민간자본이 돈벌이가 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할 텐데.

▲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다. 그러나 파프리카, 인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



그동안 투자할 사람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엔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대규모 농업회사가 들어가서 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 외부의 자금 들어오고 자본도 축적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간 농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그런데 다 과편화돼서 조직적,체계적으로 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부은 격이 됐다.

▲ 그 부분이 바로 MB농정이 바뀌야 하는 부분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생산성에 직결돼야 하는데 과거엔 그게 잘 안됐다.

앞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쪽, 농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깔아주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농업이나 수산업 하는 사람들이 생산품을 가져오면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교육 시켜주는 분야 등에 지원을 집중하려 한다. 고기를 잡아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스템화 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면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 못해주면 농민들이 '정부 말 들었더니 망했다'고 할 것이다. 이제 국내 시장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 시장을 보고 농업을 해야한다. 특히 아시아권에선 우리가 농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농업인도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고, 동남아와 비교하면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지체하면 중국, 일본에 시장을 다 빼앗긴다.

월간조선 | 2010. 2. 17

농협사회구조 개편, 한식세계화, 4대강 사업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農政)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날로 뒤처지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1952년 유엔한국재건단(UNKRA: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이 내놓은 네이산 보고서의 ‘농업 우선 발전 전략’을 거부하면서부터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 시절 부흥부장관을 역임한 송인상(宋仁相) 호성 고문은 그의 자서전 <부흥과 성장>에서 네이산 보고서와 관련, ‘나는 그때 농업에 의해 한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구상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곤 했다’고 적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 부흥부차관, 부흥부장관을 지내며 중요 산업정책을 입안, 집행했던 신현확(申鉉確) 전 국무총리도 “그 시절 대부분의 정부 관료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부 관리들은 네이산 보고서 내용에 적극 반대하는 한편, 한국민의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공업화로 산업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가지도부가 산업화와 수출산업화를 통한 성장동력을 추진함으로써 ‘초근목



피(草根木皮)로 상징되는 절대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 결과 우리나라 농업은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퇴락의 길을 걷게 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농정은 어떤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활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장태평(張太平) 농림수산물부 장관을 찾았다. 실례되는 얘기지만 ‘태평’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해 연속으로 태풍이나 재해 없이 농어촌이 대풍(大豊)을 맞은 것은 장관 이름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출신의 세제 전문가를 농림수산물부로 부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시 전임 장관께서 촛불시위 여파로 갑작스럽게 물러나시면서 촛불사태를 급히 수습해야 할 상황이었고, 또 이명박 정부의 농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구하다 농업정책국장을 지낸 저를 발견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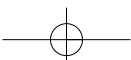
“농협과 수협이 개혁되면 농수산 문제의 50%는 해결”

—이명박 농정을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MB 농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농정도 마찬가지죠. 실용은 효율성을, 중도는 서민들과 영세 계층을 돌봐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다른 분야만큼 산업화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이 중도실용입니다.”

—장관 재임 중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싶다”고 꼽는 것이 있다면.

“우리 농업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농협





과 수협이 개혁입니다. 이게 잘되면 농수산업 문제의 50%는 해결된다고 봐요. 정부 조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농·수·축산업 관련 기관의 역할 등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는 “농림수산부에 식품업자가 접목된 것은 역할 변경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농업과 수산업이 1차산업에 머물러 있었는데, 식품이 추가됨으로써 가공유통 시장까지 포함하여 업무 영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장 장관은 “우리 농수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이유는 실물을 받쳐줄 수 있는 금융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말을 이어갔다.

“현재 농업 관련 금융 시스템도 국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의 지원 금융을 예산으로 만들어 시·군(市·郡)에 배급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분야도 손질을 충분히 해서 농업, 어업, 식품산업에 진출하려는 분들이 R&D 지원은 물론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농수협 개혁은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장 장관은 또 기존의 국영 금융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제도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조합법을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투자조합법이란 개념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껏 농업에선 투자조합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모태(母胎)펀드를 만들어 민관 합작형태의 투자조합이 구성되면 지원할 거예요. 예를 들면 땅이나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땅이나 과수원을 출자하여 거대 기업으로 만들고, 여기에 금융 지원을 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기업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소액 출자자들이 모여 거대 농업기업을 만들면 연구개발도 쉽게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고, 과학 영농도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재임 중 우리 농식품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KTV | 2010. 2. 19

농식품분야 고용안정 프로젝트



농식품 분야에서 올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외식업계 종사자의 복지 개선과,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이 과제로 제시됐습
 니다.

우리 정부의 올해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

식품과 유통, 외식서비스 등 농식품 분야에서도, 올해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는
 고용회복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숨어있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취업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기관별로 재정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외식 업계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인식/ (사)외식산업협회장

“외식업계가 사실상 3D업종입니다. 정부에서 복지 이런 측면에 적극 지원을 해주신다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농촌과 산촌, 어촌 곳곳의 자연경관에 눈을 돌려, 특색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신영태/ 해양수산개발원 박사

“농촌, 어촌지역도 지금까지는 생산을 하는 장소를 떠나서 농촌, 어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유치한다거나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1차 생산한 것을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가공을 한다던지, 이런걸 통해서 다시 또 관련 산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반을 꾸려, 매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 2010. 2. 24

출범2년 성과 및 비전 2020



[앵커멘트]

정부가 농업을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장기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식품회사를 만들고, 동·식물과 첨단 바이오산업 등
5대 전략산업도 육성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년간 농업은 FTA 등 악재에도 식품산업 매출이 134조 원까지 늘어나는 등 미래
산업으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로 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50%에 달하고, 막걸리가 히트치는 등 농



식품 수출은 48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DDA와 FTA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경쟁력 제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농업 체질개선의 원년으로 보고 20년 장기플랜을 내놨습니다.

[인터뷰: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우리 농수산은 자연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자연과 함께 할 것”

우선 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확대가 관건이라고 보고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 식품기업 5개를 육성합니다.

전북 익산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키워, ‘네슬레’나 ‘하인즈’ 같은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12년까지 범부처 기구인 국가식품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식품정책을 추진하며 2020년 농식품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동물과 식물자원을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곤충산업과 애완동물, 바이오에너지, 기능성물질, 관상동식물 등 5대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0년까지 자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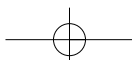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농어업은 체질을 완전히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경작면적 3ha 또는 매출 2,000만 원 이상 전문농의 비중을 2008년 20.7%에서 2020년까지 31.2%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젊은 농가도 참여하는 마을단위 농어업법인을 만들거나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나이 많은 농민들이 자본을 대고 젊은 농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는데 급급했던 우리 농업이 어떤 모습으로 경쟁력을 갖춰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 2010. 2. 24

농림수산식품 · 농산어촌 비전 2020



【앵커멘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농식품 수출 3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비전 2020’을 제시하고 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수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식품 산업을 매출 260조 원, 고용 212만 명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장태평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식품가공산업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식품제조 가공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020년까지 10조 원 클럽에 가입하는 식품기업 5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억 달러 이상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기업 10곳이 육성되고 한식세계화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됩니다.

- “한식의 경우 ‘G20 한국방문의 해’ 등을 계기로 국제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외 한식당도 5만 개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농어업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농어업 체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식물 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고 곤충산업을 2020년까지 7천억 원대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채소와 화훼류 품종 개발 등을 통해 2억 달러 수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바꿔 종자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전문농업 경영체를 34만 호로 확대하고 모태펀드도 늘려 민간 투자를 확대해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매일 | 2010. 3. 2

쌀 수급안정대책, 친환경농산물 육성 등

“전남 농업, 조직·상업화로 활로 찾아야”

2010년 03월 02일 00시 00분 입력



전남매일 인터뷰/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역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농정을 이끌고 있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지 이두현 편집국장이 지난달 23일 만났다. 집무실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대면 인터뷰에서 장 장관은 전남농업의 미래와 대한민국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하고도 현실성 있는 대안과 방향들을 제시 했다. 특히 농도 전남이 나가야 할 농정 방향과 농업지



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보다 솔직하고 애정어린 부탁도 잊지 않았다. '젊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육성과 조직화' '세계 최고의 천일염클러스터 육성' 등은 지자체 행정책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돈되는 농업으로의 작목 전환 등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로 들렸다. 장 장관의 인터뷰를 신는다.

—전남은 전통적인 농도로 지금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 농업환경의 변화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변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전남은 전국 농지의 17.6%(31만ha), 농가 인구의 13.8%(44만명)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농도이며 농업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그중 쌀, 보리, 유자, 녹차 등 15개 품목의 재배면적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지요.

전남은 과거 10년전만 해도 쌀값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나 품질고급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 쌀 브랜드 평가 결과 12개중 4개가 전남지역 브랜드이며 최우수상에 '한눈에 반한 쌀' (해남)이 선정됐고 친환경농업을 의욕적으로 장려하여 '유기농 생태전남'을 실현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전남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비용절감과 전남만의 장점을 살린 특성화 추진, 수출확대 등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비용절감을 주도할 농어업경영혁신단을 구성하고 중앙단위 비용절감운동 본부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성화 추진의 일환으로 전남이 보유한 다양한 향토 음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전남이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 및 상업화가 안돼 타 시·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전남 농업의 변화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할 농업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많은 농업지도자가 나와 지역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고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영산강 간척지 문제와 J프로젝트, 기업 도시 등의 문제에서 농업 지도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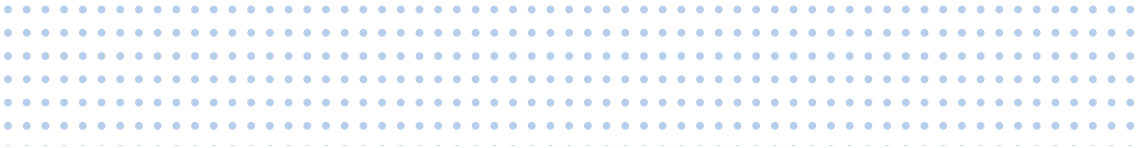
-한·EU FTA 정식서명, 한·미 FTA국회비준 등을 앞두고 있고 DDA 협상도 진행 중이어서 농·수·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 되는데요.

▲ 그동안 정부는 DDA, FTA 등 개방에 따른 농수축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한·미 FTA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했고 한·EU FTA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시장개방 과정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크게 우려 했지만 농어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정책으로 어려움을 줄여 왔습니다. 그 예로 한·칠레 FTA체결 당시 10년간 2천268억원의 포도산업 피해를 걱정 했지만 가격안정 및 소득증가 등으로 재배면적은 오히려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지난해 마련한 농어업선진화방안과 향후 10년간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 2020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도록 우리 농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수입량은 늘어나는 등 구조적 쌀 수급 불균형으로 산지 쌀값 하락이 반복되고 있으며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 등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 쌀 소비감소 및 의무수입물량 감소 등으로 앞으로 연간 약 20만톤 수준의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년에도 쌀재배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쌀가루 10%프로젝트 등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가공용 쌀 수요를 47만톤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쌀은 공급이 과잉되고 있으나 밀, 콩 등의 자급률은 낮고 사료 곡물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생산조정 방식 보다는 논농업 다양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쌀 유통단지 선진화를 위해 쌀 선물거래 도입과 농협의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농산물 대부분을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어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식품업체들에게 외국산 대신 국내 친환경 농산물을 식품소재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정부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공 확대를 위해 구매자금 지원, 생산자 참여형 식품기업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구매지원 사업을 위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원활한 가공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산물을 활용하는 가공업체의 경우 원료구입 자금을 국고융자(2010년 811억원, 연 3-4%) 지원 하고 생산자 참여형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융.복합 식품기업에 대하여 국고융자(2010년 60억원, 연 3%)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친환경농업이 대폭 확산되고 있으나 산지 물류기능 마비로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류비용 과다로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산물 수집, 보관, 선별, 포장까지 일괄 처리하는 물류센터 설치를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현재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경기도가 사업주체가 되어 경기 광주시에 건설중입니다. 올해부터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신규 인증이 중단되고 2015년까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출하량도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추이와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물류센터의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한 후에 권역별(호남권, 영남권)로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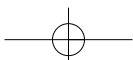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 이제 논농사도 외연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먹는 농업생산 에서 분재, 애완동물, 관상용 누에고추 등 생명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전남 농민들이 변화해 앞서거나 최소한 시대 추세에 맞추어 소득을 창출하는 등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전남이 물량 에서는 앞서고 있으나 앞으로는 질적인 면에서도 타 시·도를 압도하고 전체적으로 제품을 브랜드화 해서 특성있게 더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농업의 문제점은 조직화와 상업화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중심이돼 창립된 '벤처농업인연합회'의 경우 전남이 제일 먼저 출범하고 숫자도 가장 많지만 경남지역 농민들이 중심이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전남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발전시킬 농업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 지도자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전남도는 쌀 생산을 많이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희망을 가지고 전남농업을 살리고 활성화 하는데 역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정리= 강병운 기자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2010. 3. 4

출범 2년성과, 농협개혁, 한식세계화 등

홍지명 :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업화에 밀려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농업 정책이었습니다. 수입 농수축산물이 밀려오는 가운데 더욱더 확대될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장태평 장관을 연결해서 우리 농정의 방향 또 우리 농업의 활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아보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평 :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 농정에 대한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태평 : 지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농협 개혁, 농업 선진화, 식품 산업 기반 구축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농수협 개혁에 있어서요, 작년에 농협 개혁이 1단계가 이뤄졌고 그 다음에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담아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요, 지난번에 수협법도 본회의에 대기 중입니다. 또 농업 선진화 작업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농업인 단체, 민간 전문가들과 대타협을 통해서 보조금 개편, 직불제 개편, R&D 지원 제도 개편 등 큰 성과가 이뤄졌고요. 특히 식품산업발전에 있어서 아주 큰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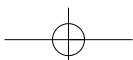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홍지명 : 네,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조합장 선거에서 돈 봉투 사건으로 시끄러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농협 개혁,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장태평 : 지금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돼서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선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농협, 정부가 같이 좀 합동을 해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 받고 팔아주는 농협이 돼야 되는데 그 농협이 그야말로 직원들의 직장이 되고 보수를 많이 받는 그런 일자리 식으로 인식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협 개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작년 초부터 아무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 지금 농협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법안에는 금융 부분이라든지 농수축산물 유통 부분이 분리되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장태평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을 보면 농협이라는 하나의 조직 안에 금융 업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본래의 협동조합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을 떼어내서 농협 금융지주로 만들고, 또 수익사업을 하는 여러 자회사들은 따로 떼어내서 그것만 전담하는 경제지주를 만들고, 또 나머지 농협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중앙회라든지 연합회로 바꾸어서 농협이 농민들의 산지 경제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을 통해서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지금 높아져있는데, 얼마 전에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걱정이 많습디만, 식품 안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어떤 겁니까?





장태평 : 식품 안전에 대한 업무는 우리 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GAP라든가 HACCP 제도라든가? 다시 말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13%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20%까지 확대도 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축산 사료에 항생제를 넣어서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내년 중반쯤 되어서 전면적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 이력제, 원산지 표시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산의 경우에도 수입산 쇠고기를 유통 이력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홍지명 : 얼마 전에 '농림수산식품 농산어촌 비전 2020'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식품 산업을 대폭 신장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장태평 : 예, 식품 산업은 기회의 산업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시장이 4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2020년에 가면 6조 달러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우리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주변에 15억명 이상의 인구가 있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10조원 이상 연매출을 올리는 식품 기업을 5개 이상을 만들자, 즉 유명한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과 같이 우리도 식품 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기능성 식품, 식품핵심소재 등 식재료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전북 익산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아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품의 특성은 발효 식품이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건강식품, 고급식품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발효 식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R&D 투자도 하고요.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식품 산업이 차세대 성장산업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 네슬레 같은 기업을 10년 내에 5개 정도 키워보자 이런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현실성이 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 네슬레 하면 150년 정도의 역사에다 연



매출 100조원이 넘는,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규모의 엄청난 기업인데, 어떻게 이런 기업을 10년 내에 5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홍지명 : 궁극적인 목표는 네슬레 같은 기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10조원 정도라 하더라도 지금 국내 최대 식품 기업의 연매출이 3조원 남짓 되는데, 그렇더라도 10조원 정도의 기업 5개를 10년 내에 만들겠다, 이것도 현실성이 좀 약한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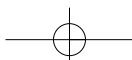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장태평 : 예, 우리가 지금 5조원 정도 되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조원 이상이 되는 식품 기업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다섯 개 정도는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옛날에 태국에서요, 태국도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그 나라도 보니까 한 5년 새에 연간 20% 가까운 그런 성장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홍지명 :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계획을 보면은 자금 투자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군요.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뭘니까.?

장태평 : 네 이번 계획안은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농정, 수산정책, 식품정책 들을 종합해서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20년까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거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농정 철학을 담은 기본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재정지원도 재편을 하고 지원 제도도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농업의 체질전환,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 산업 육성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아주 꼼꼼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홍지명 : 예, 그러면은 2020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따라서 자금 계획도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장태평 :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가재정운영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요, 예산 지원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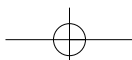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홍지명 : 또 하나 우리나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R&D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태평 : 그렇습니다. R&D가 아마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5년 간 R&D 투자가 3조원 정도 농수산물식품 분야에 있었습니다. 향후 5년에는 그 배 정도 되는 6조원 정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가 민간 R&D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이 조금 투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R&D 체계가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의 현금 부담도 완화해주면서, 기업 친화적인 R&D 환경도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인력 육성에 저희들이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홍지명 : 최근에 세계 곳곳에서 식량이 부족하다보니까 향후에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르기 위해서는 아마 해외 영농, 해외 농업 개발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요.

장태평 : 예, 아주 맞는 지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의 자급률이 26%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식량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곡물 시장의 가격 변동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아주 많고요. 그래서 해외 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예를 들어도 5개 나라에 저희 기업이 11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물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 컨설팅 지원, 정보 제공 이런 것들도 하면서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이익을 빼내는 그런 투자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피투자국에도 농업 기술을 준다든가, 농업 현대화를 해 준다든가 이런 윈윈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어촌을 개발하고 싶어도 사람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장태평 : 우리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을 개발하려고 할 때 사람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젊은 인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졌던 귀촌 귀농 인력이 돌아와서 그 지역 발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업승계를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촌 인력은 매년 천 명 정도는 우리가 교육을 해서 각 분야별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년 동안에 만 명 정도를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홍지명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장태평 :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 농림수산식품부의 장태평 장관이었습니다.

이데일리TV<이데일리 초대석> | 2010. 3. 20

농림수산식품 · 농산어촌 비전 202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농어업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FEZ)과 유사한 개념의 '농식품산업특구' 조성에 나선다.

농식품산업특구는 1차산업인 농어업 생산 지역에 식품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농식품 관련 2,3차 산업까지 한 곳에 모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정부는 올해중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이데일리TV에서 방송될 이데일리 창간 10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시장을 만들고 넓히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농식품산업특구 제도는 일정지역에 농업생산과 가공, 유통, 물류 등 2,3차 산업분야를 연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개념이 골자다. 정부는 현재 TF와 전문가 협의체를 구축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농식품산업특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특구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돌파구로 산업화 촉진전략인 산업입지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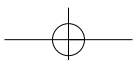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정부는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구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검토중이다.

장태평 장관은 또 농업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자, 조선 등과 같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식품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2020년까지 네슬레, 크래프트같은 세계적 식품기업을 5개이상 만들 것”이라며 “네슬레의 경우 삼성전자와 매출이 비슷하지만 이익이 4배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사람과 R&D에 대한 투자가 농업의 산업화의 핵심”이라며 “교육,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지도자를 육성하고, 지난 5년간 3조원이었던 R&D투자도 향후 5년간 6조원이상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업 산업화 과정에서 식량안보가 도외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장 장관은 “국내 생산기반을 넓히고, 비축과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개발처럼 해외농업개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며 “농정체제를 바꾸고, 농수협 개혁을 진행하는 한편 농업의 마인드를 바꿔 반도체, 조선처럼 농식품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 2010. 3. 27

생명산업 등 신성장 동력, 농정개혁 평가 등

매일경제

2010년 03월 27일 토요일 A04면 종합

Agrirento Korea 첨단농업 富國의 길

농업보조금 과감하게 줄이겠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6일 "(농업계)보조금이 우리가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줄어야 한다"며 "보조금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로 베이스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은 "영세농이든 아니든 정부는 부를 끌어올릴 지식, 기술, 방법론을 제공하겠다"며 "농업이 산업화한다고

년간 무려 116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가 부채는 3배 늘었고, 도시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내리막 길을 걸었다.

장 장관은 "식품산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생명자원, 자연자원을 활용해 국가 생명산업으로 농업 좌표를 재설정할 시점이 됐다"며 "수년간 생각해온 바를 매일경제신문이 잘 짚어줬다"고

다. 산업 간 융·복합 측면에서 농업대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장 장관은 "이제 다가올 농업혁명에는 IT·BT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 농업혁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업은 본질적으로 생명 자원과 자연자원을 생산·관리·활용하는 생명산업으로 바이오 경제 시대에는 핵심 산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탄소 경제에 기반한 산업화가 한계에 봉착하고 생명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식품 분야에서 글로벌 대거 투자를 육성시키는 제안을 수용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매출 10조원이 넘는 세계적 식품기업 5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우리 농업계에서 IT 분야의 발게이즈 같은 스타가 나와 미래 후계 인력을 키우고 양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혁훈·박용범 기자

영세농가 산업화로 꼭 피해보지는 않아 국가 생명산업으로 좌표 재설정할 시점

해서 영세 농가가 꼭 피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4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농업이 그동안 발전하지 못한 것은 보조금이라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 불과하지만 농가 71%가 벼 농사를 짓고 있다. 이는 쌀 직불금 때문이다. 또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자유무역협정(FTA) 등 위기 때마다 보조금 규모를 늘려, 지난 17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들이 농업을 국가 동력산업으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 분야에서 완급달타가 먼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농업이 '6차+a(알파)' 산업이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장 장관은 "농업은 2·3차 산업을 포함하는 종합산업으로 탈바꿈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재탄생하려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2010. 4. 22

구제역, 4대강사업, 쌀수급 안정 등

홍지명 :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바다를 넘어 김포까지 번지면서 적극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당국과 농가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상기후로 농작물의 생산량까지 크게 감소해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가고 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장태평 장관 연결해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평 :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 구제역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데, 지난 화요일에 최근 발생 지역인 김포 지역에 다녀오셨죠?

장태평 :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 현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장태평 :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이번 인천 강화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라고 합니다. 지난 번 1월에 포천 지역에 발생한 A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



서 새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4월8일에서 10일까지 5건이 강화도에서 발생이 됐는데 또 20일에 김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또 어제 강화도에서 2건, 또 충북 충주에서 신고가 돼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상당히 1월 포천하고 비교할 때 매우 빠르게 그렇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 지금 김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강화에서 발생한 것과 구제역 혈청형이 O형이라고 하는데 이 강화 쪽 방어막이 뚫린 것은 아닌가, 방역작업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태평 :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데, 서로 연관 관계가 어떻게 있나, 그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유형이고 또 원래 발생했던 농장에서 5km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화도에서 전파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 보령 지역의 경우는 음성으로 나타났죠?

장태평 : 예,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지명 : 문제는 강화, 그리고 아까 청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충주입니까 청주입니까.

장태평 : 충주입니다.

홍지명 : 아, 청주입니까.

장태평 : 충주.

홍지명 : 충주죠?



장태평 : 예.

홍지명 : 그러면 충주의 경우는 내륙 지역이어서 걱정이 큰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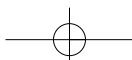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장태평 : 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늘 오전 중으로 나올 겁니다. 만일에 이게 양성으로 판정된다고 하면 상당히 내륙에도 여러 가지 점에서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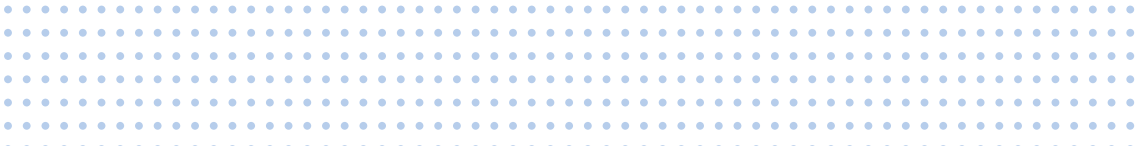
홍지명 :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장태평 : 그래서 만일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강화도가 약간 격리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충주 지역에 내륙에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도 지금 어젯밤에도 긴급대책회의를 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관계 기관들과 협의도 하고요, 또 관계 부처 간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 협의도 하고 해서 아주 강도 있는 조치들을 취하겠습니다.

홍지명 : 감염 경로로 해외 여행객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 우편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정확한 감염 경로라든지 원인은 밝혀져 있습니까.

장태평 : 그런 검사 조사는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가축 농가들이 외국에, 지금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 그 지역에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균이 약하기는 합니다만 전파력이 아주 썩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든지 옷이든지 이런 것에 묻어서 들어올 수 있고, 풀에도 묻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상당 기간 잠복을 해서 있다가 그 발생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질병이 해외에 번성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갔다 오는 것은 곤란하고요, 이번에도 강화도 첫 발생 농가가 중국 장가계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가계는 구제역 O형과 A형이 아





주 창궐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홍지명 : 혹시 말이죠, 구제역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사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장태평 :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바다를 건너 한 60km 정도 날아와서 전파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지명 : 해외여행 축산 농가에 대한 정보 확보 또 국경 검역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가 좀 달라지게 됩니까.

장태평 : 지금은 단체, 축산 농가들이 단체로 나갈 적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갔다 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체 여행 보다는 개별적으로 다녀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지 않고 그랬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축산 농가들에 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우리가 관리를 해서 여행을 할 때는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가지 않도록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요, 다녀오면 다녀와서 해야 될 일들, 수칙 이런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고 입국할 적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했을 때 100% 완벽하게 방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성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지명 : 그러다가 보니까 구제역이 일단 퍼지면 축산 농가들은 자식처럼 기르던 가축을 문어야 하고 가축들 입장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떼죽음 당하는 날벼락인데 이렇게 무더기로 매몰 처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장태평 : 지금으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치료 방법이 없고, 백신을 해서 사용할 때는 사전 예방은 되지만 그게 완벽하게 되지를 않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매물 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 매물 처분 할 경우에 축산 농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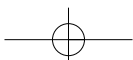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장태평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매물 처분 하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금을 지원을 합니다. 시가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라고 할까, 정상적으로 매출을 했을 때와 다르지 않고요.

홍지명 : 내다 파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장태평 :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경영 안정 자금이라든가 생활 안정 자금 이런 것들을 같이 지원을 해서 사육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활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향후에 가축을 입식하는 경우에는 입식 자금을 100%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지명 : 일각에서는 구제역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견 맞는 얘깁니까.

장태평 : 앞으로 이것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 아주 책임이 큰 경우에는 지금도 10%, 20% 이런 식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더욱 강조를 해서 농장주가 기본적인 수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또 신고를 늦게 해서 이런 피해가 커졌다고 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하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 잘 아시다시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지금 10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장태평 :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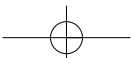
홍지명 : 그러다보니까 한중일 삼국이 다 구제역 발생으로 비상인데, 삼국 간 공조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장태평 :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을 앞으로 몇 번 보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한중일이 공조를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지명 :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농철이기는 하지만 지금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데다 구제역까지 겹쳐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꽤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농가들의 호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장태평 : 이번 이상기후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온으로 인한 것이라든가 특히 일조량이 부족해서 이뤄진 것들이 많은데요, 이 일조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재해가, 재해로 농작물 재해로, 항목이 설정돼있지도 않고 제도가 운영되지를 았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이면 모두 완결이 될 것 같은데요, 피해 조사 상황을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 앞으로 갈수록 기상이변이 잦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차지에 어떤 재해,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태평 :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지원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대로 하고요, 법 미비점이 만일에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이런 기상이변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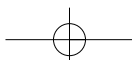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홍지명 : 농작물 생산량과 또 4대강 사업, 이게 하나의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의 하나로 시행될 영산강 저층수 배수 시설 설치 문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층수 배수 시설이라는 게 뭘니까.

장태평 : 그것은 호에 담고 있는 물을 밑으로 빼내는 겁니다. 저층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영함호 금호호 화흥호 이렇게 방조제를 가지고 있는 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층수 배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수 오염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홍지명 : 그러니까 오염된 저층수를 그대로 바다로 내보낼 경우 바다가 모두 오염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태평 : 예, 그런 얘긴데, 배출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외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지명 : 그리고 최근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저인망 어선 금양98호 문제, 이게 관심 건 밖으로 밀려나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과 예우 문제, 어떻게 좀 정해졌습니까.





장태평 : 예, 보상 문제는 보험이 들어있고요, 보험금은 사전에 저희들이 지급을, 수협에서 지금 보험기관인데요, 수협과 협의해서 좀 조속하게 사전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요. 그 후에 문제들은 사고를 낸 선박이 있습니다, 가해선박. 그렇게 외교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는 인천시 중구청에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돼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가 피해 가족들과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 정부 관련 기관 사항들을 종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의사자 인정 여부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요, 또 침몰 어선 인양 문제는 해양경찰청이 중심이 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원활히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홍지명 : 여러 기관이 나눠져 있다 보면 서로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태평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명 : 네, 감사합니다.

장태평 : 예, 감사합니다.

홍지명 : 농림수산식품부의 장태평 장관이었습니다.

동아일보 | 2010. 6. 3

꿀벌 없으면 꿀만 못 먹는게 아니다

꿀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곤충 중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곤충이다. 벌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기원전 7000년경으로 스페인 동굴 벽화에 나타난다. 고대 이집트(기원전 3200년) 문자에서는 꿀벌의 모양이 왕권을 의미하여 피라미드에 꿀단지를 함께 넣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시대부터 꿀벌을 사육했다고 알려졌다. 양봉 산업이 실질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1902년으로 알려졌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이 화분매개를 이용하여 수정을 한다. 특히 사과 배 딸기 자두 수박 참외 고추 유채 등의 농작물은 곤충이 화분매개를 해야만 한다. 꿀벌은 화분매개용 곤충 가운데서 약 80%를 차지해 상당한 가치와 중요성을 갖는 생명자원이다. 꿀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태계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다.

최근 꿀벌 개체수가 이상할 정도로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몇 년 전 미국 플로리다 양봉농장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등 전체 꿀벌의 4분의 1이 이유 없는 폐죽음을 당했는데 이를 봉군붕괴현상(CCD·Colony Collapse Disorder)이라고 한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상기온, 농약의 과다 사용, 전자파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현상이라 추정한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봉군붕괴현상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사례는 아직 보고 되지 않았지만 생태계에서의 꿀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꿀벌이 사라진다는 말은 단순히 꿀을 먹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화분매개로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순환 고리가 붕괴되고 2차적으로 식량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꿀벌 사육농가는 약 4만 가구로 200만 봉군을 사육하여 약 4000억 원의 소득을 올린다. 농작물의 꽃가루 수분에 활용되는 봉군 수만도 매년 30만 통에 이르러 국내 농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일벌이 외부 활동을 나갔다가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농업인의 하소연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는 아인슈타인의 경고를 되새겨야 할 때다.

17일부터 19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생명산업 D.N.A#展(Design Nature & Agriculture)’에서는 많은 꿀벌을 전시한다. 생명산업의 중요한 소재이면서 생태계의 작지만 큰 거인인 꿀벌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꿀벌 살리기 운동에 국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매일경제 | 2010. 6. 16

한국의 미래 國富 창출원... 생명산업은 ‘제2 반도체’

◆ Agrigento Korea / 제2부 생명산업에 미래 있다 ① ◆

한 나라의 경제를 앞에서 이끌어 가는 산업을 주력산업이라 한다. 70~80년대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섬유, 중화학공업이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산업 등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 우리나라 7대 주력산업이 벌어들인 외화가 4220억달러로 당시 국민총생산액이 9309억달러임을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살아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달러박스’로 불리는 7대 주력산업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중국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2009년 수출액은 3700억달러에 머물렀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나갈 주력산업은 무엇일까. 굳이 미래학자들의 전망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석유자원 시대를 대체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련의 흐름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비누도 샴푸도 화장품도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것을 선호한다. 동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약이 인공화합물로 만든 것보다 고급이며 효과도 좋다.



누에고치로 만든 인공고막과 인공뼈, 굴 껍질로 만든 인공피부는 부작용 없는 훌륭한 의료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애견, 말 등은 반려동물 산업과 매개치료 산업의 훌륭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해충으로만 인식됐던 곤충이 인간에게 천연물질을 제공하고, 병해충의 천적으로 활용되며, 생체모방 기술의 원천이 되고 있다.

우수한 농수산물도 그 자체로서 사람의 건강을 유지, 강화해주는 훌륭한 약재다. 열매를 제공한 뒤 남은 부산물은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Life Industry)`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바이오산업`이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생명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국한된 개념인 반면 `생명산업`은 생명자원의 발굴, 생산에서부터 유지·관리, 응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생명산업시대에는 기존 석유에서 만들어 냈던 수많은 가치들이 생명자원을 통해 창출된다.

생명산업 시대의 농림수산업은 더 이상 약한 산업이 아니다. 생명자원을 생산·관리·응용하는 활동을 통해 더 커 나갈 수 있는 강한 산업이며 차세대 유력한 국부창출원이 될 것이다.

농수산물 자원의 대표적 응용 분야인 식품산업의 국내시장만도 벌써 1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채권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앞으로 20~30년간 가장 유망한 산업은 농업”이라고 했다. 로저스가 말한 농업은 단순히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산업으로 재해석된 적극적인 농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생명자원을 유지·관리하고, 유용한 생명자원을 1차적으로 생산해 이를 적극 응용하는 산업으로서 농업을 차세대의 유망 산업으로 바라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한 `생명산업 D.N.A전`은 이런 의지의 실천이다. D.N.A는 Design Nature and Agriculture의 약어다. 기존의 농업과 자연자원을 생명산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생명산업의 중추로서 적극 육성하고자 한다.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2010. 7. 7

쌀 수입 안정 대책

홍지명 : 우리나라의 쌀 재고가 적정 재고량 72만의 두 배인 140만에 이르면서, 쌀 공급 과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장태평 장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태평 :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 우선 몇 가지 좀 알아보죠. 최근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 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 질병 근절과 농식품 검역에 대해 협의를 하셨다고요.

장태평 장관 : 최근 아시아 지역에 구제역이라든가 악성 가축 질병이 굉장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국 다자간 협정이 있는데 이런 데서 공조를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증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삼계탕, 유제품 등 이런 품목에 대해서 검역 기준 개선과 신



속한 수입 위험 평가 처리 등을 요청하고 실무적으로 신속하게 합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지명 : 네. 그리고 봄에 발생했던 구제역, 지금은 주춤합니다만, 피해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까.

장태평 장관 : 지금은 구제역이 종식됐다고 보고요. 그동안에는 1월과 4·5월에 발생됐었는데, 5만6천두 정도를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가 450농가에 이르고 우리의 재정 소요가 15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가 컸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축 질병 방역 체계를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한다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체계를 더 단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면허제라든가 가축 거래 상인 신고제도 등 축산 선진화 방안도 우리가 같이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홍지명 : 예. 최근에 한-미 FTA의 실무 협상 추진에 따라서 쇠고기 재협상이 있는 것이냐, 이런 관측이 분분한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장태평 장관 : 한-미 FTA 협정 안에는 쇠고기 개방과 관련된 문제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수입 위생 조건 상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과 관련해서 쇠고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에 대한 미국의 요청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해서 우리 협정 상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다른 변화됐다는 뚜렷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직 재검토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라는 이 문구가 사실 조금 애매한 문구 이지 않겠습니까.



장태평 장관 : 네. 애매한 문구이긴 하지만, 아직 우리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홍지명 : 이 문제는 잠시 후에 FTA 교섭대표를 통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캐나다 산 수입 쇠고기 협상이 오는 13일부터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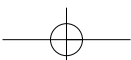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13-14일에 협의를 하자고 캐나다 측에서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BSE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사료 통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요구했는데요, 아직 그 요구 자료들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협의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 그럼 올해 안에 캐나다 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 이걸 좀 늦어지게 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태평 장관 :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협의를 해 보면, 협의 내용이 지금 캐나다에서도 우리 WTO 분쟁 절차가 계속 되는 경우에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측도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협의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협상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심의 절차가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연내에 될 수 있을지 안 될 지 아직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지명 : 알겠습니다. 모두에 소개한 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늘었다고요.

장태평 장관 : 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40만t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적정 재고량을 72만t으로 보기 때문에, 한 68만t 정도...





홍지명 : 두 배 수준이네요.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두 배 수준입니다.

홍지명 : 지금 쌀값은 어떻습니까.

장태평 장관 : 지금 쌀값은 80kg, 1가마 당 13만4천4백원 정도 됩니다.

홍지명 : 올 가을에 햅쌀이 출하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정부가 효율적인 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태평 장관 : 저희들이 우선 쌀의 재고가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수확하는 쌀이 평년작만 된다 하더라도 우선 재고부터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요. 지금 재고미가 2005년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묵은 쌀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용이나 전분용 등 이런 가공용으로 재고 처분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료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거부반응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2005년, 2006년 쌀 이런 옛날 묵은 쌀들은 주정용이나 전분용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사료용이 우리가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장 우리의 눈에 쌀 이외에 다른 작목들을 심어서 그것이 소득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발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눈에 콩이라든가 다른 소득 작목들을 재배할 때,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도 다른 작목들도 심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쌀을 소비 확대를 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산량의 5~6% 정도 밖에 가공을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4%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가공 산업 이쪽이 소비량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지명 :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고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를 확대한다,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방향인데, 사료용으로 묵은 쌀을 처분한다면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장태평 장관 : 지금 1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전체량은 35-6만t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우선 10여만t 정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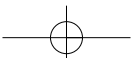
홍지명 : 아까 재정적인 이득 문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아무리 묵은 쌀이라 하더라도 쌀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특별한 작물인데, 보릿고개를 겪었던 국민들 마 음에 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문제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듯합니다.?

장태평 장관 : 그런데 그런 점보다는, 소라든가 돼지들을 기르면서 어떤 분들은 한약 채도 먹이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국민들이 먹는 쇠고기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품질이 높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사료를 먹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 그리고 또 하나 휴전선 이북의 북한 땅에는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문제, 이걸 어떻게습니까. 아직 정부 기조 에 특별한 변화는 없지요.

장태평 장관 : 네,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그것의 문제는 우선 남북 관계가 정상화 되 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쌀 재고 처리 문제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야 한다고 봅니다.

홍지명 : 예. 상황이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아프리카 등 빈곤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이미지나 또는 외교력 강화, 이런 것 은 어떻게습니까.?





장태평 장관 :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즉, 쌀 관세화 문제인데요. 우리가 관세로 해서 쌀 수입이 자유롭게 무역 조치가 되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아주 어렵고요. 아주 소규모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소규모 지원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홍지명 :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벼 재배 농지를 줄여야 할 텐데, 정부가 농지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장태평 장관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예를 들면 고령 농가라든가 아주 영세한 농가들이 탈농을 하고 싶어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농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정부가 사들이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 그럼 정부에서 사들이는 농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장태평 장관 : 사들이는 농지는 예를 들어 쌀 이외에 다른 품목을 재배하겠다는 데 우선적으로 임대 지원을 하는 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쌀 관세화 문제, 지금은 유예되어 있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인지.

장태평 장관 : 이게 1994년도에 처음 우리가 쌀을 개방해야 되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 대신에 1년에 약 2만 정도씩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라, 그래서 10년 동안 맺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에 또 우리가 쌀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신에, 다시 한 번 10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결과는 올해까지 33만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에, 쌀 관세화는 유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홍지명 : 그러니까 지금 수입량이 굉장히 늘었군요.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1년에 2만씩 늘어나니까요. 이것은 영원히 수입해야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2014년이 기한인데, 그 때까지 가게 되면 약 41만 정도를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로 가면 8만 정도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33만에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쌀 관세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부 농민단체 등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쌀을 개방할 수 없다, 또는 쌀을 개방하려면 쌀값을 더 높여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관세화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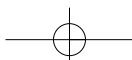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홍지명 : 자 그러면 지금 국내외 가격차를 상당부분 관세로 매겨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쌀 시장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봐야할 지, 조금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태평 장관 : 그런데 이런 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일부 단체나 농민 단체에서는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을 돌면서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관세로 갔을 때 이런 점이 유리하고 이런 점이 불리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런 거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쪽 나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비용이 더 훨씬 크게 지출될 수도 있는 분쟁 소지가 있어서, 아무튼 이것에 대한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서 설득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홍지명 :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장태평 장관 :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 지금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이었습니다.



KBS-1R 박태남의 집중인터뷰 전문 | 2010. 7. 27

농어촌 산업박람회

안녕하십니까 박태남입니다.

농어촌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르고 재배하는 1차산업에서 제품으로 가공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2차 3차산업으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촌의 변화과정을 또 미래 가능성과 함께 엿볼 수 있는 농어촌산업박람회가 열립니다.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초대해서 농어촌산업박람회 소식과 함께 장인정신을 통해 탄생한 고부가가치농업의 현주소와 육성 지원책 등을 들어봅니다.

또 취임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짚어보고 성과와 과제를 함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인터뷰가 주목한 이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입니다.

장태평 장관은 서울대 사회학과,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오리건대 대



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비서관, 소비자정책과장,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지냈고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올해 8월이면 농림수산식품부 취임 2주년을 맞게 됩니다.

MC박태남 : 안녕하세요?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장태평 장관 : 요즘 좀 덥네요.

MC박태남 : 워낙 많이 시찰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좀 다니시나요?

장태평 장관 : 예, 주말에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MC박태남 : 박람회 때문에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장태평 장관 : 예. 박람회 준비를 좀 잘해서 우리 농어촌, 농어민들의 소원이 잘 응축되게 도시민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엑스에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엽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실제로 일하고 있는 농어촌 지도자들도 같이 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을까 의논들 하면서 도시민들에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MC박태남 : 올해가 두 번째

장태평 장관 : 네, 두 번째입니다.



MC박태남 :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게 변하겠네요.

장태평 장관 :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MC박태남 : 어떤 것들이

장태평 장관 : 우선 규모면에서도 작년의 배 이상 커졌어요. 참여 기업들이 이번에 500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지역, 시, 군 단위 지역에서 참가하고 있는데 참여 시, 군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제별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주제들을 같이 전시도 하고 참여도 하고. 또 이번에 큰 특징은 그러한 농어촌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지도자들이 뭉쳐서 지도자 대회를 하게 되고,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게 큰 특징입니다.

MC박태남 : 사실 농어촌과 관련한 작은 소규모의 여러 가지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통합해서 큰 규모의 박람회가 2회째를 맞게 됐는데 이런 박람회는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박람회가 있나요?

장태평 장관 : 예. 이런 유형들이 외국에도 더러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보면 농업박람회로, 프랑스에서도 파리에 국제농업박람회 이런 식으로 개최하고 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지역별로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농어민들이 자기네가 생산한 물건을 직접 내놓고, 그런 자리에서 서로 어떻게 재배하고 사육하고 어떻게 가공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잘 선호하게 되나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서로 그런 기술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농어민들의 하나의 잔치도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MC박태남 : 요즘은 모든 것이 통합돼 가는 과정. 서로 통합해서 협력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분위긴데, 제가 앞서서 1차에서 2차, 3차로 간다고 잠시 말씀드렸습니
다만 뭔가 그런 계속 변화하는 모습 없이는 농촌도 앞으로 좀 살기 힘들다, 그런 얘기



들 많이 하는데요

장태평 장관 : 바로 보셨고요. 농어촌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자기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성화 내지는 제고시킬 수 있는 거죠. 농업도 마찬가지로. 1차산업에 머물러 있으면 부가가치 면에서 굉장히 작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가공하고, 말씀하신 대로 3차산업 서비스산업과 결합되고 다른 과학기술이랄까 이런 다른 산업과 접목된다면 부가가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득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손에 갈 것을 우리 농어민 손에 남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우리 농업이 다른 분야의 첨단기술, 첨단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2차 3차산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을 그래서 요즘 6차산업이다 이런 얘길 또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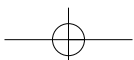
MC박태남 : 4차 5차도 아니고 왜 6차로 가는지

장태평 장관 : 1차산업 더하기 2차산업 더하기 3차산업 이래서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하기가 아니다 곱하기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런 시너지효과. 요즘이 컨버전스 시대니까 그런 모든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에 보태서 부가가치를 최대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MC박태남 : 그런 말씀하신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알기 쉽게 일반 국민들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산업박람회 아닌가.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MC박태남 : 그럼 이번 산업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까요?





장태평 장관 : 그래서 전시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안의 빵을 산업화하고 있거든요. 한 4,5년 전 불과 10억도 안 되는 매출이었는데 지금 800억이 넘습니다. 불과 4,5년 만에

MC박태남 : 무슨 비결이 있는 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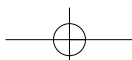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 그동안 빵이다 하면 누에고치... 누에를 길러서 고치를 만들고 거기서 비단을 뽑아 옷을 만드는,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기능성 식품도 만들고요. 또 더 나아가면 인공뼈를 만든다든가 인공고막을 만든다든가. 특수물질을 뽑아내 새로운 첨단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에선 예를 들자면 빵나무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가령 가까이에 비단 옷감이라든가 조금 더 나아가면 고기능성 식품이라든가 한 100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전시함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아 빵에서 이렇게 많은 소재가 나오고 산업이 발전될 수 있고 이런 걸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이 담겨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생산자한테도 보여주고 소비자한테도 보여주고 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올 겁니다 거기. 그럼 젊은 학생들에게도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박태남 : 거기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분들도 다 있는 겁니까?

장태평 장관 : 물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한 500여 개 기업과 담당자들이 자기네가 만든 것, 상품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MC박태남 : 그리고 요즘 보면 생명공학 쪽에 관심 많거든요. 이번에 생명산업이라는 공학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구경하고 얻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태평 장관 : 예.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산업 그것만 별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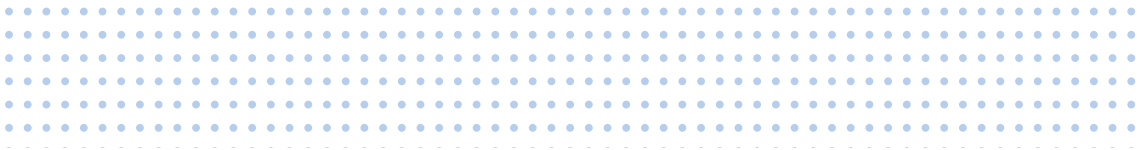


떼어서 생명산업대전을 했습니다 6월 말에. 그런데 생명산업의 개념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농업이나 어업이 1차산업으로 즉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만 개념이 됐었죠 주로. 그렇지만 산업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관상용 꽃이라든가 화훼산업이죠. 또는 애완용 동식물... 그런 것들의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점점.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보면 곤충산업.. 곤충은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그 곤충을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물질도 뽑아내고 곤충 자체가 보는 것, 또 실험 이런 데 사용하는 것.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곤충을 또 요즘은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에서 시설농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데는 농약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농부 문제나 친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런 데는 곤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법도 만들고 우리가. 미생물산업도 굉장히 큼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르트다 된장, 고추장, 김치, 막걸리 이런 것들은 모두 미생물과 관련되는데 이 미생물자원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식품산업을 하게 될 때 이 미생물산업이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MC박태남 : 발효식품이니 그런 게 거기 다 해당되는 거죠?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산업. 생명체를 가지고 산업화를 해서 돈을 벌고 기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모두 합해서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자원, 식물자원, 미생물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그 이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아까 말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옷이나 화장품 이런 것도 요즘은 그런 생물에서 나오는 게 더 고가품으로 명품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 것들의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명산업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명산업대전을 했는데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거기도 학자들이 와서 세미나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산업박람회에서도 이런 생명산업의 범위... 농업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졌다는 것도 함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박태남 : 그게 말하자면 요즘들 관심이 많은 유기농법이라든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쪽과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생명산업은 앞으로, 특히 이어령 선생님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생명산업자본주의가 될 거다. 생명자본주의로 바뀔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석유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산업사회.. 산업자본주의사회였는데 이걸 석유,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이었다면 그것뿐 아니라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명을 이렇게 기르고 공생하고, 거기서 생명이 갖고 있는 자연의 원리, 공학적 원리 이런 것들을 훑내내고 벤치마킹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걸 생명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게 녹색성장...

MC박태남 : 글썄요... 요즘 정말 뜻있는 젊은이들이, 말씀하신 화석연료에 의존한 지금까지의 개발모델보다는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박람회 가면 젊은이들이 힌트도 얻고, 뭔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구경거리가 많이 있는 건가요?

장태평 장관 :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번 또 박람회는 저희들이 조금 재밌게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농업이 이제는 이터테인먼트다. 이트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을 해서 그 뭔가 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요소, 가치요소가 개입되면 또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우리가 먹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도 예를 들자면 KBS2TV에 출연하고 있는 청춘불패 팀이 나와서 우리 박람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요. 또 유명한, 예를 들자면 빅토리아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수가 지금 멤버로 돼 있는 F(X) 의 공연도 준비돼 있고 텔런트 오지호씨도 참석해서 특별히 돼지고기와 관련이 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친숙하고 생활 속에서 이뤄지는 친숙한 박람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MC박태남 : 사실 지금 도시생활에서의 실업 문제도 그렇고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내가 좀 할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박람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태평 장관 : 네. 컨버전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술이나 산업 그런 것만 컨버전스가 아니고 저는 우리의 어떤 지적 능력을 결합하는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봐요. 가장 좋은 데가 저는 농어촌이라고 봅니다. 농어촌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일할 사람들... 그래서 농어촌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지적 경험을 가진 사람, 또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예를 들어 은퇴를 했다든가 또는 도시에서 1단계 마무리를 하고 인생의 이모작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고 봅니다. 지적 결합을 통해서 지역발전, 농업 산업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도시 중심, 다른 2차 3차산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던 분들이 우리 농어촌에 돌아온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처음에 욕심 부리지 않고 차분하게 봉사하고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그 외에도 저는 지금 농어촌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단계 일을 마치고 내가 인생 이모작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새로 출발해도 됩니다. 산업이나 직업이나 일자리로서 새롭게 새출발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MC박태남 : 저도 인생 이모작을 지금 생각해야 될 나이기 때문에 박람회 가서 꼭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장태평 장관 : 네. 오시면 저는 틀림없이 그런 좋은 발상도 갖게 되고 어떤 자신감,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비전도 같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MC박태남 : 지금 자신있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현장시찰이라든가 그동안의 경험을 다 종합해볼 때 틀림없다는, 장관님만 믿고 내려가야겠네요



장태평 장관 : 아 예. 그래서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농업이 미래산업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이 같이 있고, 우리 농업에도 식품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식품산업 자체가 향후 우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스위스에 네슬레라는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매출액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여 조 넘는 매출액인데, 이익 면에서는 삼성전자의 네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같은 매출액이면.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식품산업이 우리가 명품식품, 고기능성식품으로 한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시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MC박태남 : 장관님께서서는 트위터를 하시는 분으로 또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MC박태남 : 이번에 사실, 오늘 방송하는 것도 혹시 트위터에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장태평 장관 : 오면서 올렸습니다.

MC박태남 : 지금 팔로워는 많이 있습니까?

장태평 장관 : 한 1600명 좀 넘었습니다. 제가 지방을 다닌다든가 주말에는 많이 좀 올리고 서로, 저도 많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읽어보기도 합니다.

MC박태남 : 시집도 한 번 내셨죠?

장태평 장관 : 네. 냈습니다.

MC박태남 : 농립어업을 다 관장하시는 장관님께서 아무래도 자연과 그렇게 교감해서



야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태평 장관 : 저 나름대로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로 우리 농업, 식품산업, 이런 농촌정책 이런 것들이 국민과 자연과 함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국민과 자연과 함께를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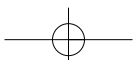
MC박태남 : 현장시찰도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8월이면 취임 2주년 되시는데 쪽 돌아 보시면 어떠세요?

장태평 장관 : 우리 농어촌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우리 농업, 농어촌이 굉장히 절망적이다, 너무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봐도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것들을 1,2등 5,6등 하듯이 우리 농업만 떼어놓고 본다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선진국 수준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우리가 다른 산업에서 1,2등 했듯이 농업에서도 충분히 1,2등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저는 농어촌 돌아다니면서 매번 그런 걸 느끼고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 보태고 한 번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날들이 빨리 오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우리가 농어촌 대표자회의도 같이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서 한 번 열정적으로 뛰어든다면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MC박태남 : 몇 분 정도가 이번에 대표자회의에...

장태평 장관 : 이번에는 한 400여 명이 참여할 것 같고요. 이번에 첫 대회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대회를 열면서 인원을 확장시켜 가려고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지역 지도자를 한 만 명 정도 육성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박태남 : 아까 네슬레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스위스



라는 나라가 환경이 썩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척박한 환경에서 그 정도 고부가가치... 참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것에 비하면 환경이 좋은 나라 아닙니까?

장태평 장관 :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스위스에서는 예를 들자면 커피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 가공품을 9억3천만 불 수출해요. 또 코코아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코코아 가공품... 초콜릿 얼마나 유명합니까 스위스. 그런데 그걸 9억2천만 불 수출해요. 그런 식으로 외국에서 나는 생명자원들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식품,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MC박태남 : 아마 그게 실질적으로 품질도 좋겠지만 왠지 스위스라고 하면 청정지역 같고 거기서 나오는 건 뭔가 깨끗하고 순수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미지도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장태평 장관 : 그런 이미지에 더해서 첨단기술이 발전돼 있죠. 우리나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식품으로 우리 브랜드를 삼으면 한식은 전통적으로 건강식품입니다. 발효 음식에 기초를 둔. 그래서 저는 외국을 다니면서도 보면 우리나라 거리에서는 그렇게 비만이 심한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다녀와서 저는 느낀 게 비만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우리 식품 자체가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을 소개한다고 하면 우리 한식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해서 수출도 굉장히 잘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30여억 불 수준에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동안 노력해서 작년엔 15%로 올려서 48억불 수출을 달성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일본이 우리보다 뒤져 있습니다. 한 45억불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까지 100억불 수출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100억 수출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 식품산업, 그리고 우리 농업, 어업기술이 상당히 발전돼야 됩니다. 그런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덜란드가 농업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농업선진국인 이유가 그런 탄탄한 농업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업들이우리 농어가에서 출발해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MC박태남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태평 장관 :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초대해서 농촌의 변화 과정과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농어촌산업박람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취임 2주년을 맞아서 농어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집중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중앙일보 | 2010.7.31

다가오는 '제4의 농업혁명' 물결

농어촌산업이 과거 먹을거리를 위한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생명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누에고치로 인공 고막을 만들고,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 무해(無害)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세계적인 농업의 추세도 '6차+ α 산업'을 향해가고 있다. 이는 생산 활동인 1차 산업에 2차(제조·가공), 3차(서비스) 산업과 BT(생명공학)와 NT(나노기술), GT(Green Technology·녹색기술) 등의 최첨단 과학기술을 결합한 농업이다.

그 첨단 농업의 현장이 공개됐다. 농어촌산업박람회 '메이드 인 그린페이'가 바로 '제4의 농업혁명'의 현장이다. 29일 개막해 8월 1일까지 열리는 박람회는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역 농·수·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품화 전략이 더해 관람객들이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우리 농촌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에는 '아그리젠토'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아그리젠토는 기원전 6세기 획기적인 토지 개간 방식을 개발해 농업 생산량을 극대화시켰고, 그로 인해 고대 그리스의 중심지가 된 곳이다. 우리는 농어촌박람회를 준비하며 전라북도 서쪽 끝의 작은 도시 부안과 경북 문경에서 국내판 '아그리젠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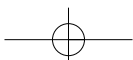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부안은 ‘입는 빵’ 재배에서 과실과 음료를 만드는 ‘먹는 빵’ 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성공해 지역 소득증대에 성공한 케이스다. 부안은 ‘산·학·연 오디빵클러스터’ 를 운영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지역 리더를 양성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했다. 이 결과 부안 빵은 2005년 45농가에 재배면적 60ha, 매출액 6억원이던 것이 농촌활력증진사업 시행 이후인 2009년 848농가가 재배면적을 360ha로 넓혔다. 매출액도 81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누에고치에서 단백질을 뽑아 투명한 필름 형태의 인공 고막을 연구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공 고막의 세계시장 규모는 25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0%만 대체해도 농가와 관련 업체의 수익은 급증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감귤에서는 인공 피부를, 유채에서 바이오 디젤을, 옥수수 전분에서 무해 플라스틱을, 오징어 먹물에서 염색약을 만들어 냈거나 연구가 진행 중이다. 말 그대로 첨단생명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우리만이 주목하는 사실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농업은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 앞에서 있다”고 했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은 나노공학·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다. 빌 게이츠 역시 “농업은 최상의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며 농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농업의 거대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리 농촌도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고기능성 물질을 추출하는 신약 소재, 기능성 식품, 신소재, 미생물, 생체 모방, 바이오 에너지 등 생명산업으로서 제4의 농업 혁명 물결을 이끌어내야 할 시기가.





IV

정책 설명회
강연회 · 간담회



GTB 강원민방 | 2009. 10. 30

정부, 수확기 쌀 수매 대폭 늘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GTB를 비롯한 전국 민영방송 보도국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정부와 민간의 수확기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34만톤 증가한 281만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소비촉진을 위해 밀가루 20만톤의 소비량을 쌀로 대체해 군대와 학교 급식 등에 우선 공급하고, 밥 먹는 식문화 확산시키는데 홍보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2009. 10. 30

“쌀값 안정시킬것”

정부가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주부터 올해 수확분 11만톤의 매입을 시작하는데 실제 생산량이 예상보다 더 늘
어나면 곧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승환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사들일 쌀은 모두 48만 톤입니다 공공비축미 37만톤과 추가 물량 11만톤
으로 지난해에 비해선, 8만톤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도 지난
해 보다 26만톤 많은, 233만톤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올해분 11만톤의 추가물량은 농가별 배정을 마치고 이번주부터 곧바로 매입에 나섭
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국의 민방 보도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
은 현황을 알리고,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태 평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나오더라도 소비촉진과 비축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격리와는 별도로 쌀의 소비를 늘리기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건빵의 쌀 함량을 늘리고 쌀로 만든 국수와 떡을 보급하는 방식으로 밀가루 소비를 10%줄이고 대신 쌀 20만톤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jtV뉴스 이승 환입니다.

TBC 대구방송 | 2009. 10. 31

예상량 초과 쌀 전량 수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예상수확량을 초과하는 벼를 모두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방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쌀시장 안정화대책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혁동기잡니다.

올해 전국적인 쌀 생산량은 46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16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지난 해보다 11.9%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쌀값하락이 농촌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달 초 쌀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추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방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올해 벼 수확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예상 초과물량을 전량 수거해 시장에서 격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태평 장관 /인터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생산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나오더라도 소비확대라든가.. 비축을 늘려서라도..
충분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6%인 쌀 가공비율을 2012년까지 10%로 올려 쌀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쌀가공비율을 일본과 같은 14% 까지 올리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공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다음 주부터 쌀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80kg짜리 쌀 한가마 값이 15만원으로 떨어지더라도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의 98.2%까지 보장이 된다며 홍수출하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농협의 신용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관해서는 현재 노조가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화와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

KNN 부산경남방송 | 2009. 10. 31

쌀소비 확대가 쌀값 안정

(앵커)

군대나 학교급식에 쌀국수 등 쌀가공식품이 확대 공급됩니다.

정부가 산지 쌀 값 안정화를 위해 쌀소비와 벼 매입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진재운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군인들이 먹는 건빵에 쌀 비율을 현행 13%에서 배 이상인 30%로 늘립니다.

이와함께 군대와 학교급식에 쌀국수와 떡 등 쌀가공제품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하면 쌀 소비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6만톤에서 20만톤을 소화할 수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어제 민영방송 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전체 쌀 생산량 가운데 가공식품 제조비율을 현행 6%에서 1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장관은 특히 산지 쌀값 대책으로 수매물량을 확대하고 2005년산 정부채고량 10만톤을 주정용으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주장하는 대복지원 법제화나 쌀생산비 확보와는 거리감이 많습니다.

(인터뷰)-남성민 부경농민회 사무처장(쌀) 목표치값 자체가 너무 낮다.
(정부는)17만원이고 우리(농민들은) 21만원을 요구한다. 생산비에 근거해서 (쌀값을)잡아줘야 하는데 (정부대책)이 그것도 아니다.

장장관은 이와함께 농협중앙회도 이익을 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과 경제 사업부분 개편으로 이원화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협의 수익구조를 개선해서 전문경영 시도”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구조개편안은 농협중앙회 안과 큰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농민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반영이 안된 상태여서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진재운입니다.

연합뉴스 | 2010. 1. 14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 설명 및 조기수습 협조(방역관계자, 농업인)

장태평 장관 "충분한 보상 이뤄지도록 노력"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0-01-14 12:57 | 최종수정 2010-01-14 13:32



답변하는 장태평 장관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현황보고를 받은 뒤 장소 사육 농가의 보상에 대한 불만에 답변하고 있다. <<지방기서 참조>> 2010.1.14 wyshik@yna.co.kr

포천 방역대책본부 방문..방역 최선, 농민 협조 당부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40분께 포천시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추가 발생이 없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장관은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특정 시.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다"며 "포천에서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경북일보 | 2010. 2.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 (안동지역 조합장)

장태평 장관 안동 방문

'농식품정책방향' 간담회

기사입력 | 2010-02-01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농수산 사랑방(방방곡곡) 운영 및 농업인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농업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농수산 사랑방(방방곡곡) 운영 및 농업인 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김종훈 녹색성장정책관은 '농식품정책방향 소통'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농업 정책을 설명하며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이어 송진구 교수의 '성공하는 농업인의 5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펼쳐졌다.

심용훈기자 simyh@kyongbuk.co.kr

뉴스시스 | 2010. 1. 20

아름다운 비전, 멋진식품 산업을 위한 안동 농어업인 간담회

안동서 '방방곡곡 농수산사랑방' 교육 실시

NEWSIS | 기사입력 2010-01-30 10:52

【안동=뉴스시스】 노창길 기자 = 경북 안동시(시장 김휘동)는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방방곡곡 농수산사랑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식품 정책방향 소통'이라는 주제로 김종훈 녹색성장정책관이 유익한 정책 설명과 송진구 교수의 '성공하는 농업인의 5가지 조건'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진다.

31일 열리는 이번 교육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간담회를 주재,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성공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 2010. 1. 27

신수협 운동방안 보고회(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수협운동' 전개

책면 내일신문 | 기사일력 2010-01-27 12:07 | 기사원문

[내일신문]

수협중앙회가 새로운 수협운동으로 거
듭나는 '신수협운동'을 벌인다.

수협중앙회는 26일 서울 노량진수산시
장에서 장대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에
게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2월 중 회원조합과
업종별 대표 조직, 어촌계 등이 모여 어업비용 절감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조업 중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인명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물고기를 모을 때 쓰는 집어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집
어등으로 교체하고 어선의 노후 기관 교체, 장비·시설 현대화 등도 지원하기로 했
다.

또 중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이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고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할 방안
도 찾기로 했다.

광고

친구들과[같이]뛰 달리기



연합뉴스 | 2010. 2. 4

설 성수품 공급확대 방안 설명 및 시장관계자 의견 청취(지동시장 관계자)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 확대"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0-02-04 14:43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설 성수품을 평소보다 최대 3배로 늘려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사과는 하루 평균 200t 공급하던 것을 300t으로 50% 늘리고 배는 150t에서 400t으로 167% 늘릴 계획이다.

또 쇠고기는 150%(480t→1천200t), 명태는 254%(320t→1천133t), 조기는 263%(200t→725t) 1일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설을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 지동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의 물가를 점검한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성수품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히고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KBS | 2010. 2. 6

지역통합 정부지원 방안 설명

청주청원 통합 관련 3개 장관 방문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행정구역 통합 작업을 위해, 3개 중앙부처 장관이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오늘 오전 충북도청에서 9개 장관 명의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문단은 청주와 청원이 통합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천 523억 원을 지원할 것이며, 청원지역에 4개 구청을 신설해 지역개발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으로 인한 청원군지역 주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의 군지역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농업과 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독자 시승격이 유리하다며 통합에 반대해 온 청원군의회는 회의 진행 방식 등을 이유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간담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지난 1994년과 2005년 두 차례 추진돼 주민투표까지 실시됐지만,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입력시간 2010.02.06 (13:11) 최종수정 2010.02.06 (14:07) 이승훈 기자

강릉MBC | 2010. 2. 27

황태산업 발전 방안 논의 및 의견 청취 (인제군 용대리 황태연합회 등)



작성자	최연호	방송일자	2010-02-27 오후 9:40:02	조회	99
내용	인제 용대리 황태축제 장관방문				

제12회 황태축제 이틀째 행사가 오늘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주말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축제현장을 방문한 장태평장관은 주민간담회를 갖고 국내의 명태 가공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러시아 현지 에 수산물 가공공장과 유통시설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태축제 이틀째인 오늘은 제 5회 전국 황태요리 경연대회가 열려 용대리 황태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황태의 맛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황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작성자 : MBC뉴스 최연호 기자

강원일보 | 2010. 3.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 (원주지역 조합장)

“러 수역 명태 쿼터 4만5,000톤 확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제 황태가공업자 등에게 밝혀

【인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황태의 원료가 되는 명태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0년간 명태 쿼터를 4만5,000톤으로 대폭 증대하는 등 황태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지난 27일 이강열 (사)인제용태연합회장을 비롯한 가공업자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또 러시아와 어획쿼터 확보를 토대로 명태산업을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오는 4월 수산물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조사단을 러시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발표한 농정 '비전 2020'에 따라 앞으로 수산업을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2020년까지 2,000곳으로 확대하고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 장관은 이날 제12회 황태축제가 열리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를 찾아 황태축제장과 덕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부산MBC | 2010. 3. 6

공동어시장 시설현대화 방안 논의 및 의견 청취(부산공동어시장 어업인)

부산MBC 뉴스
부산MBC뉴스 소식입니다

HOME>뉴스>부산MBC 뉴스

내용보기

제목 **장태평 장관 공동어시장 방문**

작성자 황재실

작성일 2010-03-06

장태평 농림수산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후 처음으로 부산공동어시장을 방문해 위판장 등을 둘러보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수산업계 인사들은 공동어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촉구하고, 수산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공동어시장 출자 5개 수협조합장과 중도매인 협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뉴시스 | 2010. 3. 6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 (김해, 양산지역조합장)

간담회 주재하는 장태평 농수식품부장관

NEWSIS 기사일력 2010-03-06 16:37



【김해=뉴시스】강정배 기자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기존의 틀을 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일 경남 김해시 농협김해시지부에서 가진 '경남지역 농협대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 자리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구도권 경남도농산국장, 정찬효 농협경남지역 부문부장, 박학규 하동축협조합장, 오홍석 하동횡천농협조합장, 조대권 영산농협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장 장관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 2010. 3. 6

진영 단감 명품화 전략 논의 (진영군 농업인)

장태평 장관, 경남지역 농협 조합장들과 간담회 가져

NEWSIS | 기사입력 2010-03-06 14:46



“농협구조개편은 농협 재탄생 위한 것” ... 일부 조합장 질문에 짜증내기도

【김해=뉴스IS】 장태평 기자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은 기존의 틀을 깨고 싶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일 오전 경남 김해시지부에서 가진 ‘경남지역 농협 대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구도관 경남도 농산국장, 정찬호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박학규 하동축협조합장, 오홍석 하동형천농협조합장, 조대권 영산농협조합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농협중앙회 구조개편과 관련, “이 안(농협 구조개편)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이번 농협 구조개편(안)은 농협의 사업 중 신용사업부분과 경제·유통사업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안이 통과되면 농협 신용부문은 농협은행으로 재탄생되며 농협은 채산성이 높은 경제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이 안은 농협중앙회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특히 장 장관은 “이번 농협 구조개편(안)이 상임위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에는 농협은 앞으로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농협은 앞으로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유통사업에만 집중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 중 일선 조합장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자본금과 보험 등 두가지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보험(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 일선 조합장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 농협경제는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며 분명하게 설명했다.

또한 장 장관은 농협중앙회의 부록 자금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자금 출연이 아닌 출자를 하게 될 것이며 출자를 해도 농협은 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농협 구조개편사업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장 장관은 농협 구조개편의 이유에 대해서는 “농협이 연 7000억 원 ~800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지난 해는 4400억 원이 발생하는 등 경차 수익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협중앙회가 20여 팀을 묶어 이 구조개편(안)을 위한 용역을 하게 되었다”고 참석한 조합장들에게 설명했다.

장 장관은 “농협 구조개편(안)은 농협이 재탄생할 수 있는 발전하는 사업이다. 이해해 달라”며 “농협 구조개편이 오는 4월 중에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합장을 의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장 장관은 일부 조합장들이 “농협이 신용과 경제를 분리할 경우 일선 조합장은 위기감을 느낀다. 지원사업이 소멸해 질 수 있다. 농협 구조개편 추진기관이 필요하다. 장기비전은 먹구름이 예상된다”는 등의 질의를 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과중스럽게 답변에 응하기도 했다.

한편 장 장관은 이날 경남지역 농협대의원 간담회에 이어 부산시 강서구의 한 토마토 농장을 방문한 뒤 김해시 진영읍을 방문, 300여명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르네상스’를 위하여 ‘한 주제로 혁신을 가져다’

도 장 장관은 김동관 경남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가 추진 중인 ‘농업테마파크’ 조성사업비 300억 원 중 국비 100억 원을 지원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료를 달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kjb@newsis.com

제민일보 | 2010. 3. 11

제주어업 발전방안 등 논의 (서귀포지역 수협장)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12일 내도

2010년 03월 11일 (목) 17:19:40

이창민 기자 ✉ lcm9806@paran.com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제주를 찾아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한다.

장 장관 등은 이날 도내 농식품 중소기업체를 찾아 기업의 경영·수출 및 시설현황 등을 파악하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애로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도내 잠수병 치료센터를 방문하고 안덕면 사계마을어장내 홍해삼 채취현장 등을 찾을 예정이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경남신문 | 2010. 3. 15

농업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설명 (함안, 의령 조합장)

장태평 장관, 함안·의령 시설채소 현장 방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함안군 대신면 수박 피해지역을 찾아 조진래 국회의원과 조영규 군수, 도의원 등과 애로점을 청취하고 있다. /배성호기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4일 함안·의령 시설채소 농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장관은 오전 10시 함안군청을 방문해 조영규 군수로부터 당면 농정현황을 보고받은 뒤 가야읍에 있는 변종호(60)씨 파프리카 농장과 수박하우스 주산지인 대신면 하기·장암리 일대 수박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농가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사진) 오후에는 의령의 수박 피해지역을 둘러보고, 함안·의령지역의 농협지부장과 농협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배성호기자

광주매일 | 2010. 3. 19

농업인과의 대화

광주매일신문

춘천 18.4°C 구름많음

[뉴스데스크](#)
[기획](#)
[특집](#)
[사설/칼럼](#)
[동영상/포토](#)
[독자마당](#)
[생활안내](#)
[PDF 지](#)

[탐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지역](#) | [지방자치](#) | [지구촌소식](#) | [사람들](#) | [TV/연예](#)

장태평 장관 오늘 전남 방문

입력날짜 : 2010. 03.19. 00:00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업 현장방문 및 수산업경영인 워크샵 특강을 위해 19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여수와 광양, 구례 등 전남지역 5개 시·군을 방문한다. 장 장관은 19일 여수에 도착, 여자만 고막양식장을 방문해 어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들은 뒤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수산업 어촌 르네상스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특강을 한후 광양 청매실농원으로 이동, 농업 현안 등에 대한 환담 등을 하고 1박을 한다. 이튿날 구례와 곡성, 화순 등을 차례로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상경할 예정이다./정성문기자 moon@kjdaily.com

/정성문기자 moon@kjdaily.com 정성문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뉴스시스 | 2010. 3. 19

농업, 농촌 르네상스를 위하여

장태평 농림부 장관 화순서 특강 ... "농업·농촌 르네상스를 위해"

기사등록 일시 [2010-03-21 06:54:05]

【광주=뉴스시스】 구길용 기자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전남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업·농촌 르네상스를 위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고 "농업인들이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이 날 오후 화순군 작목반별 농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특강에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심정으로 농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갖고 노력하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장 장관은 "우리 농업이 선진국 농정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고 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한다"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하고 자연 자원을 관리하며 농촌 활성화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현 정부의 농업·농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조직화·규모화, 생명산업 육성, 농어촌 복지향상, 통합형 지역개발, 수출 농업 육성 등이 골자다"며 "앞으로 정부 각종 복지정책은 농어촌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특강이 끝난 뒤 도곡면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을 방문,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형제농장 파프리카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상경했다.

kykoo1@newsis.com

모바일로 보는 뉴스시스: 7780 + NATE/매직엔/ez-i

매일신문 | 2010. 3. 27

일조 부족 피해현황 파악 및 건의 사항 청취

每日新聞

2010년 03월 27일 토요일 022면 사람과 세상

“이상저온 피해, 자연재해 수준 지원 검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성주·고령 농가 방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이상 저온과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 농작물 피해와 관련, “자연재해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성주 대가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월항면 용각리 참외재배 농가, 고령을 본관리 딸기 재배 농가를 잇따라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이상 저온에 일조량 부족까지 겹쳐 시설작물 농가의 피해가 이곳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선 피해 상황을 집계해 현행 제도 속에서 지원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미비한 제도를 고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지역 단체장의 재해지역 지정 요청에 대해서는 “일조량 부족에 의한 피해 사례는 처음으로, 농업재해에 의한 지원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지역별·농작물별로 피해 실태를 파악한 뒤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과 함께 피해 현장을 찾은 이인기 국회의원(성주, 고령, 칠곡)도 “3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았다”며 “피해 현황과 심각성을 국회차원에서 공론화시킨 뒤 정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농민들은 장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농작물 피해가 농촌의 파페로까지 물고 갈 수 있다며 정부의 ‘특단’을 요구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고령을 본관리 김범준씨 딸기농장을 찾아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딸기를 살펴보고 있다.

참외 농사를 짓는 박종문(57·성주 월항면)씨는 “30여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지원을 호소했고, 고령 유곡에서 수박 농사를 짓는 박규이(53)씨는 “정부가 생색을 지원에 거치지 말고 생산비라도 건져 내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게 현실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주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내일신문 | 2010. 4. 15

쌀 소비촉진 위한 정책 토론회

"쌀 소비촉진 위해 쌀 가공식품 품질 높여야", 국회 토론회

NEWSIS | 기사입력 2010-04-12 18:46 | 기사원문

【서울=뉴시스】민지형 인턴기자 = 국민 한 사람이 일년 간 소비하는 쌀의 양이 1996년 104.9kg에서 2008년 75.8kg으로 감소하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쌀 소비촉진 토론회'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쌀 가공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밥 문화의 왜곡도 쌀 소비부진의 중요한 원인이다"며 식문화에서 쌀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아침밥먹기 운동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의 유성엽 의원은 "쌀 가공산업 육성정책이 쌀 소비 진작을 위한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발언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쌀 소비 확대를 주문한 대통령의 인식과 차이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참여해 쌀 소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각 시·도·군의 전업농 회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쌀 소비 촉진에 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내일신문 | 2010. 4. 15

농어업, 농어촌 르네상스를 위하여 (전국마이스터 대학 교수, 학생 대상)

내일신문

2010년 04월 15일 목요일 016면 재정 금융

장태평 “농업마이스터제도 신설할 것”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전문 농업경영인의 능력 발전과 선도기술, 지식의 확산을 위해 '농업 마이스터 자격 제도'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전국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자 워크숍에

서 한 특강에서 농업 분야 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는 결국 우수한 인적 자원의 육성에서 판가름난다”며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농업마이스터 제도’가 정착되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제민일보 | 2010. 4. 14

말산업 발전 방안 논의(말사육농가)

말산업, 녹색레저로 육성한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15일 제주 말 생산 현장 방문
말산업 FTA시대 농어촌지역 경제활성화 기여 육성

2010년 04월 14일 (수) 14:31:55

김석주 기자 ✉ sjview68@hanmail.net

말 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경주마 사육 농장인 김호중씨의 송마목장을 방문한다.

장 장관은 말 목장을 둘러보며 경주마 생산농가의 경영 및 시설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제주지역 말 생산자, 마육 및 말 가공품 유통업체, 승마장 운영자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4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 자리에서 장태평 장관이 “말의 생산, 육성, 소비(레저, 관광)가 농어촌 중심으로 이뤄져 FTA 시대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도 하면 말의 메카이므로 제주도 말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말 산업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에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 장관은 “말 생산농가, 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말 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잡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강원일보 | 2010. 4. 19

복숭아 동해피해 현황 파악 및 농가 애로사항 청취(복숭아 재배농가)

장태평 장관, 원주 복숭아 동해(凍害) 농가 지원약속

현지 방문 피해상황 점검

재해보험 대상 포함 계획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원주지역 복숭아 과수농가들의 동해(凍害) 지원을 약속했다.

장 장관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진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난 17일 원주시 호저면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현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극심한 동해를 본 농민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장 장관은 겨울철 과수 동해를 농어업재해 관련 보험의 대상에 포함시켜 대파 비용, 농약 비용, 경영자금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재난복구비가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도 복숭아 재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친서



전국의 이장님, 통장님, 그리고 부녀회장에게 보내는 편지 | 2008. 8. 20

쌀 수확기 대책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1년 농사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올해 농사는 평년작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 피와 땀으로 이루어 내신 풍성한 결실입니다. 그러나 들녘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거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크실 줄 압니다.

정부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수확기에 쌀·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쌀은 지난해 보다 12.6% 늘어난 242만톤을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정부에서 매입합니다. 생산량의 50%이상을 매입해 수확기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공공비축미 매입시 우선지급금도 벼 40kg당 4만9천20원(1등급)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83원으로 동결, 쌀값이 하락해도 소



특이 최대한 보전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배는 과잉 생산된 물량 중 1만톤을 생산지에서 가공하거나 폐기하여 시장반입이 안 되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도 정확하겠습니다. 고랭지 무와 배추 3만 3천 톤을 산지에서 폐기합니다. 그 밖에도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로 가격안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수확기부터 '농기계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소유가 부담되는 농업인의 중고농기계를 농협에서 사서 농사지를 때 작업을 대행해 주거나 농업인에게 빌려 주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농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농기계로 인한 부채와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류와 비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어업 경영안정대책을 시행합니다. 유류가격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가격이 오른 화학비료 49종은 가격상승분의 80%를 정부와 농협 등이 부담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도 공급량과 보조금을 늘려 지원을 확대합니다. 농가의 사료구매 자금을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 '저농약인증'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을 폐지하지만, 이미 인증 받은 '저농약인증'은 2015년까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습니다. 이미 '저농약인증'을 받은 농가가 이 기간 동안 '유기농인증' 등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배 기술과 친환경 자재의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자가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바꿔 나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부당반품, 할인행사 강요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자원량에 적합하고 어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근해 어선 감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어용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융자 지원하고 영어자금 운용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이장님, 통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저는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어업인 여러분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는 ‘따뜻한 정책’의 바탕 위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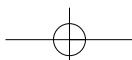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의 주인인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주인’이라는 주인 의식,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생산비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품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풍년농사를 이룬 기쁨이 농업인 여러분의 걱정과 시름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하게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수확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가을에 농어업인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에게 보내는 편지 | 2008. 10

쌀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애써서 일군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격 걱정으로 편치 않으실 텐데, 쌀 직불금 문제로 농업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쌀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아간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고 받아간 돈은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하게 직불금을 탄 사람들을 12월 말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올해 직불금도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비록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문제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쌀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



람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부적격 신청자 신고,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 등에 농업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쌀 직불금 문제로 현장의 농업인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께서 납득하실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공직자에게 보내는 편지 | 2009. 6. 1

농어업 선진화, 함께 일궈 나갑시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 공직자 여러분!

우선 농림수산정책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농어업 정책이 현장에 스며들게 하는 모세혈관입니다.

얼마전 부산에 내려가 어업지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인원은 부족하고 숙식도 변변치 못한데 기관실은 시끄럽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우리 바다와 어민들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 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산과 들, 바다 등 여러 현장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마음 든든합니다.

지난 5월 제주도에서는 가업을 잇는 농어업인 자제를 두 명 만났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은 부모가 일궈놓은 기반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젊은 생각으로 말입니다.

무려 56만㎡가 넘는 땅에 감자와 당근, 콩을 재배하고, 지하 암반층 공기로 냉방하는 냄새 없는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중국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농어업의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어가의 상당수는 연세가 많고, 경영 규모는 아직도 영세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러나 개방화 물결은 밀려오는데 여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농어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인 농어업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말입니다. 현재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농어업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농림수산공직자 여러분!

하지만 일부에서 농어업 선진화 방안 논의 과정에서 ‘보조금이 삭감된다, 가족농을 죽이고 기업농만 살린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운영한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먼저 농어업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보조금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보조금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보조금의 지원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비료 지원은 화학비료를 과다 사용하게 하여 지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유기질 비료지원이나 토양 검사 및 맞춤형 비료 지원비에 전환하면 생산성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일부 보조금은 불합리하거나 오히려 농업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조금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아울러 영세가족농과 고령농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는 농어가별로 소득안정제도를 시행하여 어떤 경우에도 소득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령농에 대한 복지 대책과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선진화위원회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가족농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규모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화위원회는 농어업인 대표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합의를 통해 운영합니다. 과제 선정도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어느 농업인이 인터넷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농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어업인이 “맞다”라고 할 때까지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농림수산공직자 여러분!

농협개혁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분리를 통해 농협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 즉 유통사업을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신용사업도 전문성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를 농업인을 위해 그리고 경제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부터 논의해 온 신경분리는 농협을 비롯해 정부, 농민단체 등이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농협의 사업분리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007년 1조3천억 원에서 3천여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농협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농민의 위기로 이어 집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경제지원사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신경분리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입



니다. 지난 3월31일 농협개혁위원회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농협중앙회, 현지 조합장, 학자 등이 참여해서 농협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농협개혁위원회의 신경분리방안을 기본으로 중앙회와 일선조합,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어업이 비약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저력을 바탕으로 도약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고 큰 폭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농어업·농어촌의 미래가, 농어업인의 행복이 우리 농림수산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농어업선진화와 농협개혁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접하는 농어업인의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시고, 우리 농어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모아져 제주의 농어업인 2세들과 같은 한국 농어업의 희망이 자라는 토양이 될 것입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농수산물 판매통진 서한 | 2009. 9

웃음이 묻어나는 행복한 선물 우리 농림수산물식품으로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장태평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웃음을 잃지 않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추석에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해인 수녀는 고맙다고 말하면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솟아오르고 더욱 순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추석 선물도 그런 마음을 담을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밝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이해인 수녀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의 일부-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는 추석에는 1천 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손에 든 선물이 이 땅에서 난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이라면 더욱 의미가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농자재값 인상,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
어업인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는 추석은 '고행길'도 즐겁게 합니다. 선물에도 마음을 담아야
더욱 빛나게 됩니다.

이번 추석도 가족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 · 통장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수확기 쌀 가격 안정

전국의 이장 · 통장님,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입니다.

어느덧 산과 들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쌀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오늘 직접 서한을 보내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이런 걱정과 불안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근심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며 수확기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금년도 생산량이 평년 수준(457만톤)보다 많을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잉여물량을 매입하여 격리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격리 물량은 생산량이 파악되면 이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 쌀 생산량이 468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 10만톤 이상을 격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정부 매입량은 공공비축미 37만톤을 포함해 47



만톤이 넘는 셈입니다.

둘째, 금년 수확기 매입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협과 민간 RPC의 매입량을 늘려서 전년도 247만톤보다 오히려 23만톤 더 많은 총 270만톤을 매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대폭 인하하는 한편, 쌀을 시장에 팔아 가격을 최종 정산하는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 공공비축 매입량이 작년 40만톤 보다 오히려 3만톤이 줄었음을 우려하시며 이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공공비축제는 수급안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WTO 규정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를 통해 과잉물량을 매입하여 격리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게 되면 효과는 공공비축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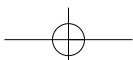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셋째,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풀지 않을 것이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난 8월에 사들인 10만톤의 물량도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쌀 재고를 감축시키고 일부 보관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보유쌀 10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겠습니다.

다섯째, 쌀면·쌀라면·떡볶이 등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서 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의 이장·통장님 여러분!

많은 농업인 여러분들이 쌀값 하락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쌀 생산량은 태풍이었던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량은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오히려 매입량은 작년보다 23만톤이 늘어 수확기에 270만톤을 시장격리하게 되므로 쌀값은 분명 안정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직불제라는 제2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홍수출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농사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추석선물 서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산적인 국정업무 중에도 우리 농어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통령의 중도실용과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본 방향에 따라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를 농식품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국민과 함께」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식품 산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고

「자연과 함께」는 흙, 물, 생명을 살리는 자연자원 관리를 통해 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녹색성장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대통령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의 맑은 물·기름진 철원평야에서 지은 유기농산물 오대쌀(햏쌀)과 가을 햇빛을 듬뿍 받은 과실을 보내드립니다.

풍성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대통령님 내외분과 가족 여러분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추석선물 서한

항상 우리 농어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도실용과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본 방향에 따라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를 농식품 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국민과 함께」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식품 산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고

「자연과 함께」는 흙, 물, 생명을 살리는 자연자원 관리를 통해 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녹색성장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의 맑은 물·기름진 철원평야에서 지은 유기농산물 오대쌀(햏쌀)과 가을 햇빛을 듬뿍 받은 과실을 보내드립니다.

풍성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총리님 내외분과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추석선물 서한

평소 국회를 운영하시면서 우리 농어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도실용과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본 방향에 따라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를 농식품 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국민과 함께」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식품 산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고

「자연과 함께」는 흙, 물, 생명을 살리는 자연자원 관리를 통해 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녹색성장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의 맑은 물·기름진 철원평야에서 지은 유기농산물 오대쌀(햏쌀)과 가을 햇빛을 듬뿍 받은 과실을 보내드립니다.

풍성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국회의장님 내외분과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추석선물 서한

평소 우리 농어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중도실용과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본 방향에 따라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를 농식품 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국민과 함께」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식품 산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고

「자연과 함께」는 흙, 물, 생명을 살리는 자연자원 관리를 통해 농어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녹색성장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비무장지대의 맑은 물·기름진 철원평야에서 지은 유기농산물 오대쌀(햏쌀)과 가을 햇빛을 듬뿍 받은 과실을 보내드립니다.

풍성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라며, 대법원장님 내외분과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농어업 · 농어촌을 사랑하는 분들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평소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를 농식품정책의 핵심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국민과 함께」는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식품 산업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국가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는 흙, 물, 생명을 살리는 자연자원 관리를 통해 농어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 녹색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직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림수산식품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 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께 보내는 편지 | 2009. 10

쌀 수급안정대책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입니다.

들판이 온통 황금색으로 출렁이는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역마다 풍년의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며, 아울러 시·도지사님과 시장·군수님께 서도 풍년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쌀농사는 지난해에 이어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얼굴에도 추석 보름달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바랍니다만 최근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말을 활용해 농업 현장을 방문해보면 쌀에 대한 농업인들의 걱정과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풍년이 들어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9월 29일 여당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금년도 생산량이 평년 수준(457만톤)보다 더 많을 경우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잉여물량을 매입하여 격리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격리 물량은



생산량이 과약되면 이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 쌀 생산량이 468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 10만톤 이상을 격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정부 매입량은 공공비축미 37만톤을 포함해 47만톤이 넘는 셈입니다.

둘째, 금년 수확기 매입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협과 민간 RPC의 매입량을 늘려서 전년도 247만톤보다 오히려 23만톤 더 많은 총 270만톤을 매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대폭 인하하는 한편, 쌀을 시장에 팔아 가격을 최종 정산하는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 공공비축 매입량이 작년 40만톤 보다 오히려 3만톤이 줄었음을 우려하시며 이를 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공공비축제는 수급안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WTO 규정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를 통해 과잉물량을 매입하여 격리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게 되면 효과는 공공비축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 비축미를 시장에 풀지 않을 것이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지난 8월에 사들인 10만톤의 물량도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쌀 재고를 감축시키고 일부 보관창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보유쌀 10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겠습니다.

다섯째, 쌀면·쌀라면·떡볶이 등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서 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쌀은 농민값이라는 말도 있고 정치재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쌀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고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



다.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습시다만, 농업인들과 농협조합장을 수시로 만나면서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널리 알려 주시고,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확기 매입량을 전년보다 늘림으로써 수확기 가격지지 효과가 확실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로 정부의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된다면 쌀값은 분명 안정될 것입니다. 정부도 풍년 농사를 이룬 기쁨이 걱정과 시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올 한해도 추진하고 계신 각종 시책을 잘 마무리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국군 지휘관에게 보내는 편지 | 2009. 12

쌀가공제품 소비촉진

국군 지휘관 여러분!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도 국가를 지키고 영토를 수호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와 우리 국민은 편안한 생활을 합니다. 저는 국군을 생각하면 가슴에 평안함부터 찾아옵니다.

올해 쌀농사는 대풍이었습니다. 가을 들녘 가득 황금빛 물결은 보는 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하지만 수요를 넘치게 생산된 쌀은 가격이 떨어져 농가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슬프게 합니다.

쌀은 생명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주식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뿌리입니다. 쌀은 건강입니다. 밀가루 보다 우리의 몸에 잘 맞고 영양 또한 우수합니다. 해외에서는 쌀을 이용한 다이어트도 등장했습니다.

이런 쌀이 다양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떡, 막걸리 등을 즐겨왔습니다. 최근에는 쌀로 만든 과자, 국수, 라면, 빵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이런 제품은 밀가루에게 내줬던 시장을 되찾고 농가의 시름을 해결하는 효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밀



가루시대에서 '쌀가루 전성시대' 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쌀 가공제품은 아직 생소합니다. 그러나 국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서 우리 농가와 농업인을 위해, 우리 쌀 산업을 위해, 가공제품 소비에 힘써 주셨습니다.

쌀은 먹는 것은 애국이고 고향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따뜻한 쌀라면과 쌀국수로 이겨 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보내는 편지 | 2010. 7

농어촌으로 떠나는 五感満足 여행으로의 초대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입니다.

평소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쉬게 해줄 우리의 고향, 농어촌에서의 여름휴가를 여러분께 권해 드립니다.

우리 농어촌은 자연의 여유와 배려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있는 훌륭한 쉼터이자 놀이터입니다.

갯벌에서 직접 캔 백합의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전북 합구마을, 한국의 장수 마을인 충북 구병아름 마을, 수많은 유적지가 남아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경북 개실마을 등 각양각색의 먹거리와 볼거리들을 갖춘 마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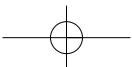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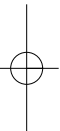
이미 지난해 3백만명 이상이 농어촌 체험마을을 방문하셨고, 지난 7월 1일부터 4일 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는 10만명이 넘는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어촌은 그 어떤 관광지보다 즐겁고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체험마을 종합정보사이트인 ‘웰촌포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절, 테마 등 취향에 따라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상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농어촌 방문은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정한 자연 외에도 우리 고유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농어촌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부는 농어업을 국부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12년까지 300개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불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VI

현장소통



2009.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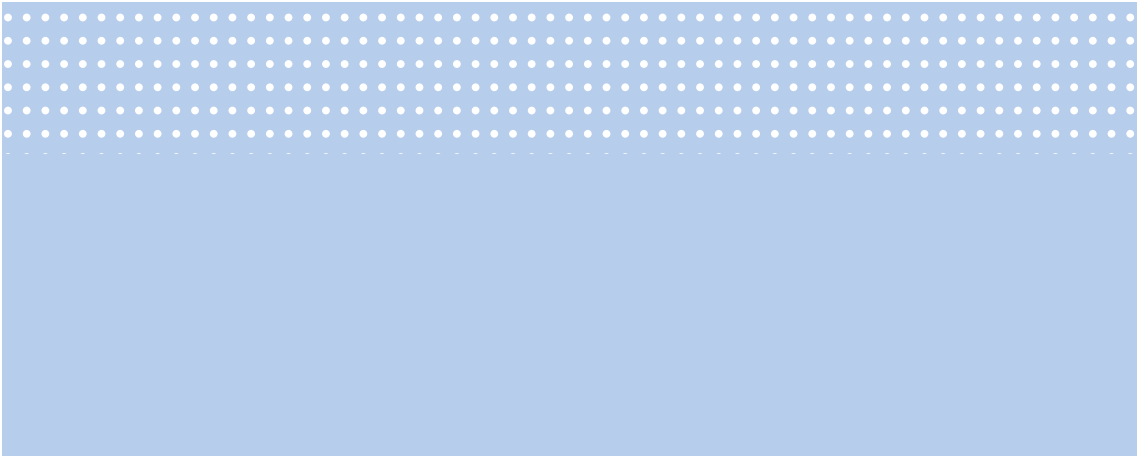
경상북도 방문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경상남북도를 방문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안동에서 열린 신지식농업인 연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스스로 생산한 명품들을 전시도 하구요....

안동이라 짧은 탈춤공연도 있었습니다. 준비가 잘 되었고, 기운이 넘치는 행사였습니다. 가는 길에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저지대의 비닐하우스가 침수피해를 많이 입었네요. 피해복구와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하였습니다.
우선 총리께서 울진에 오시는 길에 영덕, 청송, 영양군을 들르기로 되어 있어 저도 수



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덕의 어촌에서 어업인들과 야밤 간담회를 하고 일박 하였습니다. 어촌계에서 지은 숙소인데 잘 지었네요. 예쁜 사무장도 있답니다. 강관에 못이겨 붓글씨도 썼습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부끄러웠으나 어촌계장님의 권유와 치밀히 준비한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각 군의 사정을 설명 듣고, 건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히 청송군의 전통음식을 전수하는 두들마을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우리 집안인 장씨 할머니의 디미방이 이 마을에서 집필되어서 이마을의 뜻있는 여성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음식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네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친환경엑스포 개막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방행사지만 국제행사로서 손색이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울진원자력발전소도 둘러 볼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 때문에 외국보다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09. 7. 28

경상남도 방문

지난 주말 경상북도 방문에 이어 경상남도를 방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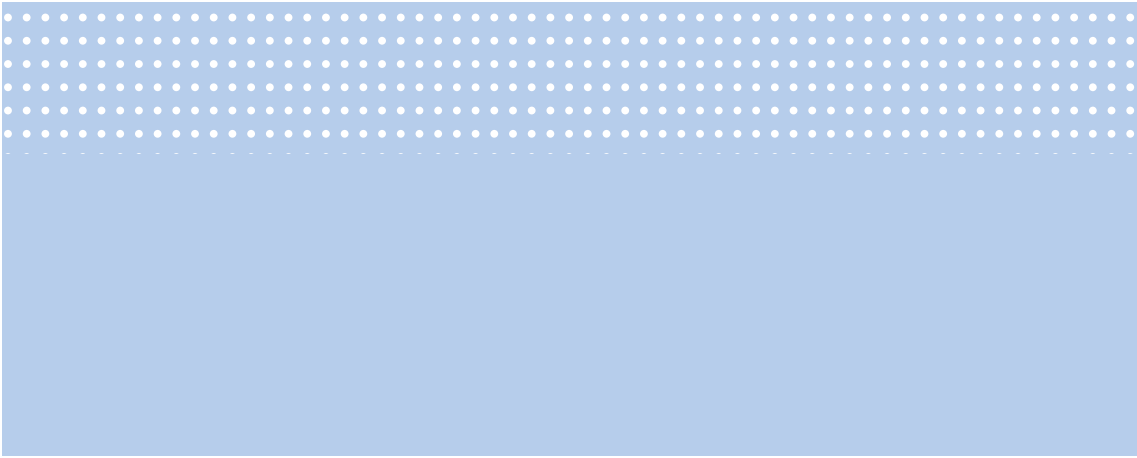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영주 풍기인삼조합원 분들을 만나 총리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는 길에 밤늦게 군위군의 김수환추기경 생가에 들렀습니다. 겸손하고 근검하게 살아오신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리님이 꼭 들르시겠다고 해서 방문스케줄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성주군의 참외 물류센터에 들렀습니다. 우리나라 참외 생산기술은 이제 세계적이 아닌가 합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나 선별에 많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 흐트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인력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경쟁력과 관련이 되지요.

고령군의 대가야박물관을 들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찾아온 초등학교 아이들과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대가야 박물관에서 느낀 것은 우리 문화가 보통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지요. 우리 문화의 진면목을 제대로 알아내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식식사는 거창 축한우를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쇠고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쇠고기는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데 홍보가 아직 그렇게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과 헤어져 저는 함양을 향해 산청으로 내려 갔습니다.
산청에 간 김에 한여농 장정옥 회장택을 방문했습니다. 가니, 군의 한농연 및 한여
농 간부님들이 모여 있어 간단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함양으로 와서 양돈장을 들렸습니다. 젊은 분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
식으로 양돈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층으로 된 양돈장은 깨끗하고, MSY 22두의 흑
돼지를 생산하는 경쟁력있는 양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팽이버섯을 생산하는 물래방아팽이버섯
공장을 들렸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시설로 운영되
는 공장이 든든한 우리 버섯산업을 자랑스레 보여
주었습니다. 제 오른 쪽으로 두번째 분이 천사령
함양군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올
리려 합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해병대 제2사단 | 2009. 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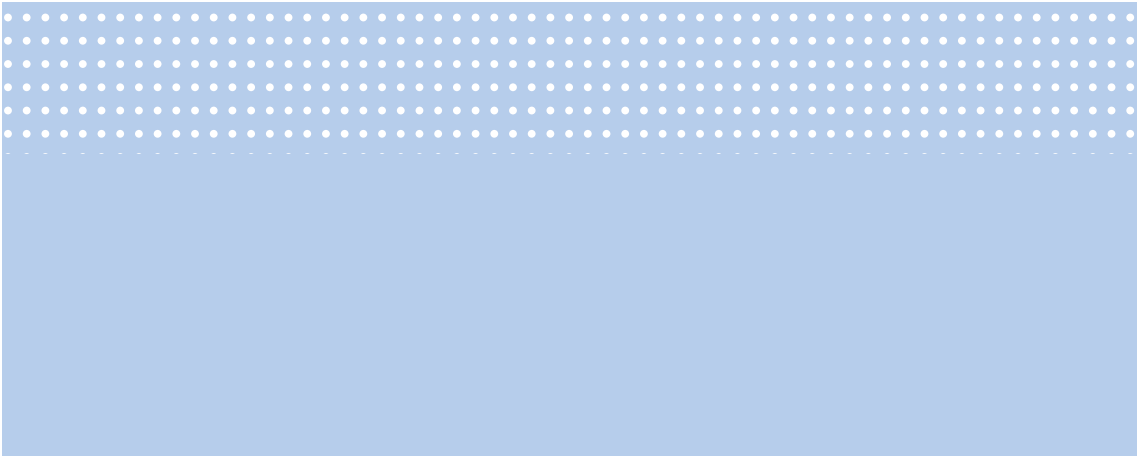
해병대 방문 쌀 제품 홍보



오늘은 쌀소비촉진 TV프로 촬영을 위해 해병대를 방문했습니다. 사단장 홍재성 소장이 제 커리커처를 준비했네요.

촬영하기 전에 장병들과 함께 사진 한장 찍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라면 등 박스는 쌀라면, 쌀국수, 쌀과자 등 쌀 가공품으로 장병들에게 주려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쌀가공식품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장병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제 군대시절이 생각났는데, 그때 저보다 훨씬 늙음하고 활기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촬영지를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병대, 파이팅! 우리 쌀, 파이팅을 구호로 외쳤습니다. 해병대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듯이 우리가 우리 쌀을 잘 지키겠습니다



2009. 8. 28

마을 사무장 워크숍과 보은군 아그로스쿨

이번 주말에는 일정이 많았습니다.

우선 8월 28일 금요일 오후에는 마을 사무장, 여성농업인센터장, 농어촌 사회적기업 대표 등 400여명이 모여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이분들의 역할 정립에 대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워크숍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역의 발전과 사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젊은 일꾼들입니다. 거의 봉사자 수준의 수당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지요.

그렇지만, 힘차게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2009. 9. 2

한여농 전국대회

9월 2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한여농 전국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진이 신통치 않아 며칠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몇장이라도 올립니다.

대회는 한여농의 힘을 펼치는 기가 살아 있었고, 우리 농어촌의 희망을 열어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여성 농업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 9. 20

한여농과의 진안 간담회

토요일 오후에는 진안군을 방문했습니다. 진안군에서 한여농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여농 임원들과 한여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비즈니스아카데미” 과정 출신 회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장소는 능길산골체험학교였습니다. 아래 보시듯이 벌써 범상치 않은 느낌을 주지 않나요?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정책설명이 있었고, 제가 참석한 이후에는 세 분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충남 아산 주원농원 장상희 님의 “농부아내의 꿈너머 꿈”. 유기농 9년째. 그동안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꿈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꿈을 꾀다는 말과 진인사대천명을 얘기했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인데 회비는 1년에 35만원, 그러나 혜택이 너무 많다고....농민들이 정보에 어두운 데 이를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여러 유통방식을 혼합하는 마케팅 포트폴리오와 가공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유통업체와 맞짱을 뜨겠다는 포부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두번째 발표는 강원도 철원 한빛농원 이윤희 님의 “1%차별화”였습니다.

페페로미아를 재배하여 농장을 키우고 있는데, 2006년 3월에 화재가 나서 10억원의 재산을 잃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잃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얻어야만 할 것도 많다”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매출해서 1억 2천만원의 이익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철저히 생산과 영업을 분석하고 경영혁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보통 벤치마킹할



때 좋은 길모습만 보기 쉬운데, 그 성공 뒤의 눈물과 땀을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과 패기가 있는 여성 농업CEO였습니다.

세번째는 전남 친환경교육원을 운영하는 “우리원”의 전양순님이었습니다. 정농회에서 남편(강대인님)도 만나고 30여년이 넘도록 유기농만을 고집해서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식품가공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고, 지구가 꿈꾸는 아름다운 먹을거리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분이 이번에 발표한 분들입니다. (왼쪽부터 전양순님, 장상희님, 저, 그리고 이윤희님)

감동적인 사례를 발표한 세분





들 감사합니다. 세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농업의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마침 이 체험학교 한 칸에 생명이 질긴 봉숭아가 피어 있네요. 이 봉숭아는 어떻게 이렇게 꽃을 피웠을까요? 조건이 좋은 흙에 돌아 있는 봉숭아가 부끄럽겠습니다. ㅎㅎㅎ 우리 강인한 농업인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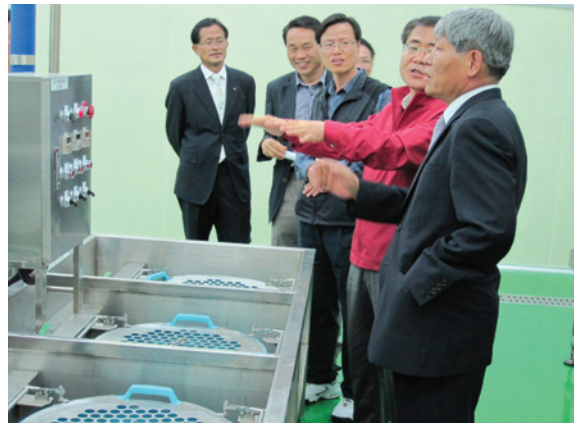
사례발표 후에 진안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갖가지 유기농 포도를 모아 시식회를 했습니다. 놀라운 발상과 놀라운 맛! 여기서도 감동했습니다.

2009. 9. 27

청원군 아그로스쿨

지난 일요일(9월27일)에는 청원군에서 아그로스쿨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김에 근처에서 오실 수 있는 조합장님들과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지요. 이 분들이 하나 같이 쌀대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로스쿨이 열리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서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들렀습니다. 지난 달에 출범을 했는데 제가 초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참 잘 지어진 최신 유통시설입니다.



2009. 11. 14

농업인의 날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흙과 함께 한다고 해서 한자로 흙토자 두개가 모인 날인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농업이 이제 좁은 우리 안에 갇히지 말고 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 나날이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2009. 10. 11

김제 방문과 지평선 축제

10월 10일 토요일에는 김제를 방문해서 농업인들 그리고 농협조합장님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쌀값안정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 밀 영농조합법인을 들렸습니다. 이재병 대표와 함께 회원 120명, 싸이로 저장능력 2천톤, 우리밀 찌빵 시설 연내 완공, 지금 500 ha 재배하지만, 2012년 까지는 1,200ha 경작할 예정이라 합니다. 외향이 우선 늘름합니다.

우리 밀로 가공한 여러가지 식품, 수입밀과 우선 맛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밀을 살려서 이렇게 웃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결의가 대단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2009. 11. 13

징검다리 서포터즈 위촉식



어제(11월 13일) 징검다리 서포터즈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서포터즈님들은 농업인들이십니다. 원래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어업인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 농업인 마흔일곱분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위촉식에는 서른아홉분이 오셨네요.

징검다리는 우리부가 운영하는 농어업 전문 메타블로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농어업인들과 소비자, 농어촌과 도시가 만나는 인터넷 다리가 되겠다고 해서 징검다리라 이름을 지었지요. 징검다리 서포터즈님들은 징검다리 블로그를 기반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소비자와 도시에 알리는 다리역할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2010. 6. 27

강화군 축산농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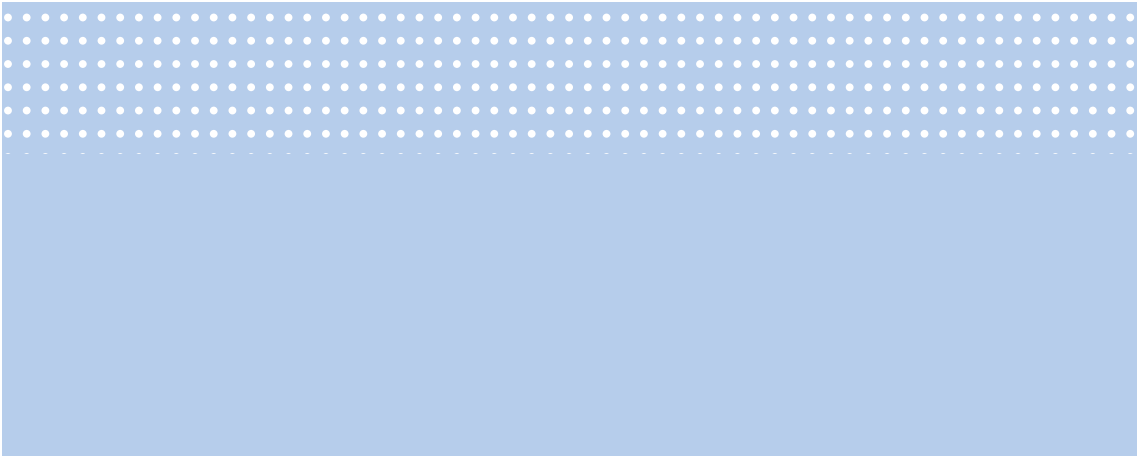


구제역으로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테지요.
 우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니 매몰지의 관리상태도 보고 싶었구요.
 보시는 것 처럼 잘 관리되고 있었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럼 축사는 비어 있습니다. 수리를 하고 소독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축산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2010. 6. 28

16강 기원 월드컵 응원 번개





연합뉴스 | 2009. 6. 4

장태평 장관 경북 청도 영농현장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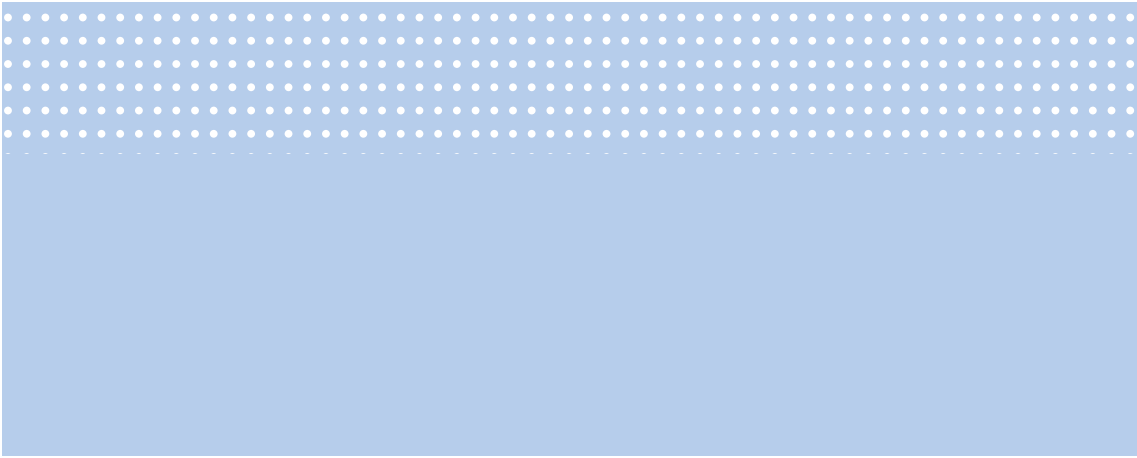
장태평 장관 경북 청도 영농현장 방문

기사입력 2009-06-04 17:59 | 최종수정 2009-06-04 19:17



'장태평 장관 영농현장 방문' (청도=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경북 청도의 팥이버섯농장인 대농농산을 방문해 가공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2009.6.4 <<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사 참고 >> haru@yna.co.kr

(청도=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경북 청도의 영농현장을 찾아 현안을 듣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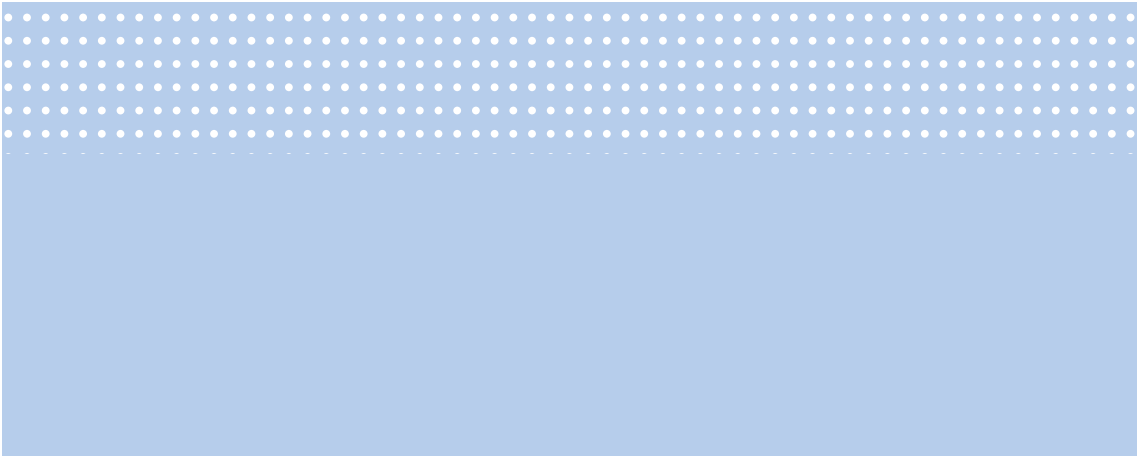
장 장관은 이날 오후 청도군 풍각면의 팽이버섯농장인 대흥농산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농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책 현안과 관련해 "요즘 보조금을 줄이고 영세농을 어렵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조금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지만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부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어 "농협을 바꾸는 것도 중앙에서 인사 등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조합장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인인 농민을 편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태평 장관 영농현장 방문' (청도=연합뉴스) 이승철 기자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경북 청도의 팽이버섯농장인 대흥농산을 방문해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2009.6.4 << 대구경북취재본부 기사 참고 >> haru@yna.co.kr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대량생산과 수출에 필수적인 저온저장창고 건립, 생산자와 판매자 간 단체인 농상협의체 조직, 농자재 가격 안정 등을 건의했고 장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장 장관은 "생산자단체 조직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지원도 단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면서 "농업인들이 생산자단체로 뭉치면 품질 표준화 등으로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장 장관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를 찾아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듣기도 했다.

장 장관은 이어 대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상경했다.

haru@yna.co.kr

<긴급속보 SMS 신청> <포토 매거진> <M-SPORTS>

충청매일 | 2009. 6. 4

장태평 장관 청원서 집수리 봉사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충북 청원지역에서 농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벌였다.



장 장관은 18일 오전 충북 청원군 미원면 구방3리(이장 박종두) 방촌마을을 찾아 충북지역 대학생 30여명과 함께 노후주택 8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관, 부업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장 장관의 방문은 지난 8일부터 다솜동지복지재단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건축학회가 주관한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충북대, 청주대, 극동대 학생 30여명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장 장관은 이날 윤영현 청원부군수를 비롯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농촌실정이 어려움만큼 다양한 농촌정책과 함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비롯해 농기계의 안정적 공급으로 농산물 가격의 장기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일신문 | 2009. 6. 5

장태평 장관 “농산물 품목단체 적극 지원”

每日新聞 imaeil.com

장태평 장관 “농산물 품목단체 적극 지원”

“생산자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유통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품목단체 조직을 중점 추진하고, 앞으로 정부 지원도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앞줄 중간)이 4일 청도 팽이버섯농장인 청도 풍각 대홍농산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과 애로를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팽이버섯농장인 청도 풍각 대홍농산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과 애로를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농산단체 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실제 유통이 결합되는 품목단체는 군-도-전국 단위로 뭉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청도반시도 세계적인 품목으로 가꾸어 볼 만한 상품이라며, 갈무리스트 등을 통해 고급감명품감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장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친환경농업 개발과 각종 제도개선, 농자재가격 안정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농협이나 지자체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의 정책현안과 관련 “요즘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오히려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을 바꾸는 것은 농민과 주인을 편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중앙에서 인사를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하며, 조합장 권한 집중을 이사회로 옮겨가고 경제사업도 바꿔보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수확에 필요한 버섯 배양시설과 종수출하 조절에 필요한 저온저장고 건설,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단체인 농산협의체 조직, 유통 물류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고, 장 장관은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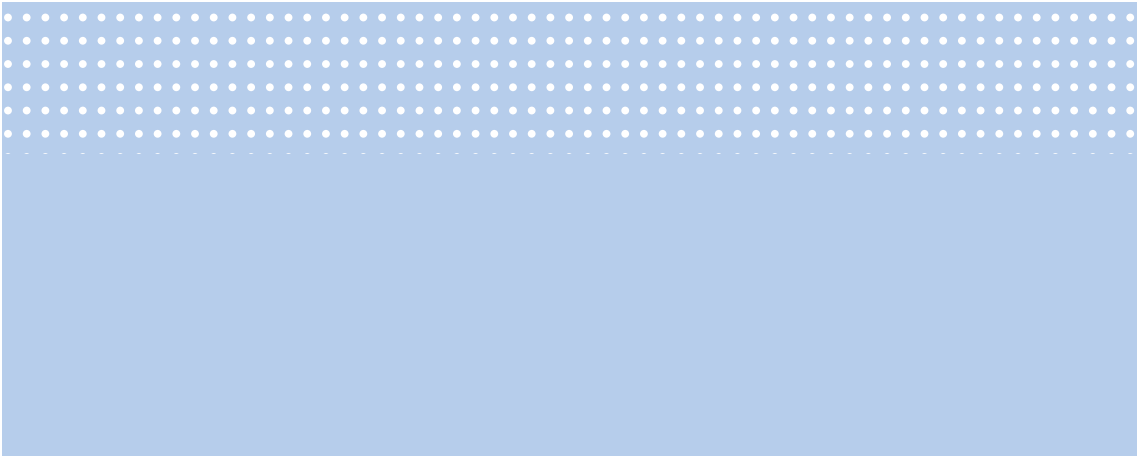
청도 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Copyrights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산자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유통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품목단체 조직을 중점 추진하고, 앞으로 정부 지원도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4일 팽이버섯농장인 청도 풍각 대홍농산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농업인의 의견과 애로를 청취하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농산단체 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실제 유통이 결합되는 품목단체는 군-도-전국 단위로 뭉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청도반시도



세계적인 품목으로 가꾸어 볼 만한 상품이라며, 감클러스트 등을 통해 고급감·명품 감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다.

장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친환경농약 개발과 각종 제도개선, 농자재가격 안정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농협이나 지자체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의 정책현안과 관련 “요즘 보조금을 줄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지는 것으로 오히려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협을 바꾸는 것은 농민과 주민을 편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중앙에서 인사를 좌지우지 하지 않아야 하며, 조합장 권한 집중을 이사회로 옮겨가고 경제사업도 바뀌 보자는 의미” 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인들은 수출에 필요한 버섯 배냉시설과 홍수출하 조절에 필요한 저온저장창고 건립,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단체인 농상협의체 조직, 유통 물류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고, 장 장관은 내용을 검토한 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경북일보 | 2009. 6.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북 농업현장 방문

경북일보
kyongbuk.co.kr
2009년 06월 05일 (금) 날짜 : 경주14/27C

뉴스 지역뉴스 스포츠 연예 사실 칼럼 특집 커뮤니티 사람들
특대란 | 정치 | 자치행정 | 국제 | 사회 | 경제 | 문화 | 속보

▶ 뉴스 > 사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북 농업현장 방문
청도군 폭염영농 경영 반대급 비 격려-지역농업인과 현장대학
기사입력 | 2009-06-05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4일 경북 지역의 영농시설과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어려운 시기 농업과 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청도군 풍각면 팽이버섯 생산농장인 대흥농산(대표 양항석)을 방문, 팽이버섯 생산시설을 둘러보면서 최근 홍콩, 중국 등지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팽이버섯 생산에 많은 관심을 표사했다.

이어 풍각면 송서리에서 벼, 사과, 대추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눈을 시범 영농교육장으로 운영하며 직접 영농기술을 가르치는 등 열심히 복합영농을 경영하고 있는 변태열씨 농장을 찾아가 변씨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감, 복숭아, 버섯 등 생산농업인과 감와인 등 농산물 가공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대학의 시간을 갖고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지역현장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 장관은 농업현장 방문 후 가진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발화,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에 대한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개발화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취임 후 여러 농어업 현장 방문을 하면서 우리 농어업이 극복할 수 있는 자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 바로 그 자력을 바탕으로 도약을 준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정부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 농어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며 "우리 모두가 미래의 변화 발전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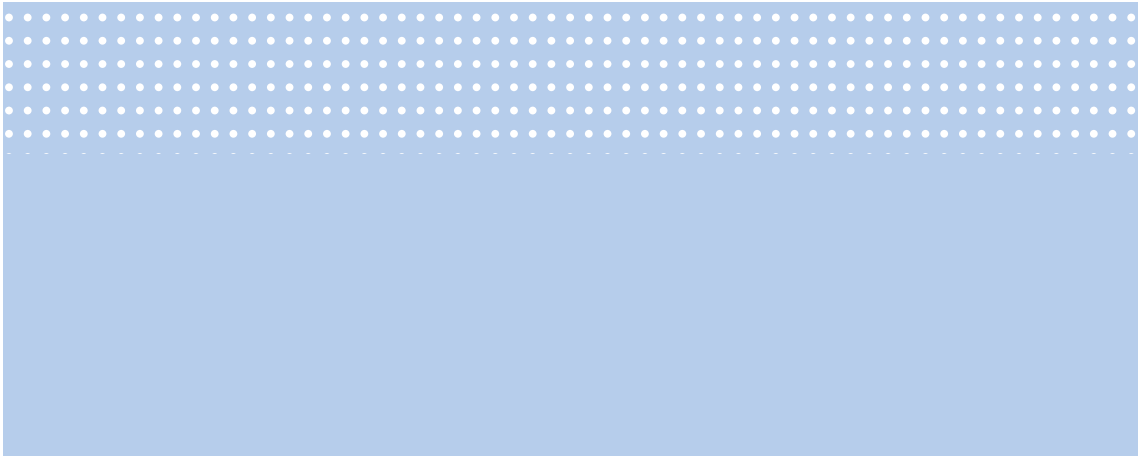
양승복 김경은기자 yang@kyongbuk.co.kr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4일 경북지역의 영농시설과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어려운 시기 농업과 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청도군 풍각면 팽이버섯 생산농장인 대흥농산(대표 양항석)을 방문, 팽이버섯 생산시설을 둘러보면서 최근 홍콩, 중국 등지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팽이버섯 생산에 많은 관심을 표사했다.

이어 풍각면 송서리에서 벼, 사과, 대추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눈을 시범 영농교육장으로 운영하며 직접 영농기술을 가르치는 등 열심히 복합영농을 경영하고 있는 변태열씨 농장을 찾아가 변씨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감, 복숭아, 버섯 등 생산농업인과 감와인 등 농산물 가공을 경영하고 있



는 농업인들과 함께 현장 대화의 시간을 갖고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지역현장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장 장관은 농업현장 방문 후 가진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방화, 세계적 경기 침체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역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개방화 등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취임 후 여러 농어업 현장 방문을 하면서 우리 농어업이 비약할 수 있는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지금 이 바로 그 저력을 바탕으로 도약을 준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정부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 농어업인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며 “우리 모두가 미래의 변화 발전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승복·김경곤기자 yang@kyongbuk.co.kr

환경일보 | 2009. 6. 9

장태평 장관, 평택 농정 현장방문

인터넷 **환경일보**

장태평 장관, 평택 농정 현장방문

2009년 06월 09일 14:22 환경일보 강은미 기자



【서울=환경일보】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소재의 블루베리 농장을 방문하고 평택시 농가대표(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지인 헬시농장(경기 평택시 팽성읍)에서 장 장관은 1700평 규모의 비가림시설, 관수관비시설, 저장시설 등을 둘러보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블루베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방문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장 장관은 “농정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가대표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정의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기자 webmaster@hkbs.co.kr

장태평(張太平)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6월 8일 경기도 평택 소재의 블루베리 농장을 방문하고 평택시 농가대표(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지인 헬시농장(경기 평택시 팽성읍)에서 張 장관은 1,700평 규모의 비가림 시설, 관수관비시설, 저장시설 등을 둘러보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블루베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장방문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張 장관은 “농정의 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가대표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농정의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 2009. 6. 12

블루베리 재배시설 시찰 간담회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일 경기도 팽택시 팽성읍 소재 헬시농장을 방문, 블루베리 재배시설 등을 둘러보고 팽택시 관내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농가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장 장관은 헬시농장의 비가림, 관수관비, 저장 시설 등을 둘러보면서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블루베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발굴,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영농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격려를 드린다"고 말하고 "영농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들과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광남일보 | 2009. 6. 14

장태평 장관, 담양 친환경농장 방문

광남일보

뉴스종합포 > 정치 > 전라남도

"농업선진화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기사입력 2009-06-14 17:28 | 김현수 cr2002@gwangnam.co.kr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 13일 전남 담양군 농업인과 대화서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지난 13일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농원을 찾아 친환경 농업 시설을 둘러본 뒤, 농업인 10여명과 대화를 나누며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전남지역 농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농업선진화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지난 13일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농원을 찾아 친환경 농업 시설을 둘러본 뒤, 농업인 10여명과 대화를 나누며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장 장관은 "전남은 친환경 위주로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과 만난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절감 대책 등을 정부가 신경 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장 장관은 "정부가 이같은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가지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과 함께 다양한 농업 지원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장 장관이 방문한 두리농원은 시설하우스 30채와 저온저장고, 체험교육관 등을 운영 중이며 15가지의 친환경 생채소를 생산해 일선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전남지역 농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농업선진화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지난 13일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농원을 찾아 친환경 농업 시설을 둘러본 뒤, 농업인 10여명과 대화를 나누며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장 장관은 "전남은 친환경 위주로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과 만난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난방비 절감 대책,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구



조 개선, △에너지 절감 대책 등을 정부가 신경 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장 장관은 “정부도 이같은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여러가지 친환경 농업과 관련돼 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과 함께 다양한 농업 지원책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장 장관이 방문한 두리농원은 시설하우스 30채와 저온저장고, 체험교육관 등을 운영 중이며 15가지의 친환경 쌈채소를 생산해 일선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무등일보 | 2009. 6. 15

장 장관, 담양 친환경 농장 방문



장 장관, 담양 친환경농장 방문

입력시간 : 2009. 06. 15. 00:00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담양군 친환경 농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장 장관은 이날 오후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농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농업인 10여 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직불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이 안

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벼 수확 후 농가들이 가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쌀 등 농산물 가공제도도 정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농업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농업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며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선진화"라고 강조한 뒤 "전남은 친환경 위주로 가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장 장관에게 정부보조금 지급 시기를 묻기도 하고 외래종이 많은 감자 종자를 국산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두리농원은 시설하우스 30채와 저온저장고, 체험교육관을 운영중이며, 15가지의 친환경 쌈채소를 생산, 학교 등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

장성=전일규기자 장성=전일규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남도일보 | 2009. 6. 15

“농업선진화 방안은 소득증대 정책”

남도일보

입력시간 : 2009. 06. 15. 00:00

“농업선진화 방안은 소득증대 정책”

장태평, 전남 방문...농민 애로사항 등 청취
친환경 농산물 가공 등 지원제도 재정비 약속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맨 왼쪽)이 지난 13일 오후 친환경 쌈채소 등을 생산하는 전남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농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농업 선진화방안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 장관은 지난 13일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농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농업인 10여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농가소득 안정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라면서 “농산물 가공제도 재정비 등 어려운 농가 소득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업 선진화 방안’은 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남은 친환경 위주로 가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 장관은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보조금 지급 시기 조정과 감자 종자 국산화 등 현 장애로사항을 청취했다.

YES TV | 2009. 6. 16

장태평 농수산장관 수북 친환경농업단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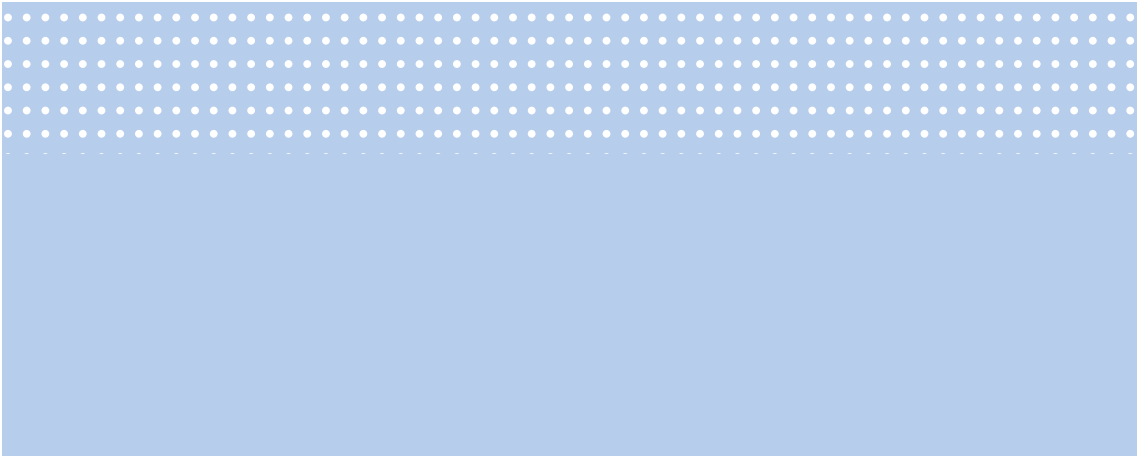
장태평 농수산 장관이 지난 13일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 담양을 전격 방문, 녹색농촌체험마을인 수북면 황금리 친환경 농업단지(두리영농조합법인)를 둘러보고 격려하는 한편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장 장관은 현지 농업인들과의 대화에서 “한미FTA 등 세계화, 개방화 기조 속에 우리 농축산 시장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친환경농업, 웰빙 농업에 집중하고 마

케팅을 잘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농업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직거래를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장관은 “지금 한창 논의중인 농업 개혁이 보조금을 축소하는데 목적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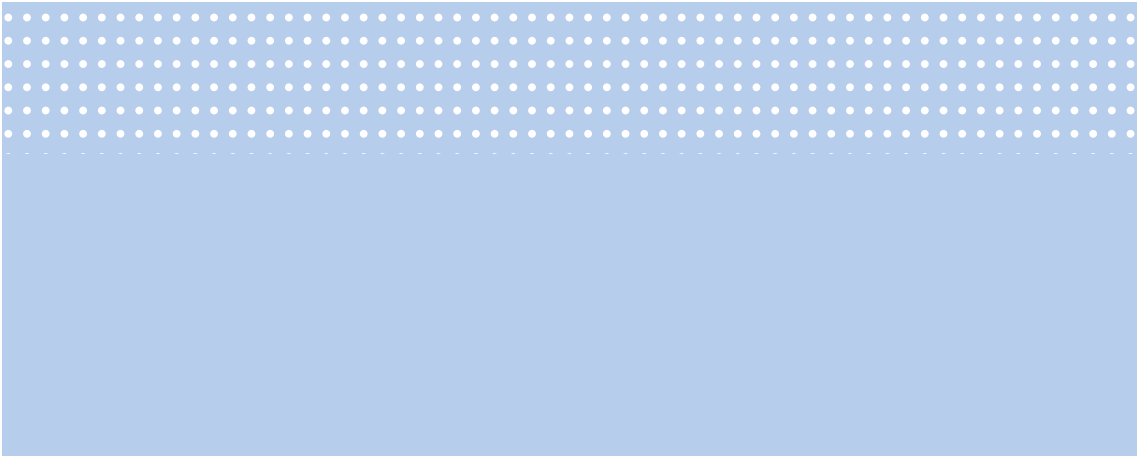
장 장관은 또 "농업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고 직거래를 통해 도농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장관은 "지금 한창 논의중인 농업 개혁이 보조금을 축소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 다만 보조금 속에 보면 개인 위주로 단순한 농업 보호를 위해서 낭비적이고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많은데 그런 보조금들을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쪽으로 변경시켜야 한다"며 "결국 보조금이라는게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잘 쓸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는게 아니다. 다만 보조금 속에 보면 개인 위주로 단순한 농업 보호를 위해서 낭비적이고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들이 많은데 그런 보조금들을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인프라에 투자하는 쪽으로 변경시키려 한다"며 "결국 보조금이라는게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 세금을 잘 쓸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주요 골자로 한 농협의 신경분리(信經分離)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한 장 장관은 ▷그린벨트지역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허가 요망 ▷시설원에 농가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유기농 과수농가에 대한 배려 ▷고령화 농가에 대한 농기계 저가 공급 배려 ▷농가 자생력 강화 방안 장구 등 농민들이 건의한 대부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특히 황금리 2구 김식 이장은 지역 현안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들의 차량소통 편의와 농산물 운반 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좁은 마을 진입로 1.5km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장 장관의 답방 방문에는 월산면 출신 전남도의 이당면 정무부지사와 담양 부군수를 역임한바 있는 임영주 농정국장이 배석했으며 담양군에서는 주영찬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 조재휘 농정과장 등 직원 및 수북면 친환경 농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석 記者

영주 시민신문 | 2009. 7. 4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우리고장 방문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6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우리고장을 방문했다.

장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27일 오후 8시부터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Agro-school 농수산 사랑방 운영의 간담회에 참석해 영주농업인들과 '아름다운 비전! 멋진 식품산업을 위한 방향' 이란 주제를 갖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농촌이 발전하고 민관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둘째날에는 영주시 과수시험장, 부석사, 소수서원, 향토기업인 (주)비트로시스, 소백코리아 등을 방문해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경영인들의 사기진작과 운영상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청취, 경영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농식품 산업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주지역의 농정현안사업인 친환경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의 국비사업 반영, 농정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건의해 영주 농업 농촌이 고품격 6차산업화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일보 | 2009. 7. 6

“영광에 보릿가루 식품공장 검토”

영광군에 보릿가루 식품산업 가공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보리 수요 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

5일 영광군을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군의 보릿가루 식품공장 건립 사업비의 국비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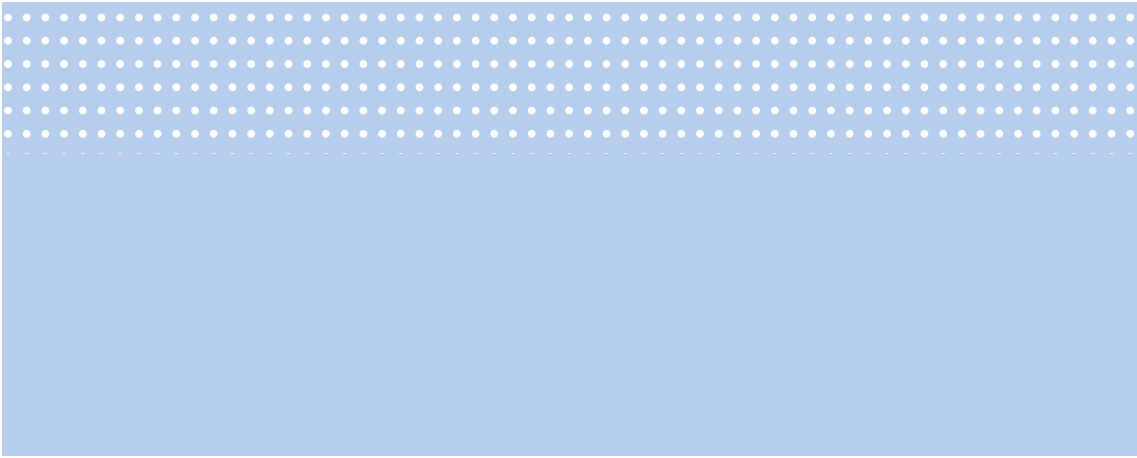
장 장관은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 대비와 경종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새로운 수요처 개발이 필요하고 곡물가 변동에 취약한 수입 밀가루에 비해 보릿가루 제품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설립하는 보릿가루 식품공장 사업비 가운데 8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식품공장이 설립되면 △발아보리를 이용한 고추장과 떡 △찰보릿가루를 활용한 빵과 호두과자 △보리 기능성물질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인 베타글로칸 쿠키 △보리 즉석죽 개발 등 보리사업의 다각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 보리산업의 정착으로 보리재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고용창출과 월동작물로 겨울철 녹색공간을 제공해 지구온난화도 예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320ha에 달하는 채종단지와 찰쌀보리를 비롯한 유색보리 등 다양한 보리품종 재배로 보리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에 보릿가루 식품공장 검토"

영광에 온 장태평 농수식품부 장관
밀가루 대체 이용식품 개발 등 수요 다변화 시급
장미 면역강화 천연시료 첨부제 공장설립 건의도

입력시간 : 2009. 07.06.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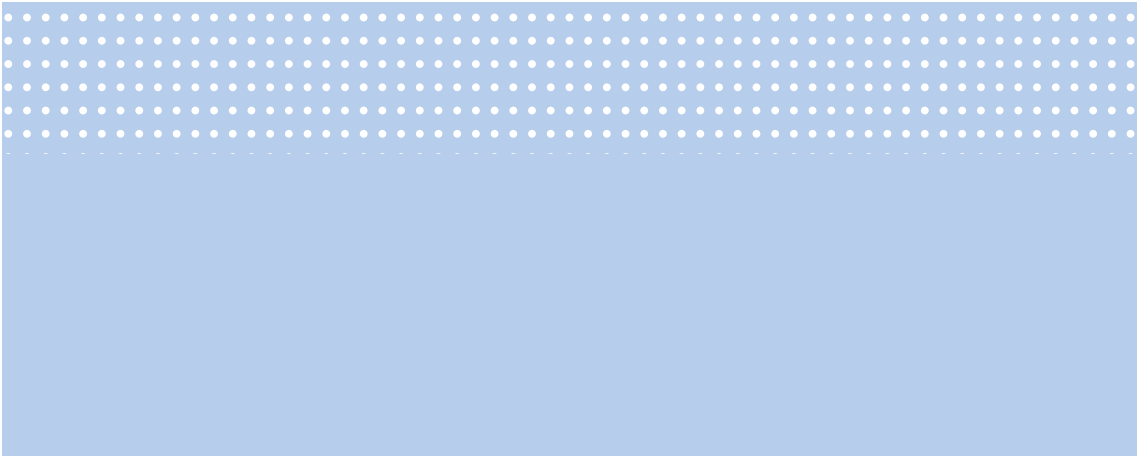
전남수산물기술사업소 영광지소가 대량양식에 성공한 참조기 치어 5만마리 방류행사가 4일 영산면 향화도항에서 장태평 농수식품부 장관, 이낙연 국회 농수식품부 위원장, 장기호 영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상근 기자

영광군에 보릿가루 식품산업 가공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 보리 수요 농가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

5일 영광군을 방문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군의 보릿가루 식품공장 건립 사업비의 국비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2012년 정부의 보리수매 중단 대비와 경종농가 소득보존을 위한 새로운 수요처 개발이 필요하고 곡물가 변동에 취약한 수입 밀가루에 비해 보릿가루 제품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설립하는 보릿가루 식품공장 사업비가운데 8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장 장관의 영광 방문은 지난 4, 5일 이틀간으로 민승규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등 농정최고책임자들이 동행했으며, 영광농협 종돈사업소(대마면), 청산양만장(범성면), 굴비 특품사업단(범성면), 청보리 발효 사료공장(영광읍), 찰보리 가공공장(군남면) 등 농수축산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애로 사항을 들었다.

전국 장어양식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영광 장어양만업자들은 '무항생제 양식을 위한 천연사료 첨가제 개발'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보고하고 천연 면역강화 사료 첨부제 공장 설립 지원을 장 장관에게 건의했다.

장 장관 일행은 이날 참조기 치어의 인공양식에 성공한 수산기술사업소 영광지소가 염산면 향화도 선착장에서 가진 5만미 방류 행사와 파프리카 315톤을 생산하며 15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염산면 시설채소 영농법인을 찾았다.

장 장관과 이 위원장은 또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청보리한우목장(범성면)에서 함께 숙박하며 한우 산업의 실태도 살펴봤다.

현장방문을 마친 장장관은 “영광군은 친환경으로 잘 가꿔져 있어 미래 농어업 산업에 밝다”며 “이번 영광 방문으로 농축어민들의 아픔을 보고 듣고 느껴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낙연 농수식품부 위원장은 “농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농수산업과 농어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수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상균 기자 skkim@jnilbo.com

광주 매일신문 | 2009. 7. 6

농업현장 찾은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 광주 매일신문

농업현장 찾은 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입력날짜 : 2009. 07.06. 00:00



장태평 농식품부장관과 이낙연 국회의원, 박준영 도지사가 4일 영광군 염산시설채소영농 법인을 방문해 파프리카 온실을 둘러보고 있다. 장태평 장관은 이틀간에 걸쳐 영광, 함평, 장성군 농수축산 현장을 방문해 농업인과 간담회도 가졌다. /전남도제공

헤럴드 경제 | 2009. 7. 17

“우리 농업 약하지 않다”

헤럴드

2009년 07월 17일 금요일 014면 종합 24.7 x 22.6 cm

한-EU FTA 후폭풍... '현장농정' 펼치는 장태평 농림부장관 동행취재

“우리 농업 약하지 않다” 氣살리기 분주

[예산·성연진 기자]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16일 오후 1시 충청남도 예산군을 찾았다. 농민 300여명을 만나기 위해서다. 청와대 보고 때문에 예산보다 늦게 도착한 그는 까나도 거른 채 농민부터 찾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최근 한·EU(유럽연합) FTA 체결 등 각종 무역 개방 조치로 농가에 큰 파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업정책 최고책임자의 방한은 농민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었다. 장 장관은 이날 현지 특산물을 둘러본 후 오후 일정을 마무리까지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저는 서산에 사는 최근학입니다.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최근 토마토 죽을 개발해 특허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시장 위생에 걸으니 판매장과 사무실, 정화 시설을 갖추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겠다고 하니 기운이 없다고 하네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빠르게 적어나가던 장 장관은 곧바로 “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기존 제도와 별도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다”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설득도 이어졌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농수산물도 소포장제를 도입해 전자상거래를 하는데, 1만 원 짜리 상품에 택배비가 3000~5000원이 붙으니 어렵습니다”라는 하소연에 그는 “택배비 문제가 늘 지적되는데, 사실 정부 지원은 어렵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



장태평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16일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지계를 지고 농민과 특산물 홍보사전을 찍고 있다.

[사진=농림수산물부]

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장 장관의 농민 간담회는 을들이 어섯 반백다. 함께 동행한 최정욱 농식품부 과장은 “지난 다섯 차례 간담회 중 나온 건의를 반영해 검토 중이거나 고친 정책만도 셋여 개”라며 “한 풀은 농민은 농가에 또래 젊은이가 없어 일할 의욕이 없다고 했는데, 장 장관과의 만남 후 달라졌다며 그 어머니와 아들 본인 이 함께 감사를 올린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충남 농민들은 지역 특산물의 홍보 권막을 마련하고 장관과 홍보 영상도 찍었다. 타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땀방에서 군벌로 마련한 한 부스 대어섯 곳을 돌아보는 데만 도 두 시간 넘게 걸렸지만, 장관은 개의없이 농민들과 어울렸다. 이날

청와대로... 논밭으로...
끼니 걸러가며 강행군

을 어섯 차례 농민 간담회
건의·수정된 정책 20여건

“경쟁력 키워야 삽니다”
어깨 힘빼고 농민 응원

참석한 한 농민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민들에게 장관과의 사진 한 장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현장에 내려온 ‘친농민’ 행보는 계속됐다. 장 장관의 간담회 대상 위에는 그 흔한 꽃 한송이 없었다. 그가 ‘차우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장 장관은 전남 우르라이나와 인도네시아 외교인사가 우리 농업 기술 이전을 요청하며 방문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농업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말로 간담회를 마쳤다. “김연아 박태환처럼 우리 농업도 1등을 할 수 있다.

1974년 18개월령 한우는 290kg이었지만, 지금 우리 한우는 568kg이다. 우리도 모르게 품종개량, 사

육기술, 유통관리가 발전한 것이다. 농업 생산성이 발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이날 장관이 농민과 함께 한 시간은 4시간 30분. 이민주 한국사이버 농업인 연합회 초대 회장 장은 “1999년부터 농민 단체에 있었지만, 전시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장관은 처음”이라며 “정말 고맙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17일 농산물을 팔기안정대책을 의제로 청와대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와 농식품부 모두 물기가 최근 안정세인 데다 농민과 시장이 반하는 물가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ysjung@herald.com

연합뉴스 | 2009. 7. 18

장태평 장관 “농어촌 주택개량 전폭 지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8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충북 청원군 미원면 방촌마을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20여명과 함께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하는 가운데 “농어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주택개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개량작업시 뚜렷한 표준모델이 없어 앞으로 표준모델을 수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봉사활동에 이어 가진 마을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농산물가격 안정과 사료비 지원 등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풀사료 생산을 지원하고 농기계은행을 체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행사는 다솜등지복지재단이 농식품부의 지원금과 회원 모금액 등을 재원으로 2007년부터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현실 기자(청주=연합뉴스)



부록

1. 장관님 주요 일정(농정일지)
2. 장관 취임 1주년 주요성과

농정일지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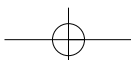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일 자	내용(장소)
08월 06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장관 이·취임식(청사 지하대강당)
08월 07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현장방문(안성)
08월 08일	농어민단체 간담회(대회의실) 오찬 : 농어민단체(산수갑산) 면담 : 노조간부 및 여직원회(402호 회의실) 식품·수출업체 및 소비자 단체 간담회(대회의실)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1급회의(장관실)
08월 09일	업무보고
08월 10일	업무보고 현장방문(이천)
08월 11일	한농연 전국대회(무주) 검역현장방문(용인) 1급회의(장관실)
08월 12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만찬(인왕실)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청와대 세종실)
08월 13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축산경영팀·동물방역팀 직원간담회(국무위원식당) 홍보실 직원간담회(402호 회의실) 업무보고(주무과장)
08월 14일	제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
08월 15일	63주년 광복절 행사(옛 중앙청 광장(경복궁 앞뜰))
08월 17일	수산현장방문(통영)
08월 18일	을지연습최초상황보고(전시상황실, 지하104호)
08월 19일	일일상황보고(전시상황실, 지하104호) 식품업체 CEO 간담회(팔레스 다봉) KREI 방문(KREI)
08월 20일	일일상황보고(전시상황실, 지하104호) 전통식품 명인지정서 수여식(장관실) 하나로마트 방문



08월 21일	일일상황보고(전시상황실, 지하 104호) 국회
08월 22일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7층 대회의실) 경북 영양 HOT 페스티벌(서울광장) 제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재정부 7층 대회의실)
08월 24일	현장방문(강원도)
08월 25일	KTV 경제 투데이 녹화(장관실) 새만금 비전 국제포럼(코엑스) 농식품유관학회 초청간담회(대회의실) 오찬(국무위원식당) 아주경제포럼(롯데호텔) 면담 : 중국 질검총국장(롯데호텔)
08월 26일	국회본회의(국회) 국무회의(중앙청사) YTN인터뷰(YTN)
08월 27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농어촌사업학회 메세지 작성 녹화
08월 28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B,H 세종실)
08월 29일	신활력사업 워크샵(부안) 100억불 수출실현을 위한 결의 대회(아산)
09월 01일	한.우루과이 정상회담(B,H) 정기국회 개원식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국회)
09월 02일	국무회의(재정부 8층 회의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09월 03일	국장회의(국회농림수산위 소회의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가락시장방문(가락시장)
09월 04일	국민농업포럼 초청 강연(세종호텔)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국산밀 공급 MOU 조인식(63빌딩 엘리제실)
09월 05일	임명장수여(김혜준 정책보좌관, 장관실) 국장회의(402호회의실) 예결위(국회)
09월 06일	추석물가 대비 축산물시장(부천축산물공판장)
09월 07일	장관 농촌속으로(충북)
09월 08일	무등일보 사진촬영(국회농림수산위원장실) 예결위(국회) 기자간담회 브리핑(기자실)



09월 09일	전직 장관 간담회(팔레스 중식당) 예결위(국회) 국무회의(청와대)
09월 10일	KBS 6시내고향 출연 곡물전쟁대처관련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임명장수여(유통공사이사)(장관실)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09월 11일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보고회(청와대) 농축수산물 직거래 큰장터 일일판매 행사
09월 12일	KBS 라디오 농수산 정책진단 불우이웃돕기(성남)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7층 회의실)
09월 16일	1급회의(장관실) 임명장 수여(농촌공사 사장)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장관실) 임명장수여(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09월 17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림수산물위원회(국회)
09월 18일	국립수산물과학원 방문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개장식(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순시 탐구 20호 취항식
09월 19일	농림수산물위원회(국회) 과장급 이상 워크숍(농업연수원) 연합뉴스 인터뷰(장관실) 임명장 수여(마사회장)(장관실) KOREA FOOD EXPO 추진위 회의(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09월 20일	과장급 이상 워크숍(농업연수원)
09월 22일	1급회의(장관실) 임명장수여(농촌공사.유통공사 비 상임이사)(장관실)
09월 23일	국무회의(청와대) 새만금코리아 창립총회(63빌딩)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09월 24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예결위 전체회의 농림수산물 과학기술대전(aT)
09월 25일	1급회의(장관실)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임명장수여(국.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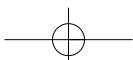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09월 26일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앞맞춤 전진대회(농협 안성교육원) 녹색성장 과제 점검회의(대회의실)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장관실)
09월 29일	전문지 기자간담회 당정협의(국회) 상임위(국회) KBS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녹음)
09월 30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촌진흥청 업무보고(농진청)
10월 01일	우리부-FOOD BANK 업무협약식 국감 업무보고서 검토회의(402호회의실)
10월 02일	제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농식품안전관리 홍보동영상 인터뷰(장관실) "서울대학교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개소식(서울대)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10월 03일	현장방문(김제,안동)
10월 04일	국감준비
10월 05일	국감준비
10월 06일	국정감사(대회의실) 국장회의(장관실)
10월 07일	국무회의(청와대) KREI 농촌경제동향보고(대회의실)
10월 08일	노조대표간담회(국무위원식당)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직원조회(지하대강당)
10월 09일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2008올지연습 중앙종합 강평회의(중앙청사)
10월 10일	KBS 세상의아침녹화(아침밥 대용식품식식)(국무위원식당) 내일신문 인터뷰(장관실) 전국 이장단 협의회대표(국무위원식당) 1급회의(국무위원식당)
10월 12일	Korea Food Expo 전야제
10월 13일	1급회의(장관실) Korea Food Expo 개막 퍼포먼스(aT센터) 접견 : 주네덜란드대사(접견실)
10월 14일	임명장 수여(이경일과장, 강인구 과장) 국무회의(중앙청사)
10월 15일	국장간담회(402호 회의실) 우리부 T/F운영 중간점검 보고회(대회의실)



10월 16일	2008 농식품 파워 브랜드전(aT센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한식세계화 선포식(aT센터)
10월 17일	G-마켓 MOU 체결(장관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차 본회의(청와대) 나라경제 인터뷰(장관실)
10월 18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10월 19일	러브미 마라톤대회(상암)
10월 20일	농민신문 인터뷰(장관실) 1급회의(장관실) 단체장 간담회(대회의실)
10월 21일	국무회의(청와대) 가뭄대책관련 관계장관회의(총리실)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7층 회의실) Korea Times 인터뷰(장관실)
10월 22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10월 23일	1급회의(장관실)
10월 24일	국정감사 국장회의(농해수위 소회의실) 배 직판행사(국회 앞)
10월 25일	현장방문(부천, 여주)
10월 27일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0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MBC 인터뷰(국회 소회의실) AI 기상방역훈련(청원)
10월 28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교섭단체 대표연설(한나라당)(국회) 제2녹색혁명 “Green Korea 운동” 발대식(한강서래섬)
10월 29일	“KBS 체험 삶의 현장” 현장녹화(해남)
10월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선진당)(국회)
10월 31일	고위 당정협의회(총리공관)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총리실)
11월 01일	한우의날행사(양재하나로클럽) 현장방문(보령) 제1회 한우의날 제정식(잠실 올림픽공원)
11월 02일	제14회 장관기테니스대회 시상 대정부질문대비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11월 03일	여성농업 CEO와의 간담회(대회의실) 접견 : 주한 미대사(접견실) 1급회의(장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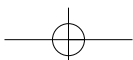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11월 04일	국무회의(1동 8층)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코엑스 아셈홀) 산하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1월 05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접견 :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등 농업장관(접견실)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전문가 간담회(대회의실)
11월 06일	대정부 질문(경제분야)(국회) KBS "체험삶의현장" 스튜디오녹화(KBS 방송국)
11월 07일	대정부 질문(경제분야)(국회) 국장회의(답변서 검토)(국회 소회의실)
11월 08일	KTV 영상메세지 녹화(장관실)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11월 09일	찰떡궁합, 가래떡데이(서울광장)
11월 10일	1급회의(장관실)
11월 11일	국무회의(청와대) 제13회 농업인의날 행사(농진청) 예산상임위(국회) 11월 12일 농업·농촌 활력화 한마음대회 영상메세지 녹화(장관실) 농촌공사 창립100주년 기념 노사 한마음 전진대회(영상메세지 녹화)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11월 13일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KBS 뉴스라인 출연(KBS) 브리핑(식품산업융합대책-기자실)
11월 14일	농림수산식품위(국회) 제주감귤 소비자 한마당(청계광장)
11월 17일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수습사무관 티타임(접견실)
11월 18일	국무회의(중앙청사)
11월 19일	국장회의(국회 소회의실) 예산결산 특별위(국회)
11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국회) 국장회의(국회 소회의실)
11월 21일	국장회의(국회 소회의실) 전통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자단 수출농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논산) 예산결산 특별위(국회)
11월 24일	경제여건 변화와 농수산 부문 대응전략 심포지움(농협 대강당) 농식품안전콜센터 현판식(714호) 독립공원 참배(서대문)



11월 25일	제3차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중앙청사) 쌀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국무회의(중앙청사)
11월 26일	국장회의(국회) 예산 결산특위(국회)
11월 27일	저탄소 녹색성장 동영상 녹화(장관실)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법률안 심사(국회)
11월 28일	제1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12월 01일	월례조회(지하 대강당) 한국식품연구원 업무보고(한식연)
12월 02일	국무회의(청와대) 임명장수여(식검소장 및 농가소득추진단장(장관실))
12월 03일	법사위(국회) 국가정보화비전선포식(중앙청사)
12월 04일	시도지사 회의(청와대 세종실) 한국농식품생명 조찬 세미나(롯데호텔)
12월 08일	농촌공사 100주년 기념식(농촌공사)
12월 09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면담 :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접견실) 통상관 임명장수여(장관실)
12월 10일	친환경대상 시상(마사회)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한-EU 산업협력의 날(그랜드하얏트호텔)
12월 11일	제1회 아시아 원예학대회(제주)
12월 12일	상임위(국회) 신동아 인터뷰(장관실) 국장회의(국회) 일요진단 녹화(KBS)
12월 14일	국장회의(402호)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청와대)
12월 16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경제상황 점검회의(청와대) 면담 : 미하원대표단(405호)
12월 17일	“제1기 녹색인재” 발대식(농촌진흥청)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세종문화회관 앞)
12월 18일	기자간담회
12월 19일	제16차 위기관리대책 회의(재정부) “농촌사랑” 특별대담(장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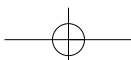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12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 “아름다운 배설” 출시기념행사(중소기업중앙회)
12월 23일	국무회의(중앙청사) 2008 농촌지역가꾸기 합동 시상식(농촌공사 인재개발원) 사회복지시설 방문(용산) 일자리 창출과 예산조기 집행 회의(대회의실)
12월 24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국군장병 위문(양양)
12월 25일	성탄절
12월 26일	1급회의(장관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 녹음(장관실)
12월 29일	1급회의(장관실) 음식나누기행사(로얄플라자호텔)
12월 30일	국무회의(청와대) 고품질쌀 시상식(3.4동 지하 대강당) K-TV 신년메세지(장관실)
12월 31일	독거노인 방문(의왕시) 1급회의(장관실) 종무식(과천청사 대강당)

2009년

일 자	내용(장소)
01월 01일	기축년 해맞이 행사(선유도 공원)
01월 02일	신년인사회(집무실)
	정부 시무식(중앙청사)
	시무식(대회의실)
01월 05일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1월 06일	국무회의
	농업인 신년인사회(농협 대강당)
01월 07일	1급회의(장관실)
	농민연합.농단협 신년교례회(마사회)
	농우회 정기총회
	전국수산인 신년인사회(수협중앙회)
01월 08일	축산인 신년교례회(마사회)
	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대회의실)
	1급회의(장관실)



01월 09일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청와대) 예산집행 특별 점검반 회의(대회의실)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실)
01월 10일	경제살리기 녹색희망선봉대 출정식(2동 하늘공원) 관악산 등반
01월 12일	고위당정협의회(총리공관) 임명장수여(국립식물검역원장, 장관실)
01월 13일	당정협의회(국회) 일자리 창출 채용 박람회(마사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01월 14일	KTV 힘내라 대한민국 인터뷰(장관실)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새만금위원회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회 회의(중앙청사)
01월 15일	1급회의(장관실) 유통공사 현장간담회(aT) 한국경제TV 인터뷰(장관실)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01월 19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설 물가 점검(수원 하나로 유통) 농어촌공사 현장간담회(농어촌공사) 임명장수여(대회의실) 농특위 본회의(농특위)
01월 20일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 녹음(장관실) 국무회의(청와대) 기자간담회(6층 회의실) 임명장수여(국장 및 부이사관) 농촌진흥청 현장간담회(원예연구소)
01월 21일	2009 농업전망대회(잠실롯데) 농어촌 다문화가족 설맞이 행사 공직기강 확립 및 소 직장교육(지하대강당)
01월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09년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중앙청사 9층 회의실)
01월 23일	복지시설방문(성남)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공관)
01월 28일	국무회의(중앙청사)
0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청와대) 수협 현장간담회(수협)
01월 30일	1급회의(장관실) 농협 현장간담회(농협경기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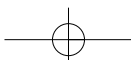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02월 02일	중앙일보 인터뷰(장관실) 1급회의(장관실) 농식품안전 자문단회의(대회의실)
02월 03일	국무회의(중앙청사) 한나라당 대표연설(국회) 특강(KRFI) 임명장 수여(수산인력개발원장 등)
02월 04일	한국마사회 현장간담회(마사회) “억대농업인” 육성 심포지엄 영상축사 녹화(장관실)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SBS-R “김민전의 SBS 전망대” 인터뷰 민주당 대표연설(국회)
02월 05일	선진창조 대표연설(국회)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중앙청사) 1급회의(장관실)
02월 06일	임명장 수여(대회의실)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대회의실)
02월 09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02월 10일	국무회의(중앙청사)
02월 11일	직원조희(지하대강당) 상임위(국회) PBC”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대담(명동)
02월 12일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국회)
02월 13일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포럼(팔레스호텔) 1급회의(장관실) 임명장 수여(국장, 장관실)
02월 14일	산지유통활성화 추진 워크샵 특강(대전)
02월 16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KTV 인터뷰(잠사회관)
02월 17일	국무회의(청와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02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제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재정부)
02월 19일	국장회의(농림수산식품위 소회의실) 농림수산식품위(국회)
02월 20일	SBS-R 김민전의 전망대 전화인터뷰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농업대학 졸업식(농업대학) 임명장수여(기획조정실장, 장관실)



02월 23일	노조 신입임원 면담(장관실) 글로벌코리아 2009 국제회의(롯데호텔) 임명장수여(수산실장, 장관실)
02월 24일	농림수산식품위(국회)
02월 25일	국무회의(청와대)
02월 26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 기념식(중앙회 강당) 한농연 시,군연합회장단 강의(천안 상록리조트)
02월 27일	제19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대회의실) 법제사법위원회(국회)
02월 28일	노조등산(청계산)
03월 01일	3.1절 기념행사(독립기념관)
03월 02일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가상체험관 방문(2동 1층)
03월 05일	공익캠페인CF 시사회(장관실) 국장회의(대회의실) 면담 : 헝가리 농업부장관(접견실) 삶의질향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영상회의실) 기자단 Tea Time(402호 회의실)
03월 06일	1급회의(장관실) 공익캠페인CF 최종시사회(장관실) 예산집행 특별점검회의(대회의실)
03월 09일	국장회의(대회의실) 아리랑TV 인터뷰(스튜디오)
03월 10일	국무회의(청와대) 러시아 수산청장(접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총리실)
03월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전화인터뷰 녹음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장관실) 전화인터뷰녹음 :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장관실) 수출탑 시상식 및 전진대회(코엑스)
03월 12일	농산업 포럼 축사(교육문화회관) 경희대 특강(수원) 1급회의(장관실)
03월 13일	1급회의(장관실) 25품목 워크숍(양평 kobaco)
03월 15일	14:00 ~ 18:00 국장회의(대회의실)
03월 16일	국장회의(대회의실) 인터뷰 : MBC 생방송 오늘아침(장관실)
03월 17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수과원.식검.수검 현장간담회(인천공항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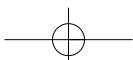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03월 18일	1급회의(장관실)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KTV 정책대담(KTV)
03월 19일	국장회의(장관실)
03월 20일	인터뷰 : BBS 김재원의 이침저널 면담 : 캐나다 농업·농식품부장관(402호 회의실)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국무위원식당)
03월 22일	국장급 brainstorming(대회의실)
03월 23일	당정협의회(의원회관) 선진화위원회 제1차 회의(aT센터)
03월 24일	국무회의(청와대)
03월 25일	봄철산불방지 및 숲 가꾸기 현장 보고회(강릉)
03월 26일	1급회의(장관실) 방글라데시 국경일행사(신라호텔) 매일경제 데스크 대담(농민신문사)
0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실 대회의실) 새만금산업단지 기공식(군산) 새만금위원회 회의(군산)
03월 28일	현장방문(천안 연암대학 귀농지원 센터) 신지식농업인회 총회 및 신지식농업인장 수여식(농업연수원)
03월 29일	떡볶이 산업 전시회(aT센터) 국장급 brainstorming(대회의실)
03월 3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기획계장 간담회(402호 회의실) 국무회의(총리실)
03월 31일	국장회의(대회의실) 농협양돈공동사업 출범식(하나로클럽)
04월 01일	본회의 산회직후 농림수산물위 수협중앙회 창립기념일행사(수협중앙회) 국무총리 추경시정연설(국회)
04월 02일	1급회의(장관실) 인터뷰 : bloomberg통신(장관실)
04월 03일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대회의실)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과의대화(국제회의실) 인터뷰 : YTN 글로벌 코리아(YTN)
04월 05일	제64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관악구청)
04월 06일	직원조회(지하대강당) 09년예산집행 특별점검반회의(대회의실) 1급회의(장관실)



04월 07일	국무회의(청와대) 한식세계화 국제심포지움(소공동 롯데호텔) 선진화위원회 워크숍(농업연수원)
04월 0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04월 09일	농업인 농외소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층)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개장식(경마공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04월 10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기자실) 경희대 특강(호텔관광대 컨벤션홀) 임명장수여(식품산업본부장) 및 1급회의(장관실)
04월 11일	현장방문(광주,나주,보성,여수)
04월 12일	현장방문(광주,나주,보성,여수)
04월 13일	국장회의(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상임위 추경예산안 상정.심의(국회)
04월 14일	동아일보 인터뷰(농민신문사) 국무회의(청와대) 제2회 서울 참외축제(청계광장)
04월 15일	과학기술위원회(대회의실) 투자로드쇼 홍보CF 촬영(접견실) 면담 : 카자흐스탄대사(접견실) 제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04월 16일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한식세계화 관련 토론회(국회)
04월 17일	예결위(국회) 국회 본회의(국회)
04월 18일	공공기관 선진화추진 점검 워크숍(중앙공무원교육원) 현장방문(금산·충주)
04월 19일	현장방문
04월 20일	예결위(국회) 농림수산식품위(국회)
04월 21일	국무회의(청와대) 어촌종합발전방안모색 국민 토론회(국회 현정기념관) 예결위(국회)
04월 22일	국장회의(국회) 농림수산식품위(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04월 23일	안면도 꽃 박람회 개막식(태안)
04월 24일	인터뷰 : 뉴데일리(장관실) BT활용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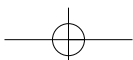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04월 26일	선농문화축제(동대문)
04월 27일	국장회의(대회의실)
04월 28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본회의(aT센터) 국회 미래전략 과학기술특위 업무보고(교과위 506호)
04월 29일	투자로드쇼(코엑스) 국회 본회의(국회) 위기관리대책회의(한국수출입은행)
04월 30일	국회 본회의(국회) MI 관계장관회의(중앙청사) 돼지고기 시식회(국회) 상임위 현안보고(국회)
05월 01일	어업지도 공무원 격려(부산)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05월 04일	한식세계화 추진단 출범식(한국관광공사 회의실) 어린이날행사 오픈 하우스(마사회) 1급회의(장관실) 전화인터뷰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장관실) 시·도 부단체장회의(대회의실)
05월 05일	어린이날
05월 06일	국무회의(중앙청사)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5월 07일	돼지고기 요리 경연대회(aT센터) 축산발전심포지움(마사회) 새만금 명소화사업 투자유치 설명회(코엑스)
05월 08일	1급회의(장관실) 세계떡박람회(aT센터) 식품기업 수출협의회(대회의실) 중소기업 업계대표 간담회(중소기업회관)
05월 09일	현장방문(제주)
05월 10일	현장방문(제주)
05월 11일	1급회의(장관실) 한국의버섯 품평회 및 심포지움(aT센터) "한국농공학회" 심포지움(aT 5층 대회의실)
05월 12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여수 EXPO 정부지원위원회(여수)
05월 13일	1급회의(장관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막식(킨텍스) 면담 : 주한 호주대사(접견실)



05월 14일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신·경분리 토론회(의원회관 대강당)
05월 15일	대한민국 요리경연대회(aT센터) 임명장 수여(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 연구부장, 장관실) 삶의질향상 실무대책위원회(대회의실) 제2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대회의실) 재정집행점검회의(대회의실)
05월 18일	1급회의(장관실) 27개 품목 담당자 회의(대회의실) 선진화위원회 간담회(소득안정)(장관실)
05월 19일	국무회의(청와대) 선진화위원회 간담회(미래성장)(장관실)
05월 21일	면담 : 뉴질랜드대사(aT센터) 국방대학원 강의(국방대학원) 국민농업포럼회(aT센터 중회의실)
05월 22일	1급회의(장관실) 선진화위원회 간담회(거버넌스)(장관실) 진안환경농업대학 축하메세지 촬영(장관실)
05월 23일	동아시아 식생활학회 추계 학술대회(경희대 청운관) 유통학회 심포지움(고려대내 LG·포스코경영관) Agro-School(홍천)
05월 24일	임시 국무회의(중앙청사)
05월 25일	한시적규제 관련 합동회의(중앙청사) 국무위원 합동조문(서울역사박물관) 선진화위원회 간담회(수산)(장관실) 전문지 기자간담회(대회의실)
05월 26일	국무회의(청와대) 재정전략회의(청와대)
05월 27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중앙청사) 한시적 규제관련 합동회의(중앙청사) 선진화위원회 간담회(기획)(다봉)
05월 28일	1급회의(장관실) 전화인터뷰 : KBS-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05월 29일	영결식 참석(경복궁)
05월 31일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연수 특별강의(용인 하이닉스 인재개발원)
06월 01일	임명장수여(김용렬 정책보좌관, 장관실)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6월 02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등 정책설명회(원내대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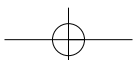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06월 03일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자택)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농업계 원로 간담회(팔레스호텔) 삶의질향상 본위원회(총리실) 한농연 이사회 치하(한농연회관)
06월 04일	지역언론 간담회(경북)
06월 05일	농업계 원로 간담회(팔레스호텔) 인터뷰 : 농수산정책진단(라디오)(KBS)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06월 06일	현충일 기념식(현충원)
06월 07일	본부 · 소속기관 국장급 워크숍(농업연수원)
06월 08일	임명장수여(수산과학원 생물산업부장)(장관실) 현장방문(평택)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청와대)
06월 09일	국무회의(청와대) 한국수산경영인대회(제주) 선진화위원회 간담회(경쟁력)
06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전통주 시음회격려(옥상 하늘공원) 인터뷰 : 헤럴드경제(장관실) 지역언론간담회(대전.충남)
06월 11일	농어촌산업박람회 시상식 및 축사(킨텍스) 인터뷰 :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북 삼복데이(경마공원) 헤럴드경제 추가인터뷰(접견실)
06월 12일	인터뷰 : imbc(접견실) 1급회의(장관실)
06월 13일	지역언론 간담회(전남 광주)
06월 15일	국장회의(대회의실)
06월 16일	국무:후 농기계 임대사업 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무:후 1급회의(장관실) 국무회의(중앙청사)
06월 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당정협의(의원회관 131호) 파프리카 페스티벌(청계광장)
06월 18일	1급회의(장관실) 직원조회(지하대강당) 지역언론 간담회(경기) 농산어촌 교육관련 토론회(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06월 1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실) 지역홍보관 회의(장관실)
06월 20일	소비안전국 워크숍 격려(화성)
06월 22일	국장회의(대회의실)
06월 23일	국무회의(청와대) 임명장수여(녹색성장정책관, 원양협력관, 장관실) 재정집행점검회의(대회의실)
06월 2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이력추적제 현장시찰(가락동, 양재동)
06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합동브리핑(재정부)
06월 26일	외식프랜차이즈 전시회(aT센터) 인천경영포럼 특강(인천 대한상공회의소) 녹색성장과 식생활교육 심포지움(aT센터)
06월 27일	산행: 식품CEO(관악산) 현장간담회(영주)
06월 29일	농협 창립48주년 기념식(농협) 도시락 국장회의(대회의실)
06월 30일	국무회의(청와대) 제13회 NAEK 심포지움(신라호텔 영빈관)
07월 01일	1급회의(장관실) 임명장수여 서울신문 인터뷰(장관실)
07월 02일	제3차 민관합동회의(대한상의) 코리아 헤럴드 인터뷰(장관실) 제7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재정부) 여름휴가 페스티벌 격려(aT센터)
07월 03일	1급회의(장관실)
07월 04일	현장방문(영광, 함평)
07월 05일	현장방문(영광, 함평)
07월 06일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7월 07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축산온실가스 APEC 국제워크숍(교육문화회관)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발대식(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07월 0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목재펠릿관련 시장,군수 연찬회(국립산림과학원)
07월 09일	목재펠릿 가공공장 방문(여주) 수의과학검역원 창립100주년 기념식(수과원) 1급회의(장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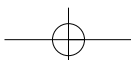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07월 10일	바다숲가꾸기 선포식(포항)
07월 11일	가락시장 시찰(가락시장) 고랭지 채소 현장방문(정선)
07월 13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한식세계화홍보대사 위촉식(대회의실) 명예장관 간담회(국무위원식당) 농식품 수출전략 연구회 종합보고회(대회의실)
07월 14일	국무회의(중앙청사) 1급회의(장관실) 기자 간담회(대회의실) 토론회-한국수산업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대회의실)
07월 1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말산업 육성법제정 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서울우유 영상메세지(접견실) 면담 : 인도네시아대사, 주지사(접견실)
07월 16일	충청남도전자상거래연합회 간담회(예산)
07월 17일	제한절 기념식(국회의사당 중앙홀) 선진화 워크숍(농업연수원)
07월 18일	노후주택 자원봉사 현장방문(청원)
07월 20일	국장회의(대회의실)
07월 21일	아시아경제 인터뷰(장관실) 국무회의(청와대)
07월 22일	1급회의(장관실) 기자 간담회(대회의실)
07월 23일	1급회의(장관실) 신지식농업인 전국대회(경북 안동)
07월 24일	친환경 농업엑스포(울진)
07월 25일	함양 산삼축제(함양)
07월 27일	국장회의(대회의실) 선진화 본위원회 기자 브리핑(대회의실)
07월 28일	휴게소 우리쌀 캠페인(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톨게이트) 국무회의(청와대) 1급회의(장관실)
07월 29일	을지연습 준비 보고회의(수방사)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07월 30일	인터뷰 : 시사저널(장관실)
07월 31일	인터뷰 : PBC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친환경 현장방문(고성)



08월 03일	국장회의(대회의실)
08월 04일	1급회의(장관실) 국무회의(중앙청사)
08월 05일	1급회의(장관실) 반크 MOU(장관실)
08월 06일	1급회의(장관실) 인터뷰 : KBS 정책진단(KBS)
08월 11일	속리산유통 강남매장 개장식(강남구청 옆) 국무회의(청와대) 국장회의(대회의실)
08월 1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08월 13일	기자브리핑(기자실)
08월 14일	인터뷰 : CBS 김현정입니다. 1급회의(장관실) 품목조직 · 연구회 합동 간담회(영상회의실) 농업경영진단 프로그램 진단 시연(402호 회의실)
08월 15일	광복절 행사(세종문화회관) 녹색성장 비전체험관 개관식(광화문 KT)
08월 16일	고속도로휴게소 농수축산물 판촉전(문막휴게소)
08월 17일	을지국무회의(청와대) 인터뷰 : MBN 뉴스2.0(MBN 스튜디오) 국무회의(청와대)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08월 18일	인터뷰 : SBS 전망대 국장급 아이디어 토론회(영상회의실) 일일상황보고(B-104호) 농과위 분과위원회추출 및 연석회의(교육문화회관) 전시주요 현안토의(B-104호)
08월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청와대 영빈관) 쌀가공품 소비촉진 해병대방문(김포) APC활성화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08월 20일	일일상황보고(B-104) 을지국무회의(B-1) 연습상황보고(B-1) 연습강평회의(B-104)
08월 21일	1급회의(장관실)
08월 23일	김대중 전대통령 영결식(국회)
08월 24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한식 Star Chef 양성과정 간담회(연세대) 녹색성장위원회(중앙청사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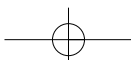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08월 25일	사과 소포장 경매제 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국무회의(청와대)
08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08월 27일	강원농업마이스터 대학 워크숍(강촌) 임명장 수여(장관실)
08월 28일	1급회의(장관실) 방방곡곡 아그로스쿨(보은) 농어촌마을 사무장대회(충주)
08월 29일	방방곡곡 아그로스쿨(나주)
08월 30일	방방곡곡 아그로스쿨(나주)
08월 31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약초산업 심포지움(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09월 01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정기국회 개회식 수출확대전략회의(aT센터)
09월 02일	1급회의(장관실) 인터뷰 : 시사오늘(장관실) 한여농 전국대회(보령)
09월 03일	1급회의(장관실) 해남 농업인 간담회(영상회의실)
09월 0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영양군 HOT 페스티벌(서울광장) 1급회의(장관실) 정운천장관 출판기념회(세종문화회관 세종홀)
09월 07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09월 08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지역경제살리기 한나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렉싱턴호텔)
09월 10일	2009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천안)
09월 11일	기자단 현장간담회(통영)
09월 12일	귀농의날 행사(천안 연암대) 아그로스쿨(서천)
09월 13일	안산 이오 농특산물 대축전(안산) 아그로스쿨(서천)
09월 14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09월 15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국장회의(농해수위 소회의실)
09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임명장수여 : 농림수산식품기획기술평가원장(장관실)



09월 17일	인삼축제 영상메세지 녹화(장관실) 매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매일경제12층)
09월 18일	국장회의(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전국 닭고기 · 계란요리 경연대회(63빌딩 체리홀)
09월 19일	여성농업인과의 농수산 사랑방(진안군) 현장방문(장수)
09월 21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인터뷰 녹음 : KBS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장관실) 인터뷰 : 한경비즈니스(장관실)
09월 22일	국무회의(중앙청사) 파이낸셜뉴스 인터뷰(접견실) 면담 : 칠레농업부장관(402호 회의실)
09월 23일	국장회의(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그린코리아 녹색성장 캠페인 발대식 리셉션(플라자호텔) 국회 서비스기준안 공청회(국회 소회의실)
09월 24일	전화인터뷰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09월 25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BYC 녹색성장 포럼(경북) 재래시장 방문(안동)
09월 26일	아그로스쿨(청원)
09월 27일	서산출장
09월 28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가락시장 방문 대일 돼지고기 첫 수출 선정 행사(제주)
09월 29일	기자단 브리핑(기자실)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KBS 뉴스라인(KBS) 분회의(국회) 분회의직후 상임위 현안보고(국회) YTN 경제와이드 인터뷰(장관실)
09월 3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불우시설방문(성남)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개원 기념식(기술기획평가원) 인터뷰 : 손석희의 시선집중 녹음 인터뷰 : SBS 라디오 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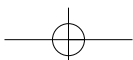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10월 01일	한국농수산대학 현판식(농수산대학) 쌀국수 사리 설령당 시식행사(종로) 비상계획관 임명장수여(장관실) KBS 농수산 정책진단(KBS)
10월 03일	개천절 경축식(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0월 05일	국감대비 1급회의(장관실)
10월 06일	국무회의(중앙청사)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인터뷰 : 농민신문(접견실) 농업인 서예가 붓글씨 전달식(장관실)
10월 07일	1급회의(장관실) 2009 을지연습 중앙종합강평회의(중앙청사 별관 3층) 농어촌 건축대상(코엑스 컨퍼런스룸 330호)
10월 08일	인터뷰 : YTN-R 출발새아침 친환경농업 심포지움(제주)
10월 0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아그로스쿨(정읍)
10월 10일	김제 지평선축제 및 아그로스쿨(김제)
10월 12일	인터뷰 : 아주경제(접견실)
10월 13일	국무회의(청와대) 중소기업대표 도시락 간담회(농어촌공사 대회의실) YTN 초대석 녹화(YTN)
10월 14일	제2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통계위원회(재정부)
10월 15일	1급회의(장관실) 한식세계화 추진단회의(aT센터) 농민단체 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회(농업연수원)
10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대회의실) 제3차 녹색성장협의회의(대회의실)
10월 19일	월례조회(지하 대강당) HACCP 기준원장 임명장 수여식(장관실) 순천농협 종합타운건립 축하 영상메세지(장관실)
10월 20일	국장회의(상임위 소회의실) 국정감사(국회)
10월 21일	국정감사(국회) 국장회의(상임위 소회의실)
10월 22일	1급회의(장관실)
10월 23일	국장회의(상임위 소회의실) 종합국정감사(국회)



10월 24일	B·H 어린이 Blog 기자단 현장방문 취재
10월 26일	전국 이통장 협의회 워크숍(천안)
10월 27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aT센터) 국무회의(중앙청사) 인터뷰 : 코리아 타임즈(장관실) 서울대 농생대 비전선포식 후원의밤(노보텔 엠버서더)
10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면담 : 호주 통상장관(하얏트호텔) 2009년 농식품생명과학 심포지움(프레스센터 20층)
10월 29일	인터뷰 : 서울경제(접견실) 1급회의(장관실)
10월 3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11월 02일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인터뷰 : KBS-1R 홍지명입니다 1급회의(장관실) 한우의날 행사(교육문화회관) 과장급 전략대회(국제회의실-후생동)
11월 03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월 04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창립기념식(aT센터 대회의실) 면담 : 주한 프랑스대사(접견실)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월 05일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하얏트 호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청와대)
11월 06일	1급회의(장관실)
11월 07일	한과 문화페스티벌(남산한옥마을)
11월 08일	현장방문(경기 광주 참사리 막걸리)
11월 09일	인터뷰 : 연합뉴스 라이브뉴스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11월 10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11월 11일	제14회 농업인의날(농촌진흥청 대강당)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11월 1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상임위 대비 국장회의(국회)
11월 13일	징검다리 서포터즈 위촉식(대회의실)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위기관리대책회의(중앙청사) 감귤 소비자 한마당(청계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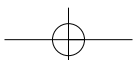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11월 14일	전국 바다 낚시대회(태안)
11월 16일 ~ 11월 20일	FAO 정상회의 출장
11월 23일	레바논 독립 66주년 기념(메리어트호텔)
11월 24일	당정협의회(의원회관)
11월 2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기술자협회 창립50주년행사(경마공원) 전화인터뷰 : SBS라디오 한수진의 오늘(장관실)
11월 26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상임위 사전준비(국회 소회의실)
11월 27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설명회(롯데호텔) 국장급 전략대회(국제회의실)
11월 28일	VIP주재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중앙공무원교육원)
11월 29일	VIP주재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중앙공무원교육원)
11월 30일	인터뷰 : 국제신문(집견실)
12월 01일	인터뷰 : 한경TV 수요초대석(영등포) 농업정책포럼(대회의실) 2009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 발표회(언론재단 국제회의장 20층)
12월 02일	낙동강 살리기 기공식(대구)
12월 0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변화창조 성과공유회 영상메세지(장관실) 월례조회(지하대강당)
12월 04일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농업연수원 대강당)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12월 07일	국장회의(국회 소회의실)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면담 : 캐나다 농업장관(롯데호텔 신관 프레스룸)
12월 08일	국장회의(상임위 소회의실) 분회의(소관사향있을시)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2월 09일	국장회의(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이낙연위원장 출판기념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국회 분회의(소관사향있을시)
12월 10일	농식품위 전체회의(국회) 경제부처장관 기자 브리핑(합동브리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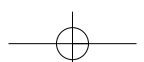


12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국군장병 위문(경기 연천 25사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실무위원회(대회의실)
12월 12일	국장회의(405호 회의실)
12월 14일	국장회의(국회 소회의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국회)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2월 15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국장회의(국회 소회의실)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12월 16일	풍어수산물 한마당 축제(수협중앙회) 1급회의(장관실)
12월 17일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총리실) KTV 정책대담(KTV) 식생활운동본부 창립 기념식(aT센터)
12월 18일	수출확대를 위한 조찬간담회(메리어트호텔3층) 국제개발협력위원회(중앙청사)
12월 20일	연두업무보고 관련 국장회의(대회의실)
12월 21일	국장회의(대회의실) 방방곡곡 현장공로자(국무위원식당) 소속기관 직원간담회(농관원)
12월 22일	연두업무보고 관련 보고(상임위 소회의실) 국무회의(중앙청사)
12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연기지역 다문화가정 방문 진안 다문화가정 산타방문(전북 진안)
12월 24일	저수지 뚝 높이기 착공식(나주)
12월 26일	연두업무보고 관련 국장회의(대회의실)
12월 28일	법사위원회(국회)
12월 29일	국무회의(청와대)
12월 30일	국장회의(대회의실) 임시국무회의(중앙청사) 2010년 업무보고(청와대) 본회의(국회)
12월 31일	MBN 신년 인터뷰(장관실) 연말정부포상 수여(장관실) 1급회의(장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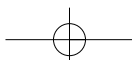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2010년	
일 자	내용(장소)
01월 01일	국립묘지 참배(현충원 현충탑)
01월 04일	정부시무식(중앙청사 별관2층 강당) 우리부 시무식(대회의실) 신년 인사회(장관실) 임명장수여(장관실)
01월 05일	농업인 신년하례회(농협 대강당) 시설피해 복구현장방문(고양시)
01월 06일	인터뷰 : SBS-R 라디오전망대(자택) 대한상공회의소 신년회(Coex 그랜드볼룸)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1월 07일	마케팅 리더를 위한 특강(AT센터) 농우회 정기총회(방배웨딩문화센터)
01월 08일	인터뷰 : KBS-R 농수산오늘 녹음(KBS) 수산인 신년인사회(수협중앙회) 도농교류 농촌사랑 대상 시상식(농협 대강당)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01월 11일	직원조회(지하대강당) 구제역관련 시도부지사회의(대회의실) 식품공업협회 신년회(조선호텔)
01월 12일	국무회의(중앙청사)
01월 13일	1급회의(장관실)
01월 14일	식물검역원,종자원 업무보고(식물검역원) 서울대학교 신년교례회(소공동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
01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중앙청사)
01월 17일	비전 2020세미나(대회의실)
01월 18일	사회통합위원회 1차 본회의(중앙청사)
01월 19일	국회 상임위(국회) 국무회의(재정부8층 국무회의실)
01월 20일	인터뷰 : YTN뉴스(YTN)
01월 21일	농업전망 2010대회(잠실롯데호텔3층 그랜드볼룸) 농진청 업무보고(농진청)
01월 22일	1급회의(장관실) 제43차 중앙통합방위회의(별관3층 국제회의실)
01월 25일	국장회의(대회의실) 한식 전문가 간담회(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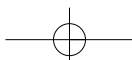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01월 26일	수협업무보고(노량진 수산시장) 14:30 국무회의(중앙청사)
01월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대회의실) 농협 업무보고(농협유통)
01월 28일	유통공사 업무보고(aT센터) 인터뷰 : 월간조선(접견실) 1급회의(장관실) 새만금 위원회(중앙청사)
01월 29일	한식세계화 추진단회의(대회의실) 임명장 수여식(장관실)
01월 31일	현장방문(안동, 예천, 문경)
02월 01일	경북지역 저수지 뚝 높이기사업 기공식(예천)
02월 02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미래전략과제 정책화방안 보고(대회의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설(국회)
02월 03일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국회) 녹색성장위 보고대회(청와대 영빈관)
02월 04일	농협법 개정관련 국회 공청회(국회도서관 대회의실)
02월 05일	경기도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안산 테크노파크) 설 민생점검 재래시장방문(수원) 중앙 · 지방 농림수산기관 파트너십 워크숍(농업연수원)
02월 0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02월 09일	국무회의(중앙청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02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인터뷰 : MBC 스페셜(접견실) 인터뷰 : MBN 뉴스2.0(MBN) 산림청 업무보고(수원 산림자원육성부)
02월 11일	체험삶의현장 현장녹화(충남 홍성)
02월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02월 16일	국무회의(중앙청사)
02월 17일	국장회의(농식품위 소회의실) 농림수산식품위(국회)
02월 18일	체험삶의현장 스튜디오 녹화(KBS) 천일염 세계화포럼 창립총회(롯데호텔)
02월 19일	우리쌀과 막걸리의 상생적 소비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학위수여식(농수산대학) 농업연수원, 농수산대학 업무보고(농수산대학) 고용전략회의(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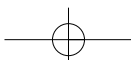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02월 20일	현장방문(서산,태안,서천)
02월 21일	현장방문(서산,태안,서천)
02월 22일	국장회의(농식품위 소회의실) 21세기 국가식량안보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농림수산식품위(국회)
02월 23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농협 정기대의원회(농협중앙회) 인터뷰 : 전남매일(장관실)
02월 24일	출범2주년 및 2020비전관련 브리핑(기자실) KBS1-TV 뉴스라인(KBS)
02월 25일	농림수산식품위(국회)
0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02월 27일	현장방문(인제,원주)
02월 28일	체험삶의현장 방송(KBS 1TV)
03월 01일	3.1절 기념행사(유관순 기념관)
03월 02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본회의(국회)
03월 0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제8회 농산업포럼(교육문화회관) 임명장 수여(감사관-장관실) 경남도 기념영상 제작(접견실)
03월 04일	KBS1-R 홍지명입니다 임명장수여(축산물품질평가원장-장관실) 면담 : 주한 러시아대사(접견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현판식(606호)
03월 05일	수산과학원 업무보고
03월 06일	현장방문
03월 08일	1급회의(402호 회의실) 농정국 현안 토론회(402호 회의실)
03월 09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면담 : 주한일본대사(롯데호텔) 미래한국 해양수산선진화포럼 창립총회(플라자호텔)
03월 10일	세계김치연구소 개소식(한국식품연구소) 농어촌공사 업무보고(농어촌공사)
03월 11일	마사회 업무보고(마사회) 식품유통정책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1급회의(장관실) 임명장수여(수산정책실장-장관실)





03월 12일	현장방문(제주도)
03월 13일	현장방문(제주도)
03월 14일	현장방문
03월 15일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식량원예정책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농촌정책국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03월 16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이데일리 TV 녹화(여의도) 녹색성장정책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국제협력국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어업정책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03월 17일	한식재단 출범식(aT센터 5층) 축산정책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03월 18일	1급회의(장관실) 상록대학 특강 분회의(국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보고(영등포 시험연구소)
03월 19일	현장방문(여수,목포)
03월 20일	현장방문(여수,목포)
03월 21일	국·과장 변화계획 워크샵
03월 22일	임명장수여(장관실) 국·과장 변화계획 워크샵(농업연수원) 인터뷰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녹음(장관실) 면담 : 일본농림수산대신
03월 23일	08:00 ~ 17:30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FAO관련 경부지사 MOU체결(402호 회의실)
03월 25일	참외·딸기 저온피해현장 방문(성주)
03월 26일	천일염 세계화 국제세미나(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농어촌 복지포럼 창립포럼(국회 도서관 대회의실)
03월 27일	풍년·풍어기원 산행(관악산)
03월 29일	원앙협력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일자리 특위 업무보고(기획재정부 회의실) 노제(2동 현관앞)
03월 30일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03월 31일	영산강 하구둑 기공식(해남)
04월 01일	동아일보 창간 90주년 기념행사(롯데호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강(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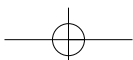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04월 02일	11:00 ~ 14:00 수산정책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함평나비대축제 축하메세지 영상제작(장관실) 제1회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대회이실) 임명장수여(장관실)
04월 03일	현장방문(이천,여주)
04월 05일	식목행사(여주) 해양환경 국민운동연합 창립10주년 기념식(국회 도서관 지하강당)
04월 06일	11:30 ~ 17:00 소비자안전정책관실 현안토론회(405호 회의실) 국무회의(청와대) 임명장수여(배상두과장)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04월 0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원양협력관실 현안토론회(402호 회의실) 확대간부회의(대회이실)
04월 08일	1급회의(장관실) 2010서울수산식품전시회 개막식(코엑스) 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이전 관련 MOU체결(국회귀빈식당)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04월 0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김치산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의원회관 소회의실)
04월 12일	쌀소비촉진 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04월 13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업 · 농촌경제동향보고(402호 회의실)
04월 14일	OBS 일요초대석 대담(OBS 스튜디오) 다음 MOU체결(대회이실) 국회 쟁점보고(장관실)
04월 15일	1급회의(장관실) 한국형 농업마이스터제도 정착을 위한 워크샵(제주)
04월 16일	농림수산식품위(국회)
04월 19일	1급회의(장관실)
04월 20일	생명대전 준비회의(402호 회의실) 국무회의(청와대 세종실)
04월 21일	시도부지사 회의(대회이실)
04월 22일	직원조회(지하대강당) MBC 공동캠페인 홍보영상 시사회(402호 회의실) 1급회의(장관실) 인터뷰 : KBS1-R 홍지명입니다. 밀레니엄클럽 특강(서울프라자)



04월 23일	10:00 ~ 21:00 농림수산식품위(국회)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국장회의(국회)
04월 25일	일요진단 생방송(KBS)
04월 26일	국장회의(대회회의실) 포커스 대담(YTN) 면담 : 태국 상공장관(접견실)
04월 28일	본회의(국회)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농산물류 신로드맵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대회회의실)
04월 29일	천안함 영결식(평택)
04월 3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재정전략회의 파워포인트 보고(장관실) BBS 불교방송개국 20주년 리셉션(세종문화회관)
05월 01일	사)도시농업포럼 주말농장행사(대원농장)
05월 03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농촌희망재단 홍보동영상 촬영(접견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차 보고회(청와대)
05월 04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식품부 모태펀드(코엑스) 제11회 농식품 수출탑 시상식 및 수출진전대회(aT센터) 삶의질향상 실무위원회(영상회의실)
05월 05일	SBS 라디오전망대
05월 06일	쌀국수 시식 및 기자단 오찬간담회(국무위원식당) 문화부 공동협력사업 MOU체결(문화부) 금양호 영결식(인천) YTN 뉴스(YTN)
05월 07일	제3차 일자리 전략회의(영상회의실) MBC-R “잠깐만” 녹음(MBC) 1급회의(장관실) 인터뷰 : CBS 이종훈의 뉴스쇼(장관실) 면담 : 주한 이스라엘대사(접견실)
05월 08일	떡볶이 페스티벌 시상식(aT센터)
05월 09일	재정전략회의(중앙공무원교육원)
05월 10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업계간담회(메리어트호텔) 막걸리 16종 선발대회(남산한옥마을)
05월 11일	국무회의(청와대) 농림수산식품위 현안보고(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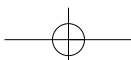




05월 12일	인터뷰 : 조선일보(조선일보) 중앙안전위원회(중앙청사 대회의실) MBC 구제역캠페인 영상메세지(접견실) 한식세계화 홍보대사 위촉식(킨텍스)
05월 13일	부산대 특강(부산대) 인터뷰 : MBC-R 손석희의 시선집중
05월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산불진압훈련 참관(이천 설봉공원) 2018동계올림픽유치 정부지원위원회(총리실 대회의실)
05월 17일	국장회의(402호 회의실) 월요 서초나눔 포럼(롯데건설 서울주택문화관)
05월 18일	국무회의(청와대) 제1차 동서남해안건 발전위원회(중앙청사9층)
05월 1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농어촌정책관련 학회(402호 회의실)
05월 20일	1급회의(장관실) 인터뷰 : BBS-R 전경윤의 아침저널(생방송)
05월 24일	임명장수여 : 한국농수산대학총장(장관실) 국장회의(대회의실)
05월 25일	국무회의(중앙청사)
05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서울신문 토론회(서울신문사) 나라미래 준비모임 강연(전쟁기념관)
05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특강 : 희망재단 장학생(용인 현대인재개발원) 인터뷰 : 서울경제신문(접견실)
05월 31일	제15회 바다의날 행사(코엑스) 국장회의(대회의실) 인터뷰 : 헤럴드경제 “동행” (덕수궁) 임명장수여 : 식품유통정책관(장관실)
06월 01일	국무회의(청와대) 고객지원센터 개소식(2동 1층) 면담 : 우간다 농업부장관(접견실) 인터뷰 : YTN 라이프매거진(접견실)
06월 03일	1급회의(장관실)
06월 04일	바다의날 포상(대회의실) K-TV 정책대담(KTV)
06월 06일	현충일 추념식(국립현충원)



06월 07일	농식품부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간 MOU체결(대회의실) 농산어촌 현장 애로 개선과제 보고대회(용인 농업기술센터) 1급회의(장관실) 필리핀독립 112주년 기념리셉션(힐튼호텔) 식량원예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06월 08일	국가농어촌 정책세미나(중앙청사 국제회의장) 임명장수여(승진자-대회의실) 농업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국무회의(중앙청사)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신라호텔)
06월 09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식품유통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소비안전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06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농어촌산업육성심포지움(국회헌정기념관) OECD 수산워크샵(부산) 쌀관세화 관련 세미나 축사(국회)
06월 11일	면담 : 한-브라질 수산장관 MOU체결 및 양자회담(부산)
06월 12일	현장방문(무안,목포,해남)
06월 13일	현장방문(신안,무안)
06월 14일	월례조회(지하 대강당) 축산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임명장수여 : 수산과학원장(장관실) 어업자원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국장회의(대회의실) 수산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06월 15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촌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수산업 비용절감 활성화 워크샵(천안 상록회관)
06월 16일	대정부 질문(국회)
06월 17일	농식품생명산업대전(aT센터) 2010농식품생명과학심포지엄(aT센터) 인터뷰 : 인포매거진(aT센터) 1급회의(장관실) 강남대 대학원 특강(서울교육문화회관)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리셉션(인천 송도컨벤시아)
06월 18일	한국농업경제학회 축사(aT센터) 신조 국가어업지도선 취항식(부산 5부두) 인터뷰 : 파이낸셜뉴스(aT센터 접견실)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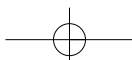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06월 21일	농식품위 업무보고(국회) 업무현안 보고 관련 국장회의(농식품위 소회의실)
06월 22일	국무회의(청와대) 인터뷰 : 내일신문(농민신문사) 면담 : 미안마 농업부장관(접견실) 확대간부회의(대회이실)
06월 23일	녹색성장정책국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인터뷰 : 어업인수산(접견실)
06월 24일	천일염 세계화포럼 공동의장단회의(여의도) 국제협력국 주요과제 점검(405호 회의실) 천일염 세계화포럼(aT센터)
06월 25일	농관원 노사화합 워크샵(충주 캐스팅 리조트) 교과부 MOU체결 및 연구기관 간담회(코리아나호텔) 2011년도 예산보고(장관실)
06월 26일	구제역 매몰지 점검 및 관계자위로(강화도) 한-우루과이 승리기원 농어업인 합동 응원전(마사회)
06월 27일	농업현장방문(경기도)
06월 28일	법사위(국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창립17주년(밀레니엄힐튼호텔) 1급회의(장관실) 본회의(국회)
06월 29일	국무회의(중앙청사) 농협중앙회 창립기념일 축하 및 시상(농협중앙회) 출장(상해)
06월 30일	출장(상해)
07월 01일	출장(상해)
07월 0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2010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코엑스) 미국 독립기념일 리셉션 면담 : 미국 버지니아주 상무부 장.차관
07월 03일	현장방문(가평)
07월 05일	국장회의(대회이실)
07월 06일	국무회의(청와대) 농단협 워크샵(농업연수원)
07월 07일	인터뷰 : KBS1-R 홍지명입니다. 원양협력관실 주요과제 점검(402호 회의실) 임명장수여(장관실)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07월 08일	농기계임대사업 발전방안 세미나 축사(국회 헌정기념관) 인터뷰 : KBS1-R 농수산오늘(KBS)
07월 09일	식품안전용어 순화토론회 축사(의원회관 소회의실) 낙농자조금 홍보대사 위촉(조선호텔)
07월 10일	소년소녀 가장돕기 행사(평촌) 수산현장방문(파주, 인천)
07월 12일	국장회의(대회의실) 모범공무원상 시상(지하대강당) 직원교육 특강(매경 장대화회장지하대강당)
07월 13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인터뷰 : 전남일보(접견실) 서울도시철도공사 5678 행복장터 기증식(청담역)
07월 14일	1급회의(장관실) 인터뷰 : 연합뉴스(접견실)
07월 15일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특강(경주문화센터) SBS 나이트라인 녹화(SBS)
07월 16일	1급회의(장관실) 한국농업경제학회 특강(고려대학교) 임명장수여(대회의실)
07월 17일	제62주년 제헌절 기념식(국회)
07월 19일	국장회의(대회의실)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강화포럼(프레스센터)
07월 20일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장수여(장관실) 우리술 학술세미나(조선호텔) 국무회의(청와대) 인터뷰 : 아시아경제(접견실) 주한 일본대사 이임리셉션(롯데호텔)
07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접견 : 신임 주한 이라크대사 예방(접견실) 임명장수여(장관실)
07월 22일	인터뷰 : 아시아투데이(접견실)
07월 23일	1급회의(장관실) 산삼축제(함양) 임명장수여(장관실) 인터뷰 : 조선일보(접견실)
07월 26일	국장회의(대회의실)
07월 27일	인터뷰 : KBS1-R 집중인터뷰(KBS) 인터뷰 : MBN "뉴스M" 출연(MBN) 국무회의(청와대)



07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재정부) 농업연구센터 협약체결식(장관실) 인터뷰 : 농수축산신문(접견실) 인터뷰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장관실)
07월 29일	1급회의(장관실) 산업박람회(코엑스)
07월 3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중앙청사) 2010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중앙청사) 서울경제 창간5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08월 02일	아주경제(접견실) 새만금 기네스 인증식(새만금)
08월 03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임명장수여(장관실) 농민신문 창간46주년 기념 축하메세지(접견실)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08월 09일	국장회의(대회의실)
08월 10일	국무회의(청와대)
08월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중앙청사) 간척농지 옥수수생산시연회(당진) 총리 이임식(중앙청사)
08월 12일	직원과의 대화(식품유통-대회의실) 한우비용절감 심포지움(농협 서울지역본부) 1급회의(장관실)
08월 13일	임시 국무회의(청와대) 직원과의 대화(축산정책-영상회의실)
08월 16일	을지훈련 최초상황보고(지하104호) 직원과의 대화(어업자원관실-3.4동 국제회의실) 직원과의 대화(녹색성장, 원양협력) 을지 국무회의(청와대)
08월 17일	전시주요 현안과제토의(B104)
08월 18일	일일상황보고(지하104호) 인터뷰 : 매일경제(접견실)
08월 19일	을지훈련 일일상황보고(지하 104호) 을지훈련 자체강평(지하104호) 직원과의 대화(수산정책관실-영상회의실) 직원과의 대화(국제협력국-영상회의실)
08월 20일	1급회의(장관실) 직원과의 대화(농촌정책국-대회의실)
08월 23일	IUFRO(세계 산림과학대회)세계총회(코엑스) 총신대 특강(목동)





08월 24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직원과의 대화(인사과, 운영지원과) 직원과의 대화(대변인실,감사관실-대회의실)
08월 25일	1급회의(장관실) 직원과의 대화(소비안전정책관실, 농업정책국)
08월 26일	전문지 기자단 감사패 전달(접견실) 1급회의(장관실) 직원과의 대화(기획조정관실)
08월 27일	1급회의(장관실)
08월 31일	국무회의(중앙청사) 언론브리핑(쌀관련) 기자오찬간담회 조선일보 인터뷰(접견실) 동아일보 인터뷰(접견실) 위기·대외장관회의 안건보고(재정부) 경북영양고추행사(서울광장) KBS-뉴스라인(KBS)

장관 취임 1주년 주요 성과

1. 취임초기 여건

- 2008년 8월 6일 농업부문과 수산부문 통합초기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미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로 전임 정운천 장관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상황에서 취임

2. 정책 추진방식과 주안점

- 고민 끝에 결심하면 끝장을 본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강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을 만들기 위해 농정을 혁신하는 데 전력
 - ※ 3.10일 농어업선진화를 시작하면서 점퍼 복장을 계속 유지
 - 농정 인력과 제도, 시장 등 농정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3MC (Mind Change, Method Change, Market Creation) 운동전개
- 농정 혁신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끊임없이 설득을 통해 합의를 도출
 - ※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추진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갖고 추진
 - 농협개혁은 이해당사자인 농협과의 합의를 통해 농협이 스스로 추진
 - 농어업선진화도 농어업계,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선진화 방안을 마련



- 정부위주의 농정에서 농어업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율 농정으로 전환
 - 정부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개별 지원보다는 제도 등 인프라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농어업인과 지역 중심의 의사 결정 여건과 분위기 조성
- 현안과제의 근원적 해결과 함께 품목중심의 경쟁력강화와 규모화, R&D 개편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농정시스템을 개편
- 국내시장 중심의 협소한 정책방식을 전환,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업의 시장을 세계로 확대
- 기후변화, 개방확대 등에 대응, 농식품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위해 4대강 살리기와 금수강촌 정책,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

3. 주요 현안대응

① 미 쇠고기 문제를 무리없이 마무리

- 취임 즉시 미 쇠고기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함께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확대,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
- 특히, 음식점원산지 표시 확대, 쇠고기 이력제 시행 등을 통해 소비자가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한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미 쇠고기 수입이전 보다 오히려 높아졌음

※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 : ('07) 46.3% → ('08) 47.6% → ('09.6)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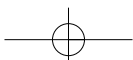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②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대두에 대응,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불금 수령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수령금 환수조치 추진

4. 주요 정책성과

① 농업인이 주인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농협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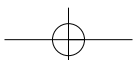
- 농협중앙회장 간선/단임제, 조합 업무구역 확대 등 이해가 첨예한 농협 개혁을 이루기 위해 장관이 직접 농업인 단체, 농협, 국회를 직접 설득
- 금년말까지 농협 신경분리 방안을 마련, 농협 출범 50년만에 농업인이 진정한 농협의 주인이 되도록 대대적으로 개혁 추진

②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주요 농수산물 29개 품목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생산·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
- 품목별 대표조직을 설립,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인 품목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율농정 체계를 정립
 - ※ 7.31일 현재 감귤, 넙치, 우유에 대해 품목 대표조직 설립
- 농협이 신용사업 수익을 활용하여 농기계 은행사업을 본격 추진, 농가의 농기계 부채 부담 및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
 - ※ 농협은 5년간 1조원을 투자, 2.3조원의 농가 부담 완화 및 영농비 부담 경감 추진
- 시군 단위 농수산물 판매 전문회사 설립,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립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반 마련
 - ⇒ 농어업 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농림수산분야 R&D추진체계 개편, 종자산업 대책마련, 농어업교육체계 개편 방안도 금년 하반기 마련 예정
- ③ 농어업계,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
 - 소모성 보조를 생산적 보조로 개편하는 등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
 - 9개의 직접지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체계화·단순화
 - 농어업분야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업전담 금융기구 설립,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등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 농식품부 산하 3개 검사·검역기관 통합, 식품안전관리 및 주류 육성업무 통합, 해양 환경업무 통합 등 미래지향적 농정추진 체계 구축
 - ⇒ 농어업선진화 대책을 종합, 금년말까지 MB정부의 중장기 농정추진 전략을 담은 농정 비전 2020대책을 수립
- ④ 기후변화 등에 대응, 미래를 준비하는 녹색성장의 기초를 마련
 - 농수산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대책 마련,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수립, 4대 강 살리기 및 금수강촌 사업을 통해 농어업을 우리 땅과 물을 살아나게 하는 녹색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⑤ 수출확대, 해외농업개발 등으로 농어업의 외연을 확대
 - 국내시장에 국한된 농림수산분야 시장 확대를 위해 2012년 농식품 100억불 수출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중





※ 농식품 수출 : ('07) 37.5억불 → ('08) 44 → ('12p) 100

-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첨단 유리온실 등을 활용한 수출전문 단지 조성, 품목대표조직 육성 등으로 수출활성화 도모
- 해외농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국가 외교 전반과 연계되는 종합적인 국제 농업 협력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

⑥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지지원 및 지역개발 강화

- 농어촌의 복지0·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위해 11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05~'09) 마무리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농어촌 뉴타운 조성 등 1차 계획을 보다 발전시킨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 농어촌 서비스기준 :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
거·교통·교육 등 8개분야 30개 항목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금년중에 마련

- 경제위기 극복과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 농어촌 인력확보 등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 추진

⑦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의 의미를 살려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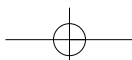
-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KOREA FOOD EXPO 개최, 한식세계화 대책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세계 김치연구소 조성 추진, 술 산업 활성화, 천일염 식품 본격개발 등 식품산업 육성 토대 마련

⑧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확대('08.7), 쇠고기 이력제 전면시행('09.6),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시범실시('09.5)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

⑨ 수산분야의 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 수협 개혁방안 마련
-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확대, 연안 맞춤형 어업관리 등 어업구조조정 촉진
- 대규모 바다숲 조성, 해외 수산자원 개발 등 수산분야 성장기반 확충





5. 농어업인에게 다가가는 현장·체감 농정 추진

- 농어업인들의 자립·자강과 농어업인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농어업인과의 대화와 만남에 주력
 - ※ 취임이후 175개 시군 방문, 육로 46,911km, 항공 24,210km 등 총 71,121km이동
- 방방곡곡 AGRO 스쿨 운영, 주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
- 인터넷, 블로그, 만남 등을 통해 농어업인과의 온라인 상시 대화

6. 규제개혁 및 입법 성과

- ① 농어업인 및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116건 개선
 - 농지규제 완화, 농축산업 진입장벽 해소, 농식품 제조업 위생기준 합리화, 농촌 지역 개발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어업제도 개선 등
- ② 농정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97건의 법령을 제·개정
 - 농협법, 농업경영체 육성 등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과학기술육성법, 농지법,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30개 법률을 제·개정
 - 제·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 20건, 시행규칙 47건을 제개정
 - 금년중에 추가로 종자산업법 등 33개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중

